



학 술 세 미 나

중원지역 기와 연구와 전환기

2018. 06. 28.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학술세미나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발 표 자
개회식	13:00~13:10	개회사 : 노명구(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축 사 : 최종덕(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사회 : 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1부 중원지역 기와 연구의 어제와 오늘			
기조강연	13:10~13:40	중원의 와당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제1주제	13:40~14:00	중원지역 기와의 주요 조사현황	정태은(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2주제	14:00~14:20	중원지역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정현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휴 식	14:20~14:40		
2부 중원지역 전환기 기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특별강연	14:40~15:10	중원의 기와 - 삼국을 중심으로	최맹식(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제3주제	15:10~15:30	중원지역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	최영희(강릉원주대학교)
제4주제	15:30~15:50	신라 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휴식	15:50~16:00		
제5주제	16:00~16:20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범자명(梵字銘) 막새	이상규(한성문화재연구원)
제6주제	16:20~16:40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김경범(고운문화재연구원)
휴 식	16:40~16:50		
종합토론	16:50~18:00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좌장 : 신창수(백두문화재연구원 이사장) 토론 : 양종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윤용희(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추진단)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폐회식	18:00~18:10	폐회사	노명구(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 일 시 : 2018. 6. 28(목) 13:00 ~ 18:00 • 장 소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강당 • 주 최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Contents



기조강연

중원의 와당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장준식	7
----------------------------	---

주제발표

제 1주제 • 중원지역 기와의 주요 조사현황 정태은	15
제 2주제 • 중원지역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정현아	30

특별강연

중원의 기와 – 삼국을 중심으로 최맹식	67
-------------------------	----

주제발표

제 3주제	
• 중원지역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 최영희	81
• 「중원지역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에 대한 몇가지 질문 양종현	103
제 4주제	
• 신라 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최정혜	107
• 「신라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문 최태선	123
제 5주제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범자명(梵字銘) 막새 이상규	127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범자명(梵字銘) 막새 변천과정」에 대한 토론 윤용희	145
제 6주제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김경범	149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을 읽고 백종오	165

● 기초강연

중원의 와당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 장준식 |



● 중원의 와당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장 준 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I. 중원지역의 종합적인 기와 연구 시작
- II. 『중원의 와당』 발간과 의의
- III. 『중원의 와당』 논고의 연구 성과
- IV. 중원지역의 와당에 대한 연구과제

I. 중원지역의 종합적인 기와 연구 시작

우리나라의 瓦塼研究史는 2003년 11월에 개최한 『제 1회 한국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성구선생이 한국의 와전 연구사를 초창기(1880~1940년대) · 형성기(1950~1970년대) · 발전기(1980~1990년대)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그리고 와전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국와전 연구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한국기과학회가 창립되면서 우리나라 와전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중원지역에서의 학회활동은 2007년 6월 제천 장락사지 출토 기와라는 단일주제로 국제학술회를 제천에서 개최 하였고 2012년 10월 『중원문화와 기와』, 2013년 10월 『성곽과 기와』라는 주제로 한국기과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충주와 청주에서 각각 개최한바 있다.

먼저 『중원문화와 기와』라는 학술대회는 중원문화의 입지와 그 중요성에 비해 각 부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미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담겨 있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기와를 통한 중원문화의 이해와 접근이라는 점에서 중원문화 연구의 학문적 토대가 새롭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성곽과 기와』라는 학술대회는 사찰 다음으로 기와가 많이 출토되는 성곽의 명문기와를 주제로 한국성곽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성곽학회의 차용길회장은 “성곽에서 銘文기와의 출토는 한국성곽의 이해일 뿐 만 아니라, 역사연구에 막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성곽에서 출토된 문자가 새겨진 기와를 검토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기와 연구일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城郭에 代入하는 첫 검토 작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성곽과 기와 연구자들의 교류와 학회 간 상호보완적인 연구풍토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개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와 함께 중원지역의 사찰유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해 낸 충청대학교의 김인한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인한 선생은 2012년 10월 제9회 한국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중원지역 기와 출토 유적현황과 성격」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중원지역에서 기와가 출토된 유적과 와요지에 대하여 1970년대 조사사례부터 최근의 조사성과 및 기본현황을 총 망라하였다. 그리고 유적이 조성된 목적과 기능에 따라 관방유적, 공공유적, 사지, 제사유적, 樓亭, 생활유적, 생산유적 등으로 구분하였고, 건물지 성격 파악과 기와 사용처의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기와별로 출토된 유적의 개체 수를 파악하고, 개체 내의 비율과 유적간의 비율을 비교분석까지 하였다. 여기에서 평기와 및 와당, 특수기와, 명문기와까지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와 연구자들이 중원지역 기와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큰 의의가 있었다.

II. 『중원의 와당』 발간과 의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도에 충청북도와 남한강유역에서 기와가 출토된 유적 140여 개소 중 와당(瓦當)이 출토된 43개소 유적에서 722점을 정리 수록한 『중원의 와당』 도록을 편찬하였다. 『중원의 와당』을 편찬하는데 오랜 준비기간과 노력이 있었다. 그 과정을 소개해 보겠다.

먼저 기초자료조사에서 1차적으로 조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충북 및 경기 동남부, 강원 서부 지역의 보고서에 수록한 와당의 유형과 수량을 정리 목록화 하였다. 또한 보고서별 각 유물의 현재 소장처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암·수막새 유형별 분류 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자문회의를 2016년 4월 26일에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하였다. 자문회의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대상유적 및 유물의 시공간적 범위·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출토기와와의 시대 설정 등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의 결과는 조사대상의 지리적인 위치설정, 충청북도와 경기 동남부, 강원서부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수계(水界)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시간적인 구분은 현 대상지역에 대한 기와(막새) 연구가 미약함을 들어 정확한 시기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전 시기를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서도 명쾌한 시대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 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대 설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이후 현지조사에 앞서 유물의 속성에 맞는 조사지에 대한 설명서를 문옥현, 정현아가 담당하였고, 최영희가 자문하였다. 현지 조사는 2016년 9월 7일에 중원문화재연구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총 11개 기관(방문횟수 16회)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모든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삼국시대~조선시대 와당(瓦當) 자료를 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와당의 편년과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중원의 와당』에서는 수록된 와당들을 형태, 문양, 기법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유형 분류까지 하였다. 유형 분류는 수막새 224개 유형, 암막새 209개 유형, 연목와 2개 유형, 귀면와 5개 유형, 마루암막새 12개 유형, 마루장식기

와 2개 유형, 기타 막새 2개 유형 등으로 세밀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안은 기와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와의 분류와 편년안 등의 시각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중원지역 와당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역성까지 도출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원지역 물질문화의 정체성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와당을 통한 각각의 문화권을 규명하는데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중원의 와당』 논고의 연구 성과

『중원의 와당』에는 이 분야 전문가의 귀중한 논문 3편이 기고되었다. 필자는 최정혜 선생의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최영희 선생의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충북·경기서부·강원영서지역의 막새를 중심으로」, 정현아 선생의 「중원지역의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에 대해 간략하게 연구 성과를 소개하겠다.

1.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최정혜 : 부산근대역사관)

먼저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에서는 중원지역 막새기와를 형식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기의 변화과정을 구분하였다.

1기는 통일신라 후기 막새 양식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의 특징을 띤 막새도 제작되는 시기로,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하였던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전 시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4엽연화문수막새와 모란문암막새 등 새로운 형식도 출현한다. 1기의 시간적인 범위는 사찰의 창건 및 중창연대, 존속시기 그리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막새의 조성관계와 변화양상을 통해 볼 때 후삼국이 난립하면서 고려가 건국되는 9세기말 ~10세기 초반부터 11세기 후반으로 설정하였다.

2기는 일회문막새가 출현하여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시기로 기존에 성행하던 연화문수막새에 영향을 주며, 암막새에는 연화문만 시문되는 새로운 암막새 형식도 제작된다는 점이다. 일회문막새는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의하면 11세기 말 12세기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파주 혜음원지나 경주 황룡사지 출토품을 초기 형식으로 보고 있다. 2기의 시기는 일회문막새가 출현하는 11세기 말 12세기 초를 상한으로 하고, 몽고 침입이후 막새 제작방법이나 형태, 문양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몽고침입 이후인 13세기 전반을 하한으로 보고 있다.

3기는 2기와 마찬가지로 연화문수막새·당초문암막새·일회문암·수막새가 사용되며, 범자문이 시문된 막새가 새로운 형식으로 출현한다. 연화문수막새는 자방이 돌출되고 커지면서 연판도 양감이 있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화문수막새의 양감적인 표현 방법은 일회문막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3기의 시기는 막새 문양과 형태, 제작기법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13세기 전후를 상한으로, 하한은 고려가 멸망하는 14세기 후반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중원지역 막새를 형식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시기별 변화양상과 특징을 도출해 냈는데 있어서, 사찰의 창건 및 중건 연대에 대한 편년설정과 함께 중원지역의 왕실과 지방호족 관련 사찰자료에 대한 성격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최영희: 강릉원주대학교)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충북·경기서부·강원영서지역의 막새를 중심으로」에서는 막새 제작기술의 변화과정을 살펴 중원지역으로 유입된 조와기술(造瓦技術)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정착·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검토하였다.

삼국시대의 막새와 관련하여 도성(都城)의 조와기법(造瓦技法)이 유입·사용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도성과 차별되는 조와기법과 관련하여 청주 부도산성 출토품은 ‘중치형(縱置形)의 압날식(押捺式) 시문법, 삼년산성 출토품은 ‘원통접합 후 분할법’에 주목하여 고대 기술의 흐름과 그 형성방식이 반드시 중앙-지방의 종속적 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접근하였다.

신라 경주식 조와기법의 도입과 관련하여 충주 탑평리유적과 제천 장락사지 출토 수막새·암막새를 통해 7세기 전엽 이후 신라의 도성인 경주지역(수기와 피복접합기법, 드림새 뒷면의 타날조정)으로부터 유입된 조와기술의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성된 점과 탑평리 유적의 무문암막새와 무악식 당초문암막새를 통해 7세기전·중엽부터 통일신라식 막새의 제작기술이 중원지역에 도입되기 이전에 자체적인 조와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신라시 조와기술이 중원지역에 적용되는 시점은 경주내 중판타날의 확산·정착과 드림새 문양의 출현·존속등을 감안할 때, 7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비정하였다. 다만 나말여초기와 관련하여 지방의 시·공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많이 보이며, 중원지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조와기법들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시·공간적 간극을 수정하고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문양, 기술요소, 막새·평기와·처마끝·마루끝 장식기와 등 타종류와의 조합상, 타유물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려·조선시대 막새 제작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드림새 문양이 늦게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시기가 되면, 막새의 시문 및 접합방식에서 종래와 다른 ‘압날식 시문법’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원지역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와법을 더 이상 성형도구가 아닌 시문도구로만 사용하는 ‘압날식 시문법’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통일신라식 조와기법이 유입·일반화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대략 고려시대 중기를 지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등장, 조선시대 및 근대에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등장·확산되는 ‘평기와 분할 후 접합기법+압날식 시문법’과 드림새와 평기와의 접합각도가 직각에서 둔각으로 변하는 양식을 늦어도 13세기 이후로 보았다.

이 논문은 중원지역 막새를 대상으로 삼아, 삼국시대에 조와기술이 유입된 후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정착되며, 통일신라시대 지역의 정치적·행정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고려·조선시대에 재등장하는 압날식 시문법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면서, 형식구분의 소이(所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와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형과 기술에 담긴 다양한 양상을 통해 생산주체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 「중원지역의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정현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중원지역의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에서는 평기와 및 막새를 제외한 특수 기와들을 대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먼저 서까래 기와는 연목와·부연와, 사래기와 및 토수로 구분하였고, 마루기와는 적새(마룻장기와), 착고, 마루장식기와(용두·치미, 귀면문 기와, 마루암막새 : 박공막새·암막새·모서리암막새, 망새·곱새·마루수막새, 잡상, 기타 막새 추정기와 : 이형문수막새·이형막새, 이형기와·장식기와·특기와·특수목적기와) 등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정리하였다.

특히 마루암막새와 암막새를 구분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암막새의 범상흔을 통한 구분은 유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 중요한 구분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서리암막새의 사례를 확인하고, 그 제작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보고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향후 기와 자료의 분류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통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용도 미상의 토제품을 기와류로 편입하는 경우와 편이 작아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 기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그와 같은 자료가 축적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塼을 기와로 분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해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네 번째, 다양한 기와가 지붕의 ‘어디’에 ‘어떻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건축학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중원지역 서까래와 마루기와를 대상으로 삼아, ‘명칭’과 그에 따른 ‘분류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였고, 기와 자료의 분류와 축적을 위해 주의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중원지역에 다양한 기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발굴조사 담당자 및 기와연구자 등이 명칭과 통일된 분류안을 바탕으로 정리와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IV. 중원지역의 와당에 대한 연구과제

2003년도에 발족한 한국기와학회는 우리나라의 기와연구를 종합적이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회원들이 적극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와 상호 교류하게 되었다.

김성구 선생이 분류한 우리나라의 와전연구사 중 발전기인 1980년대에는 평기와를 연구하였던 현장 조사원들은 많은 애환이 있었다. 필자와 동학인 신창수·최맹식 등은 학부를 졸업하면서 바로 황룡사와 미륵사지 조사단에 참가하였고, 그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 만점의 평기와를 봉투별로 구분하고 세척한 유물을 따로 구분하여 말리고, 마르면 봉투에 있는 트렌치 번호, 깊이, 기타 필요한 내용을 모두 유물에 써 넣어야 했다고 한다.

미륵사지현장에서는 초창기부터 평기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당시 조사단장인 김정기 박사의 의견에 따라 전용조사원을 두어 몇 명의 세척조와 함께 출토되는 모든 기와를 트렌치별, 토층별로 세척, 문양별 분류, 기록(문양별로 분류된 것)통계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맹식은 평기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것을 착안하여 관심을 가졌으나 당시에는 참고서적 등 연구서가 전무하여, 현장에 대충 정리해둔 기와를 일일이 흙을 털어가면서 문양을 관찰하고 서로 다른 문양이 출토되면, 노트에 예외 없이 그림을 그리고 특징과 느낌 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어둠이 밀려올 때까지 이러한 기록 작업을 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무언가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로 이용하거나 차후 활용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와를 연구한다는 것은 수많은 기와를 세척하고 관찰하는 등 힘든 노동과 동시에 특수한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원지역의 와당에 대한 연구과제는 다음 2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기와 전공자의 확충과 저변 확대라고 생각된다. 앞서 정현아 선생의 논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기와자료의 분류와 축적을 위해서는 기와가마터를 포함하여 건물지의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에 기와연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와전의 분류는 물론 그 정리와 유구의 해석을 거쳐 발굴조사의 보고서 작성까지 담당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와를 생산했던 가마터 및 공방지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 확보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원의 와당』 도록에 수록된 와당은 사찰, 성곽유적 등의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도록 발간에 참가한 여러 전문가들이 기존의 와당 연구 성과와 발굴조사에서 공반된 명문기와 및 표지유물, 토층의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편년을 설정하였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절대편년상의 자료 부족을 공감했으리라 거라 생각된다.

기와가마터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집성은 와당에 대한 제작기법의 양상과 변화과정, 편년설정 뿐만 아니라, 도성에서 중원지역으로의 기술집단 이동 혹은 기술력의 전파와 같은 연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와생산유적인 가마터에 대한 조사성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중원지역 와당의 연구 과제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기와연구에 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제발표

제 1주제

중원지역 기와의 주요 조사현황 | 정태은 |

제 2주제

중원지역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 정현아 |



● 중원지역 기와의 주요 조사현황

정 태 은(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중원지역 와당조사 현황

III. 맺음말

I. 머리말

중원(中原)은 신라 9주5소경 중 하나로서 충주지역에 설치된 중원경(中原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유역, 넓게는 한반도 남부내륙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중원지역은 역사상 정치·사회·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한 적은 없지만, 한반도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까닭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중요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전초기지로 각국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는 중원경, 서원경, 북원경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의 산실이였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조운과 봉수의 기착지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로 인해 중원지역에는 고대 삼국이 교차하면서 많은 수의 산성이 축성되었으며, 중원경·서원경·북원경 지역을 중심으로 관아와 건물지, 사찰, 봉수와 조창 등이 건설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기와이다. 기와는 고대부터 관아, 사찰, 귀족의 저택, 성곽 내 주요 시설물 등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와의 출토는 그 건물의 기능과 위계를 반영하는 자료로 인식되었다. 특히 암·수막새를 지칭하는 와당은 평기와보다 출토 수량이 현저히 적지만, 건물의 성격을 결정짓고 연대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건축부재로서 오래전부터 주목받았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백제와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사지 등 건물지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와당이 출토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¹⁾. 백제와 신라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2014, 『백제 사비기 기와 연구 I~V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신라 고신라 수막새 분류표준화방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신라 황룡사지 고식수막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와당 연구는 문양 뿐 아니라 제작기법, 유통체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도성을 중심으로 한 고대 제와술의 다양한 요소와 전개양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원지역에서도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와당이 출토되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남한강유역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강원도 남서부 및 경기도 남동부 소재 유적 43 개소에서 출토된 압·수막새 및 귀면와, 마루기와 등 일부 특수기와 등 자료들을 집성하여 2017년 『중원의 와당』을 발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대상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본 글은 그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조사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어떠한 성격들을 갖는 유적에서 어떤 기와들이 출토되었는지를 개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²⁾.

Ⅱ. 중원지역 와당조사 현황

중원지역 기와 출토유적에 대한 조사는 1977년 충주 미륵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이후 1980년대 초 충주 댐 건설공사를 위한 수몰지구 구제발굴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그 유적·유물(막새)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대별로 크게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제 1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제 2기, 2001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제 3기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조사 시작 연도부터 포함).

2) 본 발표문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발간한 『중원의 와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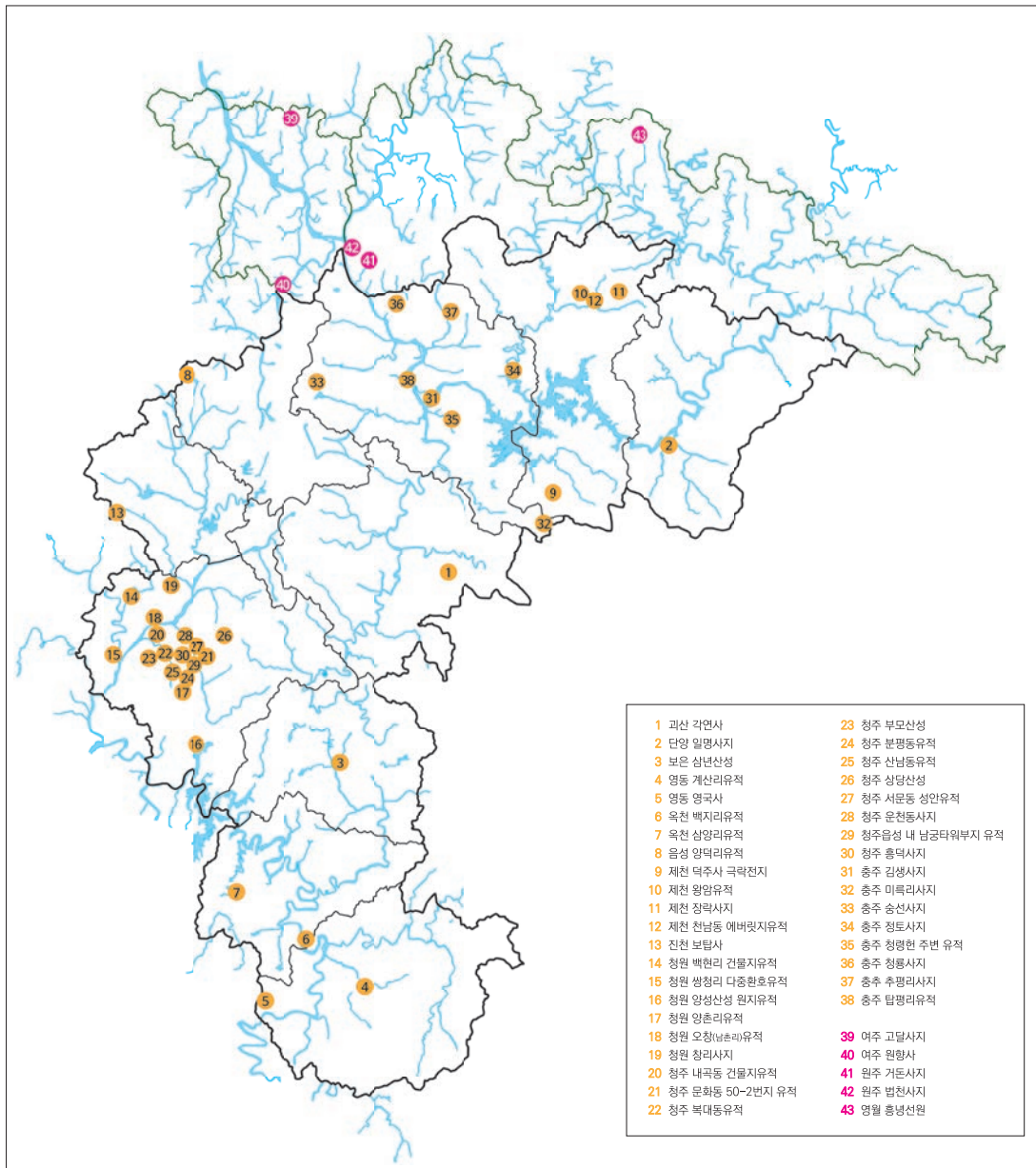


그림 1) 와당 출토 주요 유적 분포 현황

1. 유적조사 제1기(1977 ~ 1990, 표 1 참조)

본고에 소개된 1970년대 ~ 1980년대에 조사된 유적은 충주 미륵리사지를 비롯하여 모두 8개소에 달한다. 충주댐과 중부고속도로 등 국토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역시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충주 2, 청주 3, 단양 1, 보은 1, 원주 1이고, 유적성격별로는 보은 삼년산성을 제외하고 모두 절터로 추정된다. 한편, 시대별로는 통일신라 ~ 조선까지 다양한 편이었으나 대체로 고려 ~ 조선시대에 집중되었다. 발굴조사된 주요 유구들은 충주 미륵리사지는 절터[寺址]와 원지(院址)로 구성된 복합유적이며, 청주 윤천동사지는 금당지와 탑

지, 중문 등 남-북 가람배치가 확인되었고, 충주 정토사지는 법당지 추정 건물지가, 단양 일명사지에서는 목탑지와 대규모 건물지, 보은 삼년산성에서는 배수로 인해 퇴적된 층이, 청주 흥덕사지는 중문, 금당, 회랑지 등이 발견되었다. 원주 거둔사지에서는 대규모 석축과 금당지와 회랑지 등이 확인되었다.

성격	유적명	조사연도	시대	와당 출토 수량		
				수막새	암막새	기타
사지·공공	충주 미륵리사지	1977~1978, 1982, 1990~1991	고려~조선	9	11	1
사지	청주 윤천동사지	1982~1985	통일신라~고려	5	6	1
사지	충주 정토사지	1983~1984	고려~조선	14	12	
사지	단양 일명사지	1983~1984	고려	3	7	2
관방	보은 삼년산성	1983년, 2002~2003	통일신라~조선	2		
사지	청주 흥덕사지	1985~1986	고려	11	13	1
사지	청주 내곡동건물지	1986	고려	3	2	
사지	원주 거둔사지	1989~1992	통일신라~조선	24	18	2

표 1) 1기 해당 유적 및 출토와당 현황

출토된 와당을 살펴보면, 수막새의 경우 대부분 연화문이고, 일부 보상화문과 귀목문(일휘문)이 출토되었다. 윤천동사지와 흥덕사지를 제외하고 복합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표 2).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연화·당초문
충주 미륵리사지	 (9)			
청주 윤천동사지		 (2)	 (1)	 (2)
단양 일명사지	 (3)			
보은 삼년산성	 (1)	 (1)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연화 · 당초문
청주 흥덕사지	 (6)	 (1)	 (1)	 (3)
청주 내곡동건물지	 (2)		 (1)	
원주 거돈사지	 (19)		 (5)	

표 2) 1기 해당 유적 출토 수막새 대표 문양

암막새의 경우 수막새에 비해 보다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은 당초문, 연화문, 초화문, 귀목문의 4가지 문양만 출토되었으며, 복합형 역시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청주 운천동과 흥덕사에서 연화 · 당초문 암막새만 확인되었다(표 3). 그 중 대표적인 문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적명	암막새 기본형(수량)				암막새 복합형(수량)				
	당초문	연화문	초화문	귀목문	당초 · 초화문	당초 · 모란문	귀목 · 명문	귀목 · 모란문	귀목 · 기호문
충주 미륵리사지		 (6)			 (5)				
청주 운천동사지	 (3)			 (2)	 (1)				
단양 일명사지	 (2)		 (2)		 (1)				 (2)
청주 흥덕사지	 (3)	 (3)		 (2)	 (2)	 (1)			
청주 내곡동건물지	 (1)			 (1)					
원주 거돈사지	 (10)			 (2)	 (3)		 (3)	 (3)	

표 3) 1기 해당 유적 출토 암막새 문양

2. 유적조사 제2기(1991 ~ 1999)

1990년대에 들어 중원지역 내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굴조사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11개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충주 2, 청주(청원) 3, 옥천 1, 진천 1, 괴산 1, 영동 1, 여주 2개로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영동 계산리유적과 청주 상당산성, 충주 탑평리유적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지유적이다. 시대는 대부분 통일신라~조선시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충주 탑평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중원지역 최초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중원지역 특유의 막새들이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다. 충주 탑평리유적과 충주 청룡사지, 청주 상당산성, 여주 고달사지, 여주 원향사 등에서 그 중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성격	유적명	조사연도	시대	와당 출토 수량		
				수막새	암막새	기타
생활유적	충주 탑평리유적	1992~1993, 2008~2009, 2011~2012	삼국~통일신라	13	24	1
사지	청원 백현리건물지	1995	고려		1	
사지	충주 청룡사지	1995	조선	12	13	
관방	청주 상당산성	1997, 2002, 2010~2011	통일신라~조선	17	10	4
미상	청원 오창유적	1997~1999	고려	1		
사지	옥천 백지리유적	1997	통일신라~고려	2	2	
사지	진천 보탑사	?(보고서 1997발간)	고려	1		
사지	괴산 각연사	1998	통일신라~조선		1	
사지	여주 고달사지	1998~2004	통일신라~조선	10	7	2
사지	여주 원향사지	1999~2001	통일신라~고려	24	17	1
공공·생산	영동 계산리유적	1999	고려~조선	1		

표 4) 2기 해당 유적 및 출토와당 현황

출토된 수막새들은 연화문이 가장 많고 고려~조선으로 갈수록 귀목문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연화문이라고 해도 시대에 따른 문양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표 5).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귀면문	명문	연화·당초문	귀목·당초문	귀목·연화문
충주 탑평리유적	 (7)	 (5)		 (1)				
충주 청룡사지	 (7)					 (5)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귀면문	명문	연화 · 당초문	귀목 · 당초문	귀목 · 연화문
청주 상당산성	 (15)							
청원 오창유적							 (1)	
옥천 백지리유적	 (2)							
진천 보탑사					 (1)			
여주 고달사지	 (9)		 (1)					
여주 원향사지	 (17)	 (4)	 (2)					 (1)
영동 계산리유적		 (1)						

표 5) 2기 해당 유적 출토 수막새 대표 문양

한편, 암막새는 당초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충주 청룡사지와 여주 원향사지와 같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문양의 암막새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수막새에 비해 암막새의 문양이 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6).

유적명	암막새 기본형(수량)					암막새 복합형(수량)							
	당초문	귀목문	무문	인화문	명문	당초 · 초화문	연화 · 당초문	당초연화 귀목문	귀목 · 범자문	초화 명문	귀목 명문	귀목 조문	귀목 초화문
충주 탑평리유적	 (16)		 (8)										
청원 백현리건물지						 (1)							

유적명	암막새 기본형(수량)					암막새 복합형(수량)							
	당초문	귀목문	무문	인화문	영문	당초·초화문	연화·당초문	당초연화귀목문	귀목·범자문	초화영문	귀목영문	귀목조문	귀목초화문
충주 청룡사지													
					(3)		(2)	(2)	(3)				(2)
청주 상당산성													
	(1)									(6)			
옥천 백지리유적													
	(2)												
괴산 각연사													
	(1)												
여주 고달사지													
	(6)												
여주 원향사지													
	(3)	(2)		(4)		(7)						(1)	

표 6) 2기 해당 유적 출토 암막새 문양

3. 유적조사 제3기(2000~2011, 표 7)

성격	유적명	조사연도	시대	와당 출토 수량		
				수막새	암막새	기타
생활유적	충주 송선사지	2000~2002, 2004, 2007~2009	고려~조선	19	27	1
공공	제천 왕암유적	2001~2002	고려		3	
미상	청원 양촌리유적	2001~2003	통일신라~고려		2	
사지	원주 법천사지	2001~2004, 2006~2007, 2011	통일신라~조선	60	60	
공공	옥천 삼양리유적	2002	고려~조선	1	2	
사지	충주 김생사지	2002~2004	통일신라~조선	15	12	
사지	영월 흥녕선원지	2002~2004	통일신라~고려	7	5	
관방	청원 양성산성 원지 유적	2003	신라~고려	2		
관방	청원 쌍청리 다종환호유적	2003~2005	통일신라	1		
사지	청주 분평동유적	2003~2005	고려	10	9	1
미상	청주 산남동유적	2003~2005	고려	1		
사지	영동 영국사	2003~2005	고려~조선	25	21	3
사지	제천 덕주사 극락전지	2004	조선	2	1	
사지	제천 장락사지	2004~2008	삼국~조선	24	8	2

성격	유적명	조사연도	시대	와당 출토 수량		
				수막새	암막새	기타
관방	청주 부모산성	2004~2006, 2012~2014	삼국	22		
미상	청주 복대동유적	2005~2006	통일신라	7		
공공	청주 서문동 성안유적	2006	고려~조선	5	3	
미상	충주 청령헌	?(보고서 2008 발간)	통일신라	2	1	
미상	청주 문화동 50-2번지유적	2007	통일신라~조선		1	
사지	충주 추평리사지	2008	통일신라~조선	3		
공공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유적	2008	고려	2	1	
미상	음성 양덕리유적	2008~2009	삼국~조선	4		3
사지	청원 주성리·창리유적	2009~2011	고려~조선	14	17	
미상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유적	2011	통일신라~조선	2		

표 7) 3기 해당 유적 및 출토와당 현황

21세기 들어서면서 개발이 보다 많아짐과 함께 여러 발굴조사기관들이 설립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앞선 20여년에 비해 보다 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본 글에 소개하는 유적들도 제3기에 들어 24개소에 달한다. 유적 수가 많은 만큼 지역 및 유적 성격도 다양하다(표 7). 충청북도는 청주(청원) 11, 제천 4, 충주 4, 옥천 1, 영동 1, 음성 1의 21개소, 강원도는 원주 1, 영월 1의 2개소로 청주지역에 대부분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구제발굴 및 유적의 보존, 정비를 위한 조사 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조사된 유적들은 제천 장락사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일신라~조선시대 또는 고려~조선시대의 유적들이다. 앞선 1~2기의 유적들과 유사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적성격상으로는 역시 사지가 9개소로 가장 많고, 공공유적이 4개소, 관방유적이 3개소, 생활유적 1개소, 미상이 7개소였다. 한편, 제천 장락사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막새들은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것들 - 연잎이 능이 있고 그 양옆이 오목하게 들어간 6엽 수막새(일명 내곡능선반전형)와 무문 암막새 - 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원지역에서 나타난 초기 기와문화의 연구를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원주 법천사지 발굴조사는 이제까지 이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가장 많고 다양한 기와들이 출토되어 특히 고려시대 기와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귀면문	인화문
영동 영국사	 (11)		 (4)	 (1)	
옥천 삼양리유적	 (1)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귀면문	인화문
음성 양덕리유적	 (4)				
제천 덕주사 극락전지	 (2)				
제천 정락사지	 (21)	 (1)	 (1)		 (1)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유적	 (2)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	 (1)				
청원 양성산성 원지	 (1)				
청원 창리사지	 (8)		 (4)		
청주 북대동유적	 (7)				
청주 부모산성	 (22)				
청주 분평동유적	 (3)	 (5)	 (2)		
청주 산남동유적	 (1)				
청주 서문동 성안유적	 (5)				

유적명	수막새 기본형(수량)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귀면문	인화문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유적	 (1)				
충주 김생사지	 (10)		 (3)		
충주 송선사지	 (19)				
충주 청령현 건물지	 (2)				
충주 추평리사지	 (2)				
원주 법천사지	 (47)	 (3)	 (9)		
영월 흥녕선원지	 (6)		 (1)		

표 8) 3기 해당 유적 출토 수막새 대표 문양(기본형)

수막새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표 8, 9) 대부분 연화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연화문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연잎의 폭이나 형태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롭게 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 복합형의 경우에도 연화문을 중심으로 한 계열이 가장 많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유물은 귀목문(또는 일목문, 일휘문) 수막새인데, 반구형으로 돌출된 자방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띠를 두르고 있거나 하는 등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범자(梵字) 및 명문이 나타나거나 이를 혼합한 문양 등, 조사를 거듭할수록 1, 2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문양이 변형되거나 조합된 수막새들이 나타난다.

유적명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 · 당초문	연화 · 운문	연화 · 도형문	범자 · 당초	범자 · 운문	범자명문	귀목 · 당초문	귀목 · 연화문
영동 영국사	 (2)	 (1)		 (2)	 (3)	 (1)		

유적명	수막새 복합형(수량)							
	연화 · 당초문	연화 · 운문	연화 · 도형문	범자 · 당초	범자 · 운문	범자명문	귀목 · 당초문	귀목 · 연화문
청원 양성산성 원지			 (1)					
청원 오창유적							 (1)	
청원 창리사지			 (1)					
청주 운천동유적	 (2)							
청주읍성 내 남궁타워부지 유적			 (1)					
청주 흥덕사지	 (3)							
충주 추평리사지	 (1)							
충주 청룡사지	 (5)							
여주 원향사지								 (1)
원주 법천사지	 (1)				 (1)			

표 9) 3기 해당 유적 출토 수막새 대표 문양(복합형)

수막새가 연화문을 기초로 제작되었다면, 암막새는 당초문을 기초로 제작되어 꽃+잎이라는 자연스런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암막새에도 연화문이 등장하거나, 당초문과 연화문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나는 등의 양상이 확인된다. 귀목문 또한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암막새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문양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반구형의 돌출부가 2개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만(卍)자와 같은 명문과 혼합되기도 한다(표 10, 11).

유적명	암막새 기본형 수량							
	당초문	연화문	초화문	귀목문	무문	귀면문	명문	불가
영동 영국사	 (3)		 (2)	 (1)				
옥천 삼양리유적	 (2)							
제천 덕주사 극락전지							 (1)	
제천 왕암유적		 (3)						
제천 장락사지					 (3)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유적				 (1)				
청원 양촌리유적								 (1)
청원 창리사지	 (1)			 (5)				
청주 문화동 50-2번지 유적	 (1)							
청주 분평동유적	 (4)	 (4)						
청주 서문동 성안유적	 (1)			 (1)				
충주 김생사지	 (1)	 (3)		 (2)				

유적명	암막새 기본형 수량							
	당초문	연화문	초화문	귀목문	무문	귀면문	명문	불가
충주 송선사지	 (4)							
충주 청령현 건물지	 (1)							
원주 법천사지	 (31)	 (2)		 (9)		 (1)		
영월 흥녕선원지	 (4)							

표 10) 3기 해당 유적 출토 암막새 대표 문양(기본형)

이렇게 고려~조선시대로 편년되는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기와들은 암막새의 경우에도 복합형과 변형이 많아져서 문양분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파격이 발생하는 시대적 환경이나 요인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제작되는지 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명	암막새 복합형(수량)												
	당초·초화문	당초·귀면문	연화·당초문	당초·모란문	초화·명문	연화·명문	귀목·명문	귀목·당초문	귀목·기호문	범자·운문	범자·당초문	범자·명문	명문·범자·연화문
영동 영국사	 (1)	 (3)		 (3)			 (4)			 (2)			 (3)
제천 장락사지	 (4)												
청원 양촌리유적	 (1)												
청원 창리사지	 (11)												
청주 분평동유적	 (1)												

유적명	암막새 복합형(수량)												
	당초·초화문	당초·귀면문	연화·당초문	당초·모란문	초화·명문	연화·명문	귀목·명문	귀목·당초문	귀목·기호문	범자·운문	범자·당초문	범자·명문	명문·범자·연화문
충주 김생사지	 (3)	 (3)											
충주 송선사지	 (18)						 (1)	 (2)				 (1)	
원주 법천사지			 (1)	 (8)		 (1)	 (1)					 (1)	
영월 흥녕선원지	 (1)												

표 11) 3기 해당 유적 출토 암막새 대표 문양(복합형)

Ⅲ. 맺음말

중원지역 막새와 출토 유적에 대한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조사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고, 그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어 중원문화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료들이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주 탑평리 유적과 제천 장락사지 유적이 조사되고, 그에 따른 이른바 ‘중원 양식’ 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지역특색을 갖는 기와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중원지역 최초로 등장한 와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출토된 다수의 고려 ~ 조선시대 기와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연구되지 못해 보다 상세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국~통일신라 유물에서 볼 수 없는 다종다양한 변화에 대한 양상과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심화연구가 진행된다면,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과 역사에 대한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원지역의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¹⁾

정 현 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I. 서론

II. 용어 및 연구사 정리

III. 조사대상 유적의 출토기와

IV. 결론 - 앞으로의 과제

I. 서론

‘기와 瓦’ 중에는 평기와(암키와 · 수키와)와 막새(암막새 · 수막새)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와 들은 지붕을 꾸며주고, 비 ·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기와들을 통틀어 특 수기와, 도구기와 등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평기와와 막새만큼 한 건축물 내에서 비중이 높지 않고, 시기 별 · 건물 특성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 편(片)²⁾으로 확 인되어 그 종류와 역할을 추측하기 쉽지 않으며, 지붕 위에서의 위치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기와 의 명칭(용어)도 보고서 및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부르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와의 기능별 용어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정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기와 중 평기와와 막새를 제외한 개체들을 보 고서의 명칭대로 집성하고,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중원의 와당』 도록에서 일부만 조사된 만큼 그 공백을 채우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 이 발표 논고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중원의 와당』.”에 수록된 논고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지붕은 건물의 붕괴 시 가장 파손의 우려도가 높은 위치이다. 이것은 최근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와는 건물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하지만, 건물의 효용가치가 사라지거나, 붕괴 및 붕괴 위험시에는 가장 먼저 파손되는 건축 부재 중 하나이다.

II. 용어 및 연구사 정리

1. 연구동향

본격적인 기와의 용어 정리에 앞서, 어디까지 기와로 보면 좋을지에 대한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기와”는 “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따위를 굳혀서 만든 건축자재.”로 명명한다. 즉 기와는 “지붕에 올라가는 건축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와의 범위는 그 의미보다 매우 좁거나 매우 넓게 사용된다.

전자의 경우는 연구범위의 주 대상과 관련이 있다. 주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평기와와 막새이다. 따라서 논문 및 학술 세미나 등에서 ‘기와’를 주제로 다룰 때, 평기와와 막새를 주로 다루는 것이 현 실정이다.

후자의 경우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보고서 내에서는 전(塼)을 비롯한 토제품³⁾까지 기와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기와가 지닌 종류와 기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보니, 기와로 ‘취급’되는 토제품의 증가를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지붕 위에서 각각의 기와들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기와들이 많다. 이에 용도미상의 토제품이 장식기와의 일부로 취급받아 ‘기와류’로 분류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와의 범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본고에서는 『중원의 와당』의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평기와와 막새를 제외한 여타 기와들을 대상으로 삼아, 명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화문(蓮花文)’⁴⁾·‘귀면(鬼面)’ 등의 문양 자체에 대해서는 기와 관련 논문 뿐 아니라 전통 의상 및 전통 문양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와를 기능별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성구의 『옛기와』(1992)는 가장 많은 종류의 기와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종류(명칭)의 기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종류의 기와들을 한데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높다. 김성구는 이 외에도 다양한 논문 및 책 등을 통해 평기와 및 막새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와를 정리하였다.

또한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2012년에 출간한 도록인 『백제기와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발자취』 내의 논고 가운데 연목와에 관한 논문이 2편 실려 있다. 연목와의 형식과 제작기법을 다룬 논문⁵⁾과 동아시아의 연목와에 대한 논문⁶⁾이다. 이렇게 단일 기종에 대해 한 도록에서 2편이 실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7년에 황룡사 복원에 관한 결과보고서 4권을 발간하였다. 그 가운데 황룡사연

3) 포목이 확인된 토제품(생김새가 일정하지 않은)을 비롯하여, 포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생김새가 특이하며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것, 토기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통 용도미상의 토제품, 때로는 기와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잡상과 같이 지붕 위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4) 연화문의 한자는, ‘화’를 華로 보는 경우, 花로 보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원의 와당』과 마찬가지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에 발간한 『황룡사지 신라 고식 수막새 분류 일람』의 체계를 따르도록 하겠다.

5) 편소리, 2012, 『백제 사비기 椽木瓦의 형식과 제작기법-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기와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발자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6) 장현경, 2012, 『동아시아의 연목와-6~7세기를 중심으로-』, 『백제기와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발자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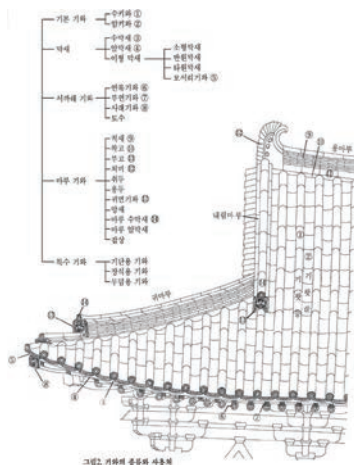
구충서15에 속하는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에서는 황룡사의 복원에 사용될 와전과 철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건축학적 측면을 결합하여 기와와 전, 철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평기와·막새를 제외한 기와들에 대해서도⁷⁾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와들이 어떻게 지붕 위에 시공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 논문으로는 2012년에 양종현⁸⁾의 귀면문마루끝장식기와에 대한 논문이 있다. 또한 근래 들어 여러 연구자들이 평기와와 막새 외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연구자마다 각각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가장 많은 용어에 대해 정리한 김성구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재집성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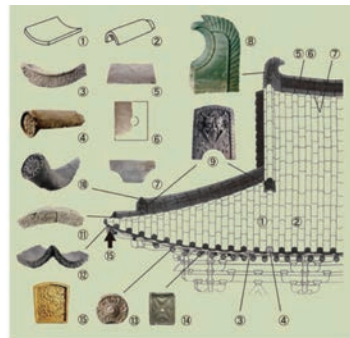
2. 기와 분류 및 명칭

김성구의 분류안은 가장 많은 기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이자 기와의 위치별·형태별 차이를 모두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와 명칭 분류안



김성구, 1992, 『옛기와』 pp11.



일러두기

- 01 기와명칭은 기본적으로 도록 신라와전(국립경주박물관, 2000)의 표기에 의거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삽도 표 참조)
02 유물의 편년과 계통분석에 대해서는 각 장마다 연구자 견해에 따라서 서술되었음을 밝혀둔다.
03 유물의 크기는 센티미터(cm)단위로 통일하였다.

양칭	
① 암기와	기본기와
② 수키와	
③ 암막새	
④ 수막새	막새
⑤ 직새	
⑥ 마루암기와	
⑦ 착고	마루촉조기와
⑧ 치미	
⑨ 귀면와	
⑩ 마루수막새	마루장식기와
⑪ 마루암막새	
⑫ 모서리암막새	
⑬ 연목와	처마장식기와
⑭ 부연와	
⑮ 사례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 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또한 <표 2>⁹⁾는 부산박물관에서 2015년에 출판한 『부산기와』 도록의 논고 가운데, 김성구(2015),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에 기재된 것을 본 논고의 필요에 맞게 일부 편집한 것이다. 색이 칠해진 부분이 본고의 대상이 되는 기와의 종류로, 각각의 기와에 대한 상세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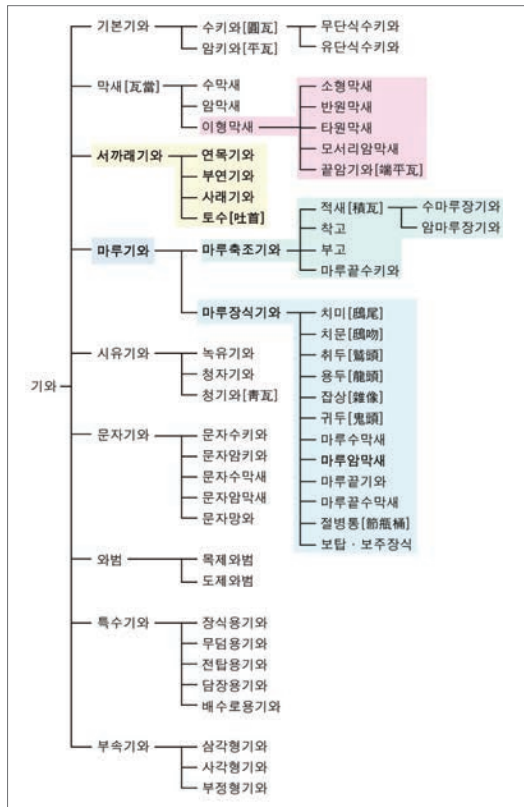
7) 유환성, 2017, 「특수기와의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선희, 2017, 「치미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8) 양종현, 2012, 「경주지역 신라시대 귀면문마루끝장식기와 고찰」, 『선사와 고대』37권0호, 한국고대학회, pp.191-221.

9) 김성구, 2015,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 『부산기와』, pp233.

〈표 2〉 김성구(2015), 한국기와의 분류



Ⅲ. 조사대상 유적의 출토기와

우선 『중원의 와당』 도록의 대상 유적 가운데,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가 확인된 유적, 기와의 출토 현황, 대략적인 시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발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마루기와 및 서까래기와 정리

연번	지역	유적명	발행 연도	발굴기관 (보고서명)	마루기와 및 서까래기와 현황							시대
					연목와	귀면와	박공 (마루) 막새	치미	이형 기와	곱새 기와	기타	
1	영동	계산리	200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사래기와2	나말여초 (고려~조선)
2	영동	영국사	2008	충청대학 박물관		3	1	25	14		명문망새2	고려~조선초
3	음성	양덕리유적	201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	2		19				통신 전후 (삼국~조선)
4	제천	장락사지	2008	충청대학 박물관	1	1	2	9	5		이형문수막새1	삼국~고려 (통신~조선)
5	청주	북대동유적	200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				통신
6	청주	분평동유적	2006	중앙문화재연구원							초엽문 암막새1	고려
7	청주	상당산성	2013	중원문화재연구원		3					마루암막새1	통신~조선
8	청주	운천동사지	1985	청주대학교 박물관			1			1		통신

9	청주	흥덕사지	1986	청주대학교 박물관				8				고려
10	충주	김생사지	1999	충청대학 박물관					2			삼국~고려
11			2006	충청대학 박물관		4		5				
12			2006	중앙문화재연구원				1	1			
13	충주	미륵리사지	2차	청주대학교 박물관				3				고려
14			3차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장식와6		
15			5차	청주대학교 박물관				3			장식와2	
16	충주	송선사지	2006	충청대학 박물관		8	2	21	12	3	서까래2 착고3	고려
17	충주	탑평리사지	1993	한국교원대학교				6	7		망새기와4	삼국~고려
18			1994	한국교원대학교							망새기와2	
19	여주	고달사지	2002	기전문화재연구원			5					고려
20			2007	경기문화재연구원		2	2		24		특수와22	
21	여주	원항사	2015	경기문화재연구원	2	12		10			암막새1 부연와2 토수2 용두2 특수기와2 이형막새1	통신~고려
22	영월	흥령선원	2008	강원문화재연구소			1					나말여초
23	원주	거둔사지	2000	한림대학교 박물관				3			특수와4 집상2	고려
24	원주	법천사지	2009	강원문화재연구소		13		13			기타장식와5 특수목적와8 착고기와10 적새기와7 마루수막새1 마루암막새2 모서리암막새1 특수기와1	통신 말~고려
			201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사래기와4	고려
합 계					4	48	14	127	65	4	133	총 395

표 안의 기와 명칭은 모두 보고서에서 명명한 명칭대로 정리한 것으로, 총 395점이 보고되었다. 보고자에 따라 같은 형태의 기와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와를 실견하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실견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명칭을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고서의 명칭을 기반으로 각각의 기와를 정리하였다. 그렇다보니 사진 상으로 보아도, 기와와 그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바로 잡는 것은 불가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모든 기와를 “보고서에서 명명한 명칭을 기반으로” 작업하였다.

Ⅱ 장에서는 각 기와의 명칭 분류는 “김성구(2015),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 『부산기와』, 부산박물관.”을 기준으로 삼되, 필자의 주관을 삽입하여 재분류하였다. 또한 각 기와의 사용처 · 시대 ·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김성구(1992), 『옛기와』, 대원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¹⁰⁾. 연구자 마다 각각의 명칭에 따른 설명이 상이하다. 따라서 가장 다양한 기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용어를 설명함을 미리 밝혀둔다.

10)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김성구, 2015,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 『부산 기와』, pp233.

1. 서까래 기와

1) 연목와 · 부연와

연목와 · 부연와¹¹⁾는 보통 연화문을 시문한다. 서까래기와의 한문으로 표기할 때 “椽木瓦(연목와)”로 표기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연목와 뿐 아니라 부연와도 서까래기와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기와의 형태가 원형의 경우 ‘연목와’, 방형의 경우 ‘부연와’로 명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서까래’는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보통은 연목와와 동일시하여 사용된다.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서까래기와는 충주 송선사지에 서 2점, 연목와는 음성 양덕리와 원주 원향사에서 4점, 부연와는 원주 원향사에서 2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1〉 서까래

〈그림 2〉 연목와

〈그림 3〉 부연와

서까래기와는 지붕 아래쪽 구조인 서까래의 부식을 방지하고 이를 치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와이다. 서까래기와는 둥근 연목(椽木)에 사용되는 것과 네모난 부연(附椽)과 사래에 사용되는 것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기와의 형태도 원형 · 방형 · 원두방형 등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띤다.

연목와는 둥글고 긴 연목 끝에 사용되는 기와로 수키와가 부착되지 않은 수막새와 거의 유사한 원형의 기와이다. 그러나 연목와는 주연부가 생략되어 있으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에 못구멍이 뚫려 있다. 못구멍은 원형과 방형으로 뚫려있는데, 방형의 못구멍이 많은 편이다.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백제시대에 특히 성행했으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연목와에 새겨진 문양은 연꽃 · 보상화 · 귀목 등으로 당시에 함께 제작된 수막새의 문양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부연와는 연목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로 부연 끝에 사용되는 방형의 기와이다. 기와집의 겹처마를 형성하는 연목과 부연은 각각 원형 · 방형으로 그 막음하는 기와의 모양 또한 서로 차이가 있다. 부연와는 삼국시대 말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중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¹²⁾

2) 사래기와 및 토수

사래기와의 대해서는 귀면와를 다룰 때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사래기와의 귀면와는 모두 귀면(鬼面)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혼용하여 불린다. 하지만 와즙(瓦葺) 당시의 위치와 용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사래기와의로 불리는 귀면문 기와가 정작 사래에 쓰였을 것이라는 근거 또한 없다. 이에 흔히 사래기와의로 알려진 기와가 실질적으로 사래에 쓰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제기¹³⁾가 있다. 마루 끝에 쓰인 장식기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

11) 부연와의 경우, 연화문 뿐 아니라 귀면문이 시문된 경우도 확인된다.

12)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 이 표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상자 속 용어 설명은 위 자료(김성구, 1992)를 기반으로 각 기와에 대한 사용처 · 시대 ·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3) 최영희, 2017, 『韓國 · 中國 · 日本의 고대 기와와 지붕의 복원 - 고고자료 및 복원사례 검토-』, 『황룡사 중문 외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하나, 사래기와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사래기와로 명명된 기와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3개 유적에서 총 6점이 보고되었다.

조선시대 때 사래에 쓰인 기와로 토수를 들 수 있다. 토수는 처마 모서리에 부착되는 것으로 그 예시로는 조선시대 경복궁 함원전의 토수를 들 수 있다. 토수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여주 원향사 1개 유적에서 총 2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4〉 사래기와



〈그림 5〉 토수



〈그림 6〉 토수 실 사용 예시 : 경복궁 함원전 토수¹⁴⁾

사래기와는 추녀 끝에 잇대어 댄 네모난 사래 끝에 사용하는 기와이다. 사래는 다른 서까래보다 비교적 큰 편으로, 원두방형의 큰 규모로 제작된다. 삼국시대 후기에 출현하여 고려시대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연꽃무늬를 주로 새겨졌으나, 통일신라 직후부터는 귀면무늬로 대체되어 크게 유행하게 된다. 귀면이 새겨진 사래기와는 마루 끝에 사용되는 귀면기와와 거의 같은 모양인 원두방형이다. 하단부에 반원형의 홈이 파여 있으며 마루용, 홈이 파여 있지 않은 편편한 대상이면 사래용으로 사용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려 후기부터는 원두 방형의 사래기와가 제작되지 않고, 사래에 암막새 1매를 세워 못으로 박거나 괴수 모양의 토수를 별도로 만들어 사래 끝에 끼워 부식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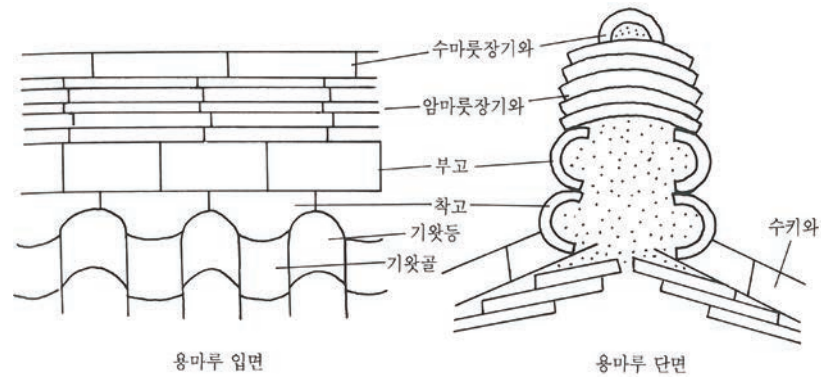
토수는 처마 모서리에 돌출된 서까래로, 추녀 끝이나 사래 끝에 끼워져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의 기와이다. 고려 후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쪽은 이무기나 잉어와 같은 형상으로 조각되었고, 뒤쪽은 서까래 끝에 덧씌워질 수 있도록 큰 구멍이 나있다. 따라서 토수는 서까래 기와의 일종이지만, 서까래 끝에 못을 박아 부착되지 않고 덧씌워지기 때문에 다른 서까래 기와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계 궁전이나 관아 건물에 사용되곤 한다.

2. 마루기와

1) 마루촉조기와

마루촉조기와는 지붕의 모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붕 상면에 용마루를 쌓기 위해 쓰인 기와로, 적새 · 착고 · 부고 등으로 나뉜다. 대계 암 · 수키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절단 혹은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4) 사진출처 -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Origin.do?did=61161>) : 경복궁 함원전 토수(61161)



〈그림 7〉 마루축조기와 사용 예시 (김성구, 1992)

① 적새(마룻장기와)

적새는 마룻장기와라고도 불린다.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원주 법천사지 1개 유적에서 총 7점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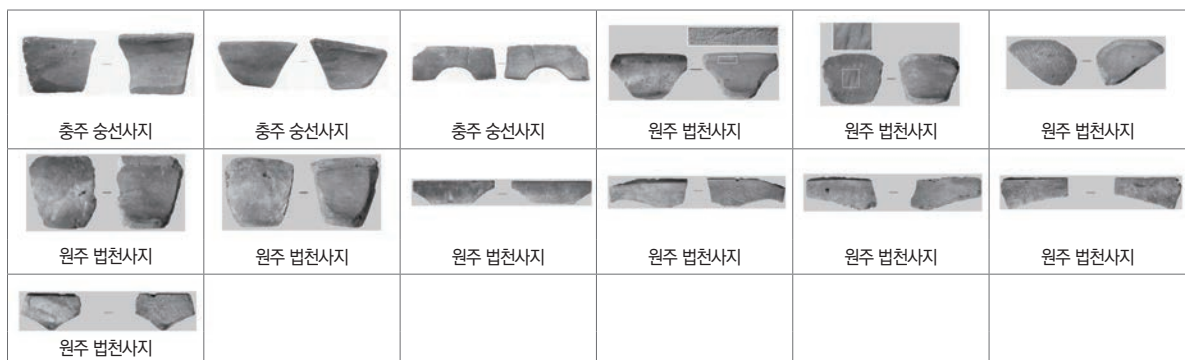


〈그림 8〉 적새(마룻장기와)

적새는 지붕의 각 마루에 쌓아올린 기와로 대개 암키와를 세로로 절반하여 사용하거나 원형을 그대로 이용한다. 적새는 암마룻장 또는 암마룻장기와라고도 부른다. 암키와의 배면을 밑으로 하여 몇 겹으로 층을 이루면서 쌓아올리는데 그 사이에는 얇게 진흙을 깔고 있다. 용마루 끝에는 그 만전을 돋보이기 위해 적새를 몇 장 더 얹기도 한다. 또한 때로는 마루의 상단에 별도로 완형의 수키와를 얹어 마루의 미관을 돋보이게 한다. 이 수키와를 수마룻장 또는 수마룻장기와라고 부른다.

② 착고

착고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충주 송선사지, 원주 법천사지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착고는 총 13점이다.



〈그림 9〉 착고

착고는 적새나 부고 밑에 기와골을 막음하는 기와로 수키와의 양쪽을 알맞게 절단하여 사용하고 있다. 암·수키와를 지붕에 이르면 용마루를 비롯하여 각 마루에 연결되는 부분인 기와골 상단에는 일정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막는 기와를 착고 또는 착고 막이라고 한다. 착고는 대개 그 양끝이 기와등을 이루는 수키와와 맞물릴 수 있도록 역으로 세워 놓는데, 수키와가 소성되기 이전인 날기와일 때 양끝과 측면 일부를 잘라 내어 성형하였다. 고려시대부터는 완형의 수키와를 적당히 잘라내어 지붕에 기와를 이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2) 마루장식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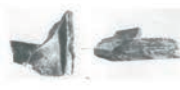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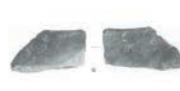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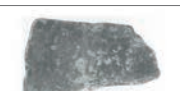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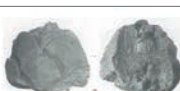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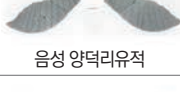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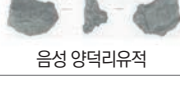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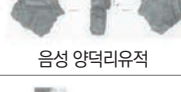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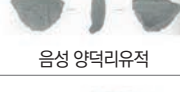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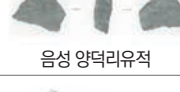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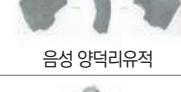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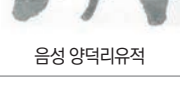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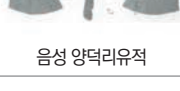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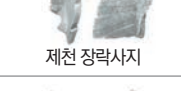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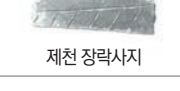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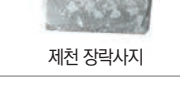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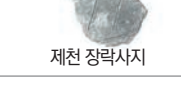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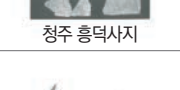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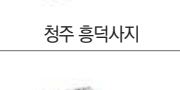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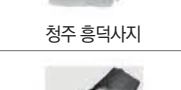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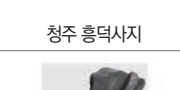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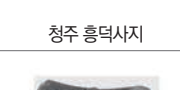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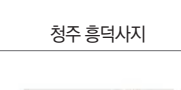
마루장식기와는 마루 끝에 삽입되거나, 그 위에 얹혀져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크기 치미·취두·용두·귀면와·망새·잡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각 마루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나 명칭이 각기 다르다¹⁵⁾.

이러한 마루장식기와는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장식하는 데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미·용두·취두·귀면와 등은 내림마루 끝에 장식됨으로, 마루끝장식기와라고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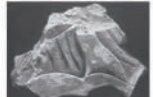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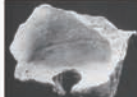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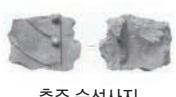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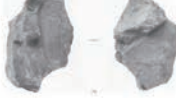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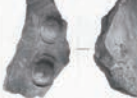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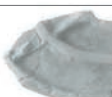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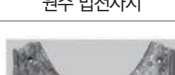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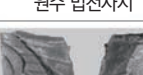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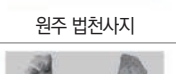
① 치미·용두

크게 치미로 분류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 및 용도로 분류되는 것으로, 치미·취두·용두 등으로 나뉜다.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치미로 구분된 것은 총 127점이 보고되었으며, 용두는 여주 원향사 1개 유적에서 2점이 보고되었다. 취두로 보고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충북지역과 경기·강원 일부지역에서 확인된 치미는 원형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었다. 용두 또한 편으로만 확인되었다. ‘치미’로 명명된 유물 가운데에는, 치미가 아닌 용두나 취두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기와 편으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15)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음성 양덕리유적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제천 장락사지	청주 복대동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그림 10) 치미(1)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충주 탑평리사지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그림 11〉 치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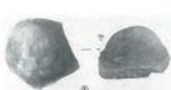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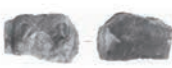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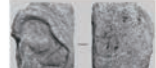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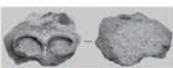
〈그림 12〉 용두

치미는 용마루 양쪽 끝에 사용되는 큰 조형물로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 치미의 밑 부분은 용마루 위에 얹을 수 있도록 대개 반원형의 홈이 파여있고, 측면에는 몸통과 깃부분을 구획하기 위해 굵은 돌대를 두고, 그 안쪽에는 가는 선이나 변형된 꽃무늬를 배치하고 있으며 바깥쪽에는 날개깃이 층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치미의 앞면에는 굴곡된 능골이 반전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문양을 생략하거나 귀면무늬를 새긴다. 통일신라의 치미는 그 양 측면에 변형된 4잎 꽃무늬를 배치하고 층단을 이룬 날개깃만을 조각한 단순한 형식이 유행했는데, 고려 중기 이후에 용두, 취두 등의 새로운 장식 기와가 나타나 이를 대체하면서 치미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와집에는 치미 대신 취두나 망새가 장식된다.

용두는 내림마루나 귀마루에 얹혀지는 조형물로 용의 머리를 무섭게 형상화한 장식기와이다. 대개 내림마루 위의 하단부와 귀마루 위의 상단부에 잡상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용두는 고려 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하여,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전이나 관아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② 귀면문 기와 : 귀면와

귀면문(鬼面文)으로 이루어진 기와는 대개 사래기와와 귀면와로 불리고 있다. 사래기와와 귀면와는 우선 사용처로 보았을 때 사래 끝에 쓰였느냐, 내림마루에 쓰였느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형태로 보았을 때에는 말각방형과 하단 C자형의 형태로 구분한다. 하지만 문양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두 기와는 모두 ‘귀면(鬼面)’인 경우가 많아, 문양에 의해 귀면와로 혼용하여 불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연와(附椽瓦) 등에서 ‘귀면문(鬼面文)’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귀면와 · 사래기와 · 부연와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된다. 이에 사용처 등 명확한 명칭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보고서 상에서 명명한 명칭을 기반으로 확인된 사실(특징)만 나열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유물 가운데 귀면와로 분류된 것은 총 48점으로 보고되었다.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음성 양덕리	음성 양덕리	제천 장락사지
					
청주 상당산성	청주 상당산성	청주 상당산성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여주 원향사	원주 법천사지(사래 귀면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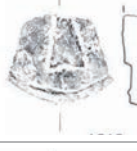
〈그림 13〉 귀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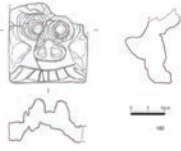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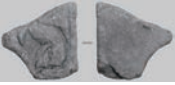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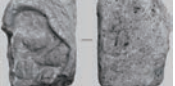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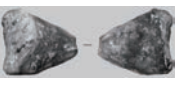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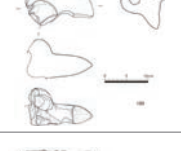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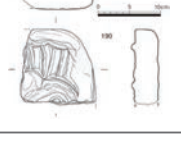
귀면와는 과수와 같은 귀신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각한 원두방형의 기와이다. 용도에 따라 팔작지붕의 마루 끝에 부착되는 마루 용과 귀마루 끝에 잇대어 댄 방형의 사래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마루용은 그 하단의 중심부가 반원형의 홈으로 절단되어 기왓등 위에 얹히게 되어 있으며, 사래용은 하단이 편편하게 잘려있다. 귀면와는 부착을 위해 귀면의 미간 사이에 못을 박아 고정시킬 수 있는 것(못구멍 있음)과 뒷면에 C자형의 고리가 달려 철사줄로 동여맬 수 있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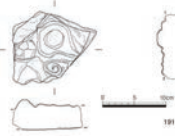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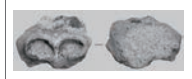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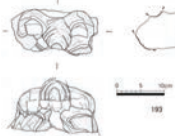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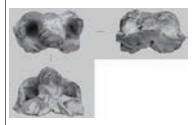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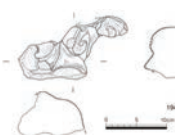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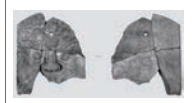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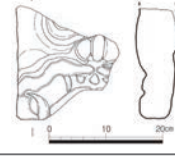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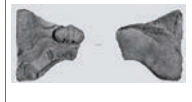
귀면와를 비롯한 귀면문(鬼面文) 기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귀면문 기와는 보고서 상의 명칭으로 주로 ‘귀면와’, ‘사래기와’로 보고되었다. 이에 직접 실견하여, 조사한 유물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 표는 실견한 유물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부여한 명칭에 맞게 모은 표이다. 원주 법천사지를 제외하고는 조사 중 새로이 찍은 사진으로 대체하였고, 소장기관의 경우는 조사 당시 유물을 실견한 장소로서 현재 소장기관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가능했던 귀면문 기와는 총 27점이다. 이 가운데 원주 법천사지 유물이 17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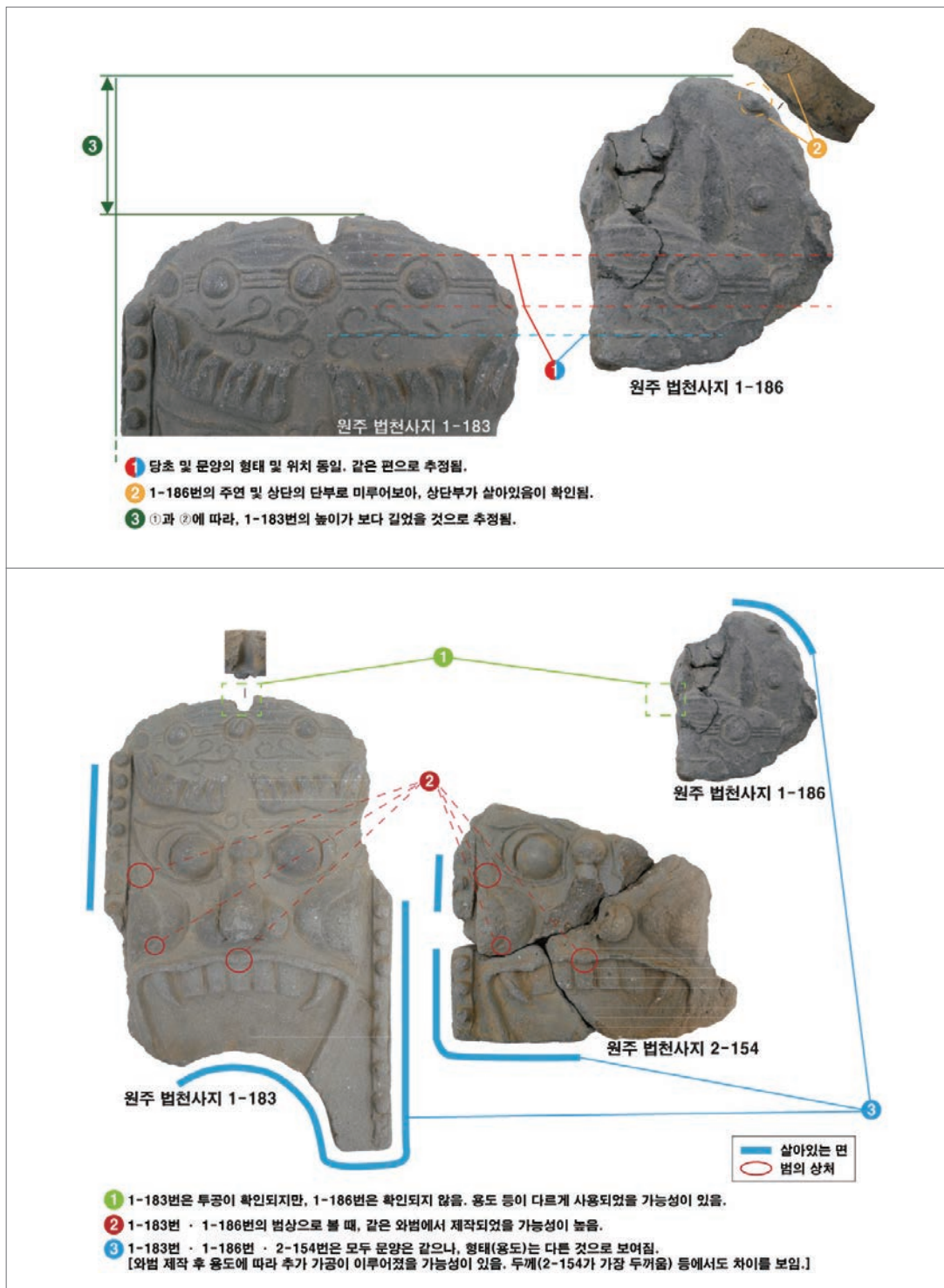
〈표 4〉 귀면문 기와 일람

	유적명	보고서명	소장기관	유물명 (보고서상)	도면	사진
1	영동 영국사	忠淸大學 博物館, 2008, 『永同 寧國寺』, 學術研究叢書 第24冊.	충청대학 박물관	귀면와		
2	음성 양덕리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진양리조트G.C. 개발부지내 음성 양덕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5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귀면와		
3	음성 양덕리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진양리조트G.C. 개발부지내 음성 양덕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5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귀면와		
4	제천 장락사지	충청대학 박물관, 2008, 『堤川 長樂寺址 제1~3차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연구총서 제27책.	충청대학 박물관	귀면와		
5	청주 상당산성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叢書 第158冊.	중원문화재연구원	귀면와		
6	청주 상당산성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叢書 第158冊.	중원문화재연구원	귀면와		
7	청주 상당산성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叢書 第158冊.	중원문화재연구원	귀면와		
8	충주 탑평리사지	韓國敎員大學敎 博物館, 1993, 『中原 塔坪里寺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충주박물관	귀면와		

	유적명	보고서명	소장기관	유물명 (보고서상)	도면	사진
9	충주 탑평리사지	韓國敎員大學敎 博物館, 1993, 『中原 塔坪里寺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충주박물관	귀면와		
10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사래귀면와		
11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2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3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4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5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6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7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18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귀면와		

	유적명	보고서명	소장기관	유물명 (보고서상)	도면	사진
19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귀면와		
20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귀면와		
21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귀면와		
22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귀면와		
23	원주 법천사지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Ⅱ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3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래기와		
24	원주 법천사지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Ⅱ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3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래기와		
25	원주 법천사지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Ⅱ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3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래기와		
26	원주 법천사지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Ⅱ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3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래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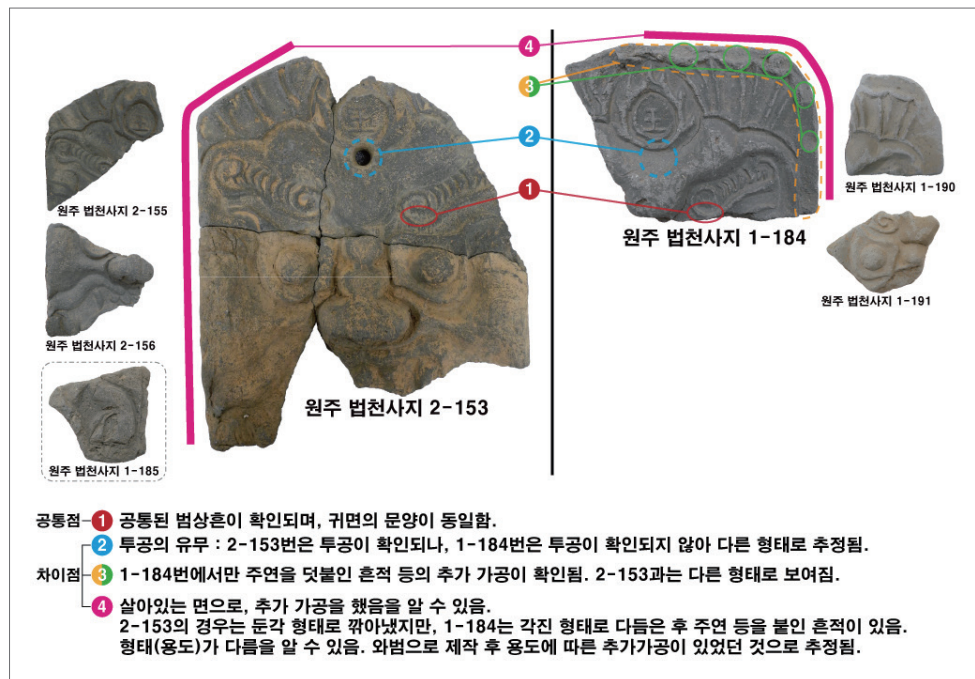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귀면문 기와가 보고되었는데, 이에 여러 형태의 귀면문 기와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관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주 법천사지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주 법천사지 출토 귀면문 기와 중에는 같은 와범(문양)을 사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형태로(말각방형과 하단 C자형) 제작된 기와가 확인되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다른 형태 귀면문 기와의 동일 와법 추정 근거(1)

〈그림 14〉와 같이, 동일와법에서 찍어내었으나, 각기 다른 추가 성형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제작된 귀면문 기와를 찾아볼 수 있다. 완형 출토품은 아니지만, 원주 범천사지 1차 보고서 상의 183번 유물[〈표 4〉의 11번 이하 생략]과 186번 유물[〈표 4〉의 14번 이하 생략], 2차 보고서의 154번 유물[〈표 4〉의 24번 이하 생략]은 〈그림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와범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추가 가공을 거쳐 용도 혹은 소기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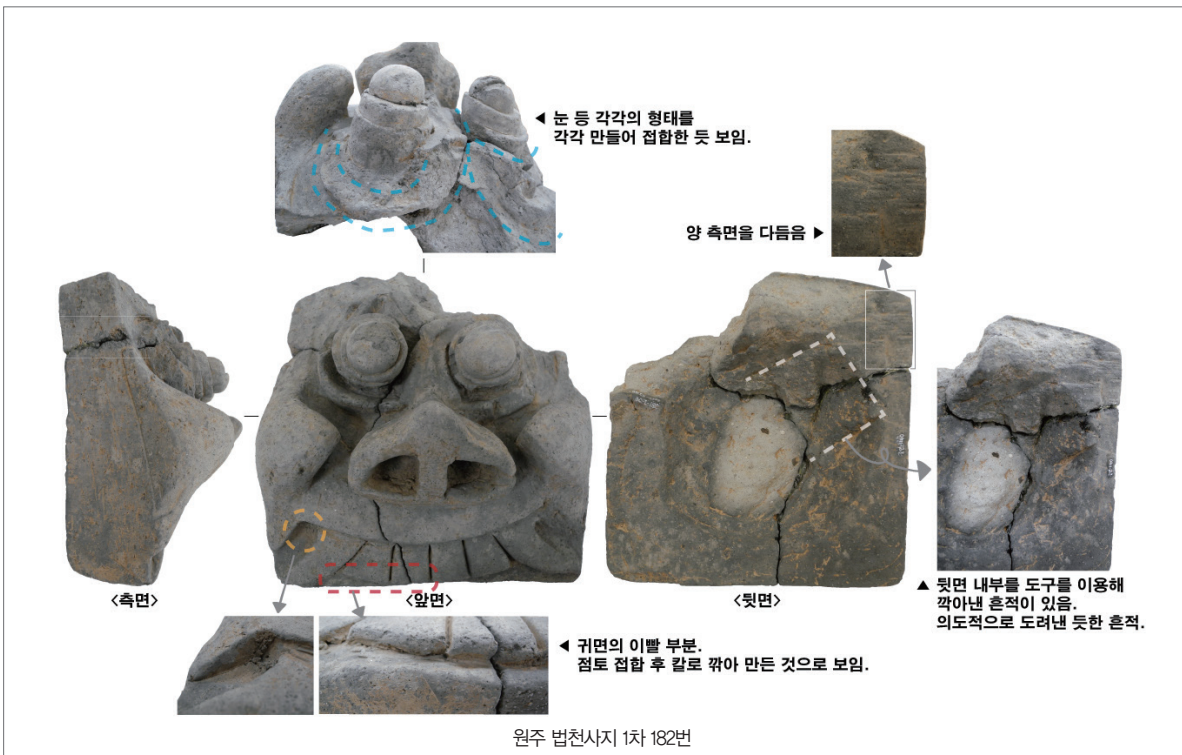
〈그림 15〉 다른 형태 귀면문 기와의 동일 와범 추정 근거(1)

또한 유사한 예시로 〈그림 15〉를 들 수 있다. 원주 법천사지 1차 보고서의 184번 유물[〈표 4〉의 12번 이하 생략] · 190번 유물[〈표 4〉의 18번 이하 생략] · 191번 유물[〈표 4〉의 19번 이하 생략], 2차 보고서의 153번 유물[〈표 4〉의 23번 이하 생략] · 155번 유물[〈표 4〉의 25번 이하 생략] · 156번 유물[〈표 4〉의 26번 이하 생략]에서 크게 2가지 형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기와들은 모두 한 와범, 혹은 같은 문양을 가진 와범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림 14〉와 마찬가지로, 와범에 찍어 문양을 만들어 낸 이후, 가공 단계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추가 가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의 좌측에 모인 기와들은 살아있는 면 등을 보았을 때, 위쪽을 둔각(마름모, 육각형의 형태)으로 깎아낸 후 하단을 C자형으로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귀면문의 미간 부분에 투공을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와 달리 〈그림 15〉의 우측의 기와들은 같은 와범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와범 성형 이후에 말각 방형의 형태로 추가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부를 방형으로 제작 한 후, 끝 부분에는 주연부를 마련하여 연주문을 부착하는 등 장식적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확인된 기와 편들의 하단부가 탈락되어 하단부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하단부 역시 방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4〉와 〈그림 15〉의 기와들의 보고서상 명칭은, 1차 보고서는 일괄로 ‘귀면와’ · 2차 보고서는 일괄로 ‘사래기 와’로 보고되었다.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귀면문 기와의 명칭 상 문제를 다시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귀면문 기와는 문양적인 요소로서 ‘귀면(鬼面)’을 갖추었으며, 같은 와범을 사용했음에도 마감형태가 상이하다. 그러나 형태적인 부분과 기와의 사용처에 의해서 각각의 명칭이 각기 분류된 것이 아니라, ‘귀면문(鬼面文)’이기 때문에 사래기와와 귀면와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앞에서 말했듯 사래기와로 분류되는 귀면문 기와가 정말 사래에 끼워져 사용되었을 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아래 〈그림 16〉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16〉 귀면문 기와의 제작기법

〈그림 16〉은 원주 법천사지 1차 보고서의 182번 유물[표 4]의 10번 이하 생략이다. 이 기와는 보고서 상에서 ‘사래 귀면와’로 보고하였다. 원주 법천사지 보고서 내에서 같은 문양을 띄는 기와는 182번 유물 한 점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기와는 와범을 이용해 찍어낸 흔적보다는 코와 눈 등 각각의 부위를 손으로 만들어 붙이는 등,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당히 두꺼운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에 무게를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용도상 목적(오목한 곳에 끼워 넣는 등)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뒷면의 중앙부에 도구를 이용하여 도려낸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뒷면을 파냈기 때문에 ‘사래귀면와’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래에 고정시키기 위한 못 구멍 등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뒷면을 둥글게 파낸 것은, 어딘가에 끼워 넣는 용도로 활용했다기보다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뒷면을 도려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이 귀면문 기와는 여타 귀면문에 비해 상당히 입체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방법 상의 특징 때문인지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귀면문 기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아 방향 이외의 형태로도 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4~16〉에서 보았듯 ‘귀면문(鬼面文)’을 택한 기와의 경우는 크게 말각방형의 형태와 상단을 육각형으로 하

단을 C자형으로 제작한 형태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 기와들은 ‘귀면문’이라는 문양적 특징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래기와와 귀면와 등으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래기와와 귀면와를 분류한다면, 대체적으로 말각 방형을 ‘사래기와’¹⁶⁾로, 하단 C자형을 ‘귀면와’¹⁷⁾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사래기와로 분류되는 말각 방형의 귀면문 기와의 경우,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을 비롯해 사래에 부착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현재 사래기와로 분류된 기와들이 정작 사래에 위치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거로는 고려 말~조선시대에 등장한 토수기와를 들 수 있다. <그림 6>의 경복궁 함원전의 토수의 예시를 보면, 사래에 대한 장식 및 부식을 막기 위한 시설로서 토수를 ‘끼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귀면문의 사래기와에서는 사래에 끼우거나, 박는 등 시설할 수 있을 법한 설비 흔적이 부족하다. 이에 충북 및 강원경기 일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사래기와는 사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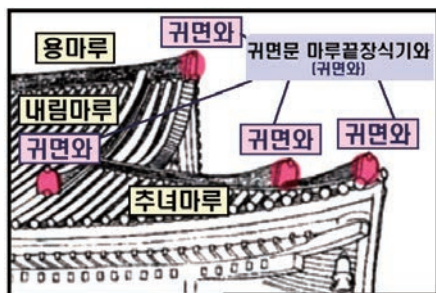


그림 3-108 나리시대 귀면와의 시공위치(岩戸, 2001)

<그림 17> 마루끝장식기와 시공위치 (최영희, 2018)

하단 C자형의 형태를 취한 귀면와의 경우는 <그림 17>의 예시¹⁸⁾를 보아 내림마루, 추녀마루, 용마루 등의 마루끝장식기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각방형의 귀면문 기와 역시 이와 유사한 쓰임새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하단 C자형과 말각 방형을 취한 귀면문 기와들을 총괄하여 ‘귀면문 마루끝장식기와’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주 법천사지의 귀면문 기와 가운데, “귀면와”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귀면와(마루끝장식기와)로서의 역할을 했을지 의심되는 편들(<표 4>의 16번, 17번, 22번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들도, 원주 법천사지 1차 보고서의 182번처럼 코나 눈 등을 만들어 붙였을 때, 위의 부착물이 떨어져 나갔을 확률도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는 데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③ 마루암막새 : 박공막새 · 암막새 · 마루암막새

박공막새 · 암막새 · 마루암막새는 모두 같은 형태의 기와를 의미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암막새를 뒤집어서 암막새를 부착시킨 형태로, 실제로 일반 암막새와 문양과 크기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기와들은 조사대상 유적들의 보고서에 따라 박공막새 · 암막새 · 마루암막새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동 영국사, 제천 장락사지, 청주 운천동유적, 충주 송선사지, 여주 고달사지, 영월 흥령선원에서는 ‘박공막새’로 총 15점, 청주 분평동유적, 원주 원향사에서는 ‘암막새’로 총 2점, 청주 상당산성, 원주 법천사지에서는 ‘마루암막새’로 총 3점을 보고하였다.

16) 사래기와 : 사래 끝에 위치하여 사래를 장식하기 위해서나, 부식을 막기 위해 부착하였다고 추정하는 기와의 한 종류.

17) 귀면와 : 내림마루, 추녀마루, 용마루 등을 막음하는 역할.

18) 최영희, 2017, 『韓國 · 中國 · 日本의 고대 기와와 지붕의 복원 - 고고자료 및 복원사례 검토-』, 『황룡사 중문 외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 <그림 17>은 해당 논문 도면의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보고서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형태의 막새와 평기와 이외에는 명확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마루암막새(박공막새, 뒤집어진 형태의 암막새)는 근래에 일반 암막새와의 차이를 비교적 인정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암막새에서 평기와의 접합부가 뒤집어진 것 말고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에 따라 각각의 명칭으로 정리한 후 하나로 합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림 18〉 박공막새



〈그림 19〉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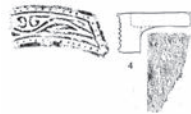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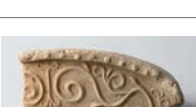


〈그림 20〉 마루암막새

마루암막새(박공막새)는 암막새가 암기와 선단에 거꾸로 접합되고 있는 기와로 일반형인 암막새와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맞배지붕의 마루 끝에 적새와 함께 얹어져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루암막새는 일반 암막새와 유사한 생김새로, 초기에는 많은 혼돈을 주었던 기와이다. 이에 마루암막새와 일반 암막새의 차이점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표 5〉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실견이 가능했던 12점의 마루암막새를 보고서 명칭대로 정리한 것이다. 소장위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유물의 사진은 원주 법천사지 기와를 제외하고 조사 당시 새롭게 찍은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표 5〉 마루암막새 일람

	유적명	보고서명	소장기관	유물명 (보고서상)	도면	사진
1	영동 영국사	忠淸大學 博物館, 2008, 『永同 寧國寺』, 學術研究叢書 第24冊.	충청대학 박물관	박공막새		
2	청주 분평동유적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淸州 山南3地區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淸州 粉坪洞遺蹟』, 發掘調査報告 第81冊.	국립청주박물관	마루암막새		
3	청주 상당산성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叢書 第158冊.	국립청주박물관	마루암막새		
4	청주 운천동사지	淸州大學校 博物館, 1985, 『淸州 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국립청주박물관	박공막새		
5	충주 송선사지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學術研究叢書 第20冊.	충청대학 박물관	마루암막새		
6	여주 고달사지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高達 寺址Ⅱ -3~5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77冊.	국립중앙박물관	마루암막새		
7	여주 고달사지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高達 寺址Ⅱ -3~5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77冊.	국립중앙박물관	마루암막새		
8	여주 원향사	京畿文化財研究院, 2015, 『驪州 元香寺(增補版)』, 學術調査報告 第166冊.	국립중앙박물관	마루암막새		
9	원주 거돈사지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居頓 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研究叢書 14.	한림대학교 박물관	특수와		
10	원주 거돈사지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居頓 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研究叢書 14.	원주시립박물관	특수와		
11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마루암막새		
12	원주 법천사지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Ⅰ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01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마루암막새		

마루암막새는 암막새를 뒤집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를 띤다. 보통 마루암막새에서 확인되는 문양과 동일 문양이 일반 암막새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반 암막새와 같은 부분에 범상흔이 발견되어, 한 와범으로 제작된 기와들을 <그림 21>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그림 21> 마루암막새와 암막새의 동일와범 사용 근거

		청주 윤천동사지				여주 원향사지	
		암막새	마루암막새			암막새	마루암막새
드림새 높이		5.3	잔존 5.7	드림새 높이		5.2	5.2
드림새 두께		2.5	2.1	드림새 두께		1.7	3.3
주연 너비	상	0.7	1.0	주연 너비	상	0.7	0.6
	하	0.6	?		하	0.7	0.6
주연 높이		0.4	2.0	주연 높이		0.1	0.3
암막새 두께		?	2.4	암막새 두께		?	2.2

〈표 6〉 청주 윤천동사지와 여주 원향사지 암막새 · 마루암막새의 규격비교

〈그림 21〉의 유물번호는 보고서 도판의 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범상흔의 흔적으로 보았을 때, 드림새를 제작할 때에는 마루암막새와 암막새 사이에 별도의 구분 없이 문양을 찍어냈을 것으로(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암키와를 접합하는 과정 등에서 마루암막새와 암막새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루암막새는 일반 암막새와는 180°뒤집어 접합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키와의 배면(포목 흔 등 와통과 맞닿았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등, 암키와 역시 반대로 접합하게 된다. 또한 암키와의 크기를 맞추기 위함인지, 드림새 단부의 각도가 일반 암막새의 드림새와는 약간 다르다. 또한 접합방식에 있어서도, 배면의 보토 및 단부 등 일반 암막새와 마루암막새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표 6〉와 같이 규격 부분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접합으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유물의 예시가 아니라 두 가지 경우이므로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암막새와 마루암막새 사이에는 접합기법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와범에서 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놓고 보면, 접합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기술이나 시기상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④ 모서리암막새

모서리암막새는 원주 법천사지 1개 유적에서 1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22〉 모서리암막새

모서리기와는 암막새의 뒷면에 부착된 암키와를 삼각형 모양으로 절단시킨 다음에 두 암막새를 가로로 접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처음 모서리에 사용된다. 모서리기와는 통일신라 직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정방형의 암키와를 삼각형 모양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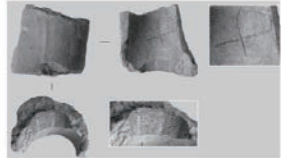
⑤ 망새 : 망새 · 곱새 · 마루수막새

망새와 곱새, 마루수막새는 모두 유사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곱새와 마루수막새는 같은 기와를 용어 상 다르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설명에서 곱새는 장식기와의 일종으로 지붕마루 끝에 사용하는 기와¹⁹⁾로 설명하고 있다. 즉 망새를 포함하여 곱새와 마루수막새는 모두 마루 끝에 사용하는 장식기와의 일종으로, 지붕 위에서 사용처와 용도는 모두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보고서 상 명명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망새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충주 탐평리유적 1개 유적에서 총 8점, 곱새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청주 운천동사지와 충주 송선사지 2개 유적에서 총 4점, 마루수막새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원주 법천사지 1개 유적에서 총 1점이 보고되었다.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충주 탐평리사지	충주 탐평리사지	충주 탐평리사지	충주 탐평리사지
					
충주 탐평리사지	충주 탐평리사지				

〈그림 23〉 망새

				
원주 법천사지	청주 운천동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송선사지

〈그림 24〉 마루수막새

〈그림 25〉 곱새



〈그림 26〉 연화무늬 곱새[=망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건23. 연화무늬 마루수막새. 통일신라, 한말제 출토.

〈그림 27〉 마루수막새[=망새]
김성구(1992), 『옛기와』, 대원사(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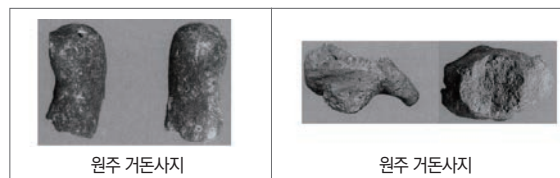
19)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주요 소장품 검색에서, 곱새 설명 내용.

마루수막새는 원형의 드림새에 접합된 수키와가 긴 원통형이거나, 등이 굽고 짧은 원통형으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와이다.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수키와의 하단과 뒤쪽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수키와가 굽으면서 드림새가 위로 치켜져 있거나 드림새가 직각으로 꺾이며 앞면을 향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확실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녀 끝에 이어진 모서리기와나 마루용인 귀면 기와의 상단에 얹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망새는 치미, 취두, 귀면와 등이 장식되지 않은 마루 끝 상단에 사용하는 기와로, 대개 암막새의 드림새가 위로 향하도록 거꾸로 얹어 놓는다. 이 기와는 망와 또는 바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매우 성행하였다. 망새는 각 마루 끝에 설치하여 그 끝을 막음하는 치미나 취두 드리고 귀면와와는 다르며, 사용되는 건물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 소규모의 건물에 사용되고 있는데, 마루 끝 상단에 암막새가 위로 향하여 거꾸로 얹어지기 때문에 뒷면에 부착된 암키와는 각 마루를 쌓아올린 적새에 연결되며, 그 위에는 다시 수마룻장기와의 놓이게 된다.

⑥ 잡상

잡상은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원주 거둔사지 1개 유적에서 총 2점이 보고되었다. 잡상은 장식적인 요소가 높은 기와로 볼 수 있다.



〈그림 28〉 잡상

잡상은 내림마루나 귀마루 위에 한 줄로 얹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조상(彫像)으로, 건물을 수호하고 각 마루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잡상은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부터 매우 성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궁전이나 관아 등의 큰 건물에 사용되고 있다. 대개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의 경우는 내림마루 위에, 팔작지붕인 경우는 내림마루를 제외한 귀마루에만 사용되고 있다. 용두와 함께 잡상의 개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5·7·9·11상으로 배치된다. 잡상은 진흙을 재료로 손으로 직접 조각하여 구운 것인데, 법승(法僧), 기인, 괴수 등의 모습으로 제작되고 있다.

⑦ 기타 막새 추정 기와 : 이형문수막새 · 이형막새

기타 막새 추정 기와는 정확한 용도와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보고서 상에서 ‘~막새’로 명명하였고, 막새와 유사한 (드림새로 보이는 면과 평기와의 접합이 추측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모아놓았다. 이형문수막새는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 제천 장락사지 1개 유적에서 총 1점, 이형막새는 여주 원향사 1개 유적에서 1점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와들은 수량이 많지 않으며 정형화되지 않아, 기와로서 사용되었을지 그 쓰임새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와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 용도가 더욱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와로 취급하는 경우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와 용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기와의 출현은,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보고되어야 하며,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9〉 이형문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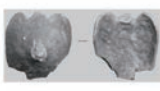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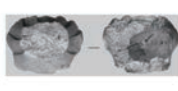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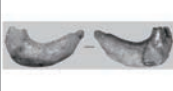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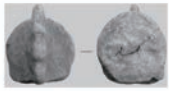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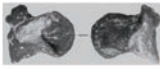
〈그림 30〉 이형막새

⑧ 이형기와 · 장식기와 · 특수기와 · 특수목적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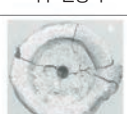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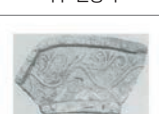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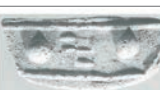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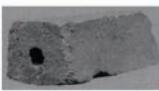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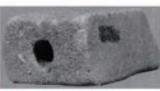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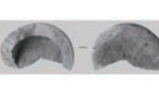
이형기와, 장식기와, 특수기와, 특수목적기와는 각각 조사대상 유적 가운데에서 이형기와 65점(영동 영국사, 제천 장락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탑평리, 여주 고달사지), 장식기와 13점(충주 미륵리, 원주 법천사지), 특수기와 48점(여주 고달사지, 여주 원향사, 원주 거둔사지, 원주 법천사지), 특수목적기와 18점(원주 법천사지)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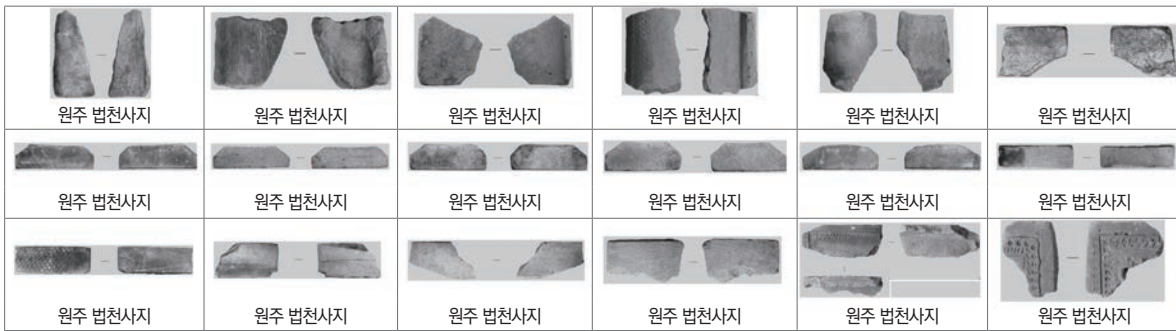
〈그림 31〉 이형기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그림 32〉 장식기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여주 원항사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원주 법천사지

〈그림 33〉 특수기와



〈그림 34〉 특수목적기와

이러한 기와들은 정확한 명칭 분류가 불가능 혹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각각의 보고서 내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유물들은 유사점이 크게 확인되지 않으며, 확실한 유물의 용도 등을 알기 어렵다. 또한 기와로 활용된 것이 맞는지, 그 유물을 확실히 알기 어려운 편들도 있다. 각 명칭의 기와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이형기와의 경우 숭선사지 출토품 몇몇과 고달사지 출토품 몇몇에서 착고기와의 유사한 형태의 기와가 확인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법천사지 출토품이 전부인 특수목적기와의 경우에서도, 착고와 유사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지만 2점 정도는 그 형태만으로 보아, 기와가 맞는지의 여부도 의심스럽다. 장식기와로 구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유물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장식기와로 구분한 경우도 있어 보이며(원주 법천사지의 예), 사진 상으로는 치미로 예측되는 편을 장식기와로 명명한 경우도 보인다(충주 미륵리사지의 장식기와 중 일부 예).

특수기와의 경우, 김성구(1992)에 따르면 “기와가 그 본래의 목적인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지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사용되거나 그 용도가 전용되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와류이다. 특수기와에는 담장용, 배수로용, 전탑용(塼塔用), 장식용, 무덤용(古墳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완제품인 암·수기와와 막새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 일부가 변형된 파손품을 사용하고 있다²⁰⁾.” 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 등에서 분류한 특수기와는 편만 남아 그 기와의 명칭을 알기 어렵거나, 편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도 정확한 용도를 알기 어려운 기와들의 경우 특수기와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 다른 기와들(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등)을 총칭하여 “특수기와”로 명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는 많이 확인되는 평기와와 막새가 아닌 기와가 확인되었을 때, ‘특수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기와’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수기와”로 총칭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유적들의 보고서에서 명칭한 ‘특수기와’의 경우, 김성구의 분류안의 특수기와와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유적들의 보고서에서의 특수기와는 건축의 부자재로 사용되는 기와 가운데 용도미상의 기와를 말하기도 하지만, 용도와 형태를 알 수 없는 토제품에게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기와 뿐 아니라, 이형기와, 장식기와 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유물의 명확한 역할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므로,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지속될

20) 김성구(1992), 『옛기와』, 대원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토제품을 특수기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돌파구가 아니라, 올바른 자료를 축적하는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와의 명칭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명칭 정리는 자료 축적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 앞으로의 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부족하나마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많은 기와들을 다루지 못했으며, 이에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고고학 자료나 불분명한 자료와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오히려 확실히 되는 자료가 더 적을 것이다. 새롭게 확인되는 유물들이 모두 교과서적인 자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와의 경우는 평기와와 막새 중심의 편협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유적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 중 하나가 기와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평기와가 가장 많이 확인되며, 종종 막새가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평기와의 경우는 그 문양과 형태 등으로 유적(유구)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기와와 막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하지만 평기와와 막새를 제외한 여타 기와의 경우는 확인되는 수량도 많지 않으며,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특색 있는 몇몇 기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명칭을 알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평기와 및 막새를 제외한 기와들은 불분명하고, 보고서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칭만으로 특정 기와를 수집하고자 할 때,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예시는 본고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 보고서 내의 명칭으로 분류한 유물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보고서는 유보해두더라도(연구가 덜 되었을 때 발간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래에 출간된 보고서 역시 일부의 명칭만 정립되었을 뿐, 여전히 많은 기와들이 보고서마다 제각각의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기와의 가장 큰 역할은 ‘지붕 위에서의 역할’²¹⁾이다. ‘지붕 위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장식적인 부분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기와는 지붕의 하중을 담당하고, 비와 바람 등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대의 기와지붕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기와의 사용도가 보다 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와지붕의 사용 예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식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일반적인 기와(평기와와 막새)뿐만 아니라, 장식기와의 종류가 다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장식기와의 명확한 형태와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기와는 기본적으로 크기와

21) 일부 기와들은 지붕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와 편들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로 볼 수 있다.

무게가 여타 다른 토제품에 비해 크고 무겁다. 또한, 지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파괴될 때 같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기와(평기와의와 막새)에 비교해 그 수가 적은,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등의 완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아직까지 완형을 추측하기 어려운 기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와 연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같은 형태의 기와여도, 보고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로 인해 몇몇의 기와들은 일정한 명칭이 아닌,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이것은 자료의 축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례기와와 귀면와, 연목와와 부연와 등의 비교적 자주 확인되는 기와들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치미로 보이는 기와편도 장식기와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료의 축적에는 도움 되지 않는 분류라고 판단된다.

2. ‘토기로 볼 수 없는 용도미상의 토제품’이 ‘기와류’로 편입되는 경우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형태의 기와들이 많다. 장식기와의 일부 파손품은 그것이 기와에서 떨어져 나온 편인지, 아니면 기와와 전혀 관련 없는 토제품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기로 볼 수 없는 미상의 토제품을 미상의 토제품으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와류로 편입시켜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물론 출토 위치 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론이겠지만, 이렇게 용도 및 명칭을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기와 편들은 기와의 분류에 보다 어려움을 주게 된다. 또한 현 실정에서 ‘남은 편이 얼마 안 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이한 토제품(혹은 기와)’의 경우는 그 용도를 알기 위해 주목하기보다 보고서 내 말미에 실거나, 혹은 국가귀속 자료 등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 유물이 기와가 맞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에 용도와 형태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토제품의 경우, 기와류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를 알 수 없는 토제품 혹은 기와편들을 찬밥취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고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3. ‘전(塼)’을 기와화(化)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많은 보고서에서 ‘전(塼)’을 기와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전(塼)과 기와는 차이가 크다. 전(塼)의 경우는 한자 그대로 벽돌로, 사용처는 바닥 혹은 벽체 등에서 사용되는 토제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이 건축부재라는 점을 들어 기와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도 미상의 토제품을 기와류로 편입시키는 결과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4. 지붕 위에서의 역할

제각각의 기와들이 지붕의 ‘어디’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난제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기와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와들이 지붕 위에서 어떠한 장소에 위치하였는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와는 형태적인 특징에서 볼 때, 장식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건축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와의 문양을 연구하기 보다는, 건축학적으로 지붕 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건축학적 측면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기와 및 막새와 비교하여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 등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기와들은 장식적인 요소가 많아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보다 알기 어려우며, 수량이 적어 확인되는 양 또한 적다. 또한 지붕 위에서 기와로서 활용되었는지도 확실시키기 어려운 유물들도 많아, 각 기와들이 제 위치(역할)를 찾는 데에는 보다 연구가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안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하나의 분류안과 명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 기와로 선별할 때 토제품으로 분류할지 기와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칭’과 그에 따른 ‘분류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자료의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하면 앞으로 더 다양한 기와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많은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평기와와 막새에 한정되지 않은, 진정한 기와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Ⅲ장의 기와들은 보고서 상의 명칭대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류 가능한 기와가 장식와로 분류²²⁾되는 등 재분류가 필요한 기와들이 확인된다. 하지만,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모든 기와들을 현재의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도 있지만, 연구자마다 생각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연구의 결과에 따라 기와들의 명칭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이러한 기와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객관화된 자료로서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택했다. 이 때문에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물을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에서 제공하는 것은, 보고서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본고에서 불편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서까래기와와 마루기와의 한계로 보고, 앞으로 기와 연구에 있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4, 『原州 法泉寺Ⅱ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31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寧越 興寧禪院 1·2次 試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93冊.

22) <그림 29> 장식와 가운데 충주 미륵리유적의 기와 일부는 사진 상으로 보아도 확연히 치미로 구분된다.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9, 『原州 法泉寺 I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101冊.
- 京畿文化財研究院, 2015, 『驪州 元香寺[增補版]』, 學術調査報告 第166冊.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2, 『高達寺址 I』.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高達寺址 II -3~5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77冊.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2, 『彌勒里寺址 3次發掘調査報告書』.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淸州 山南3地區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淸州 粉坪洞遺蹟』, 發掘調査報告 第81冊.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忠州 龍頭-金加間 迂廻道路建設區間 內 忠州 金生寺址』, 發掘調査報告 第91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叢書 第158冊.
- 淸州大學校 博物館, 1979, 『彌勒里寺址 2次發掘調査報告書』.
- 淸州大學校 博物館, 1993, 『中原彌勒里寺址 5次發掘調査報告書 大院寺址·彌勒大院址』, 遺蹟調査報告 第13冊.
- 淸州大學校 博物館, 1985, 『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 淸州大學校 博物館, 1986, 『淸州 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古蹟調査報告 第8冊.
-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永同 稽山里遺蹟』,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5輯.
- 忠清大學博物館, 1999, 『忠州 金生寺址』, 學術研究叢書 第8冊.
- 忠清大學 博物館, 2006, 『忠州 金生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研究叢書 第18冊.
-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學術研究叢書 第20冊.
- 忠清大學 博物館, 2008, 『永同 寧國寺』, 學術研究叢書 第24冊.
- 충청대학 박물관, 2008, 『堤川 長樂寺址 제1~3차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연구총서 제27책.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진양리조트G.C. 개발부지내 음성 양덕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5책.
- 韓國敎員大學敎 博物館, 1993, 『中原 塔坪里寺址 發掘調査報告書』.
- 韓國敎員大學敎 博物館, 1994, 『93中原 塔坪里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淸州 福臺洞 鋤湖어울림아파트敷地內 淸州 福臺洞遺蹟』, 學術報告 第9冊.
-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居頓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研究叢書 14.

도록 및 자료집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백제기와 百濟瓦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자취』.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황룡사지 신라 고식 수막새 분류일람』, 신라기와 조사연구 자료집 II.
- 國立慶州博物館·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2000, 『新羅瓦磚』.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7,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 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 부산박물관, 2015, 『釜山 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8집.

책

-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논문

- 양종현, 2012, 「경주지역 신라시대 귀면문마루끝장식기와 고찰」, 『선사와 고대』37권0호, 한국고대학회, pp.191-221.
- 유환성, 2017, 「특수기와의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선희, 2017, 「치미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선희, 2017, 「귀면와 규격과 제작기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 고증연구』 황룡사연구총서15, 국립문화재연구소.
- 장현경, 2012, 「동아시아의 연목와-6~7세기를 중심으로-」, 『백제기와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발자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편소리, 2012, 「백제 사비기 椽木瓦의 형식과 제작기법-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기와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발자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포탈 및 기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주요 소장품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Origin.do?did=61161>]

● 특별강연

중원의 기와 - 삼국을 중심으로 | 최맹식 |



중원의 기와 -삼국을 중심으로

최 맹 식(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I. 한반도 기와의 유래
- II. 기와의 제작공정과 중원의 기와
- III. 삼국에서 중원지역 기와의 위치
- IV. 건물의 바람직한 修葺조건과 기와 -맺는말을 곁하여-

I. 한반도 기와의 유래

고고학적으로 살펴본 한반도 기와는 지금의 평양과 그 서편을 중심으로 한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 지역은 중국 한나라가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낙랑(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의 옛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따라서 이 기와는 모두 중국 한나라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기와 제작 시기는 서기전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의 속군(屬郡)이었던 이 지방에 파견된 한나라 관리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남긴 유산물 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중의 하나로 이들의 거주 공간에서 발견된 전축분을 구성하고 있는 전들의 명문에서 관련된 주체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¹⁾.

당시 삼국초기고구려의 중심은 중국 국내성을 중심으로 지금의 동북 3성을 거점으로 하여 세력을 넓게 펼쳐 나갔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후한과 남북조 시대가 한창일 때에 이들과 접한 세력들과 지속적인 충돌을 자아냈고, 결국 고구려는 5세기 초에 수도를 압록강 북쪽에서 한반도내로 옮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생산한 초기 기와의 분포는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각 거점에 마련된 산성 내에서 그 발자취를 찾아야 할 것이나, 지역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조사와 연구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중국의 국가나 학계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한 보고서에 의거하여 자료를 검토해야하는 점에서 그들이 서술한 조사내용과 사진 및 도면 등을 이용할 수

1) 朝鮮古蹟圖譜 제1책, 朝鮮總督府, 大正4년.

발굴 보고서에 실린 전돌 중, 전각에 사용되었던 내용 중에 『帶方太守張撫夷』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이 명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주체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된 고구려의 초기 기와는 국내성 주변에서 출토된 태녕4년(太寧四年) 명 수막새를 거론하는 추세이다.

실제 수막새의 문양과 양식 등에서 중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또 이 수막새 등을 제외한 기와에서 좀더 앞선 시기로 볼 수 있는 기와 유물은 뚜렷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백제는 건국 이래 시기를 크게 구분하자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는 한성도읍시기로서 5세기 중엽 무렵 고구려에 의한 왕성의 소실과 개로왕의 죽음은 수도를 웅진(公倌)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후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웅진도읍시기와 사비도읍시기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백제 전기인 3세기경에는 이미 기와가 출현한다. 이시기의 기와는 평기와와 수막새가 관찰되는데, 수막새의 제작 기법과 문양 등은 중국 남조시대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등장하거나 발전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수막새의 문양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비슷한 특징이나 문양을 나타낸 것이 있지만,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기와류의 등장과 발전은 지금의 한성도읍기의 도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이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또 주변의 석촌동 고분과 경기도 파주와 화성 등의 백제 초기 유적 등 10여 곳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는 당시 기와를 구웠던 가마와 제작된 기와 편 등이 함께 출토된 바 있다.

신라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122년(祗摩王 11년)에 기와가 바람에 날렸다는 기록에 의거하면 건국 당시에 이미 기와의 존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지만, 실제 발굴조사에 의한 기와의 등장은 빨라야 6세기 중반 경을 전후한 시기에 등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

출토된 유물에 의한 검토에 의하면, 경주 월성해자를 중심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사찰로 알려진 분황사와 황룡사지 출토 기와 중 가장 초창기 제작 기와는 6세기 중반이후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신라 중원경(中原京; 고구려의 國原京)의 세력권 내에 있는 제천의 장락사지 초창기 제작 출토 기와중에는 6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기와로 판단되는 것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중원경이 갖는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해야만 풀어진다. 이 지역은 크게 보면 백제의 故土이나 5세기경 고구려에서 이곳을 차지하면서 국원경을 설치하였다. 6세기 중반경 신라 진흥왕이 개척하면서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2 祗摩王 11년조
夏四月大風東來折木飛瓦

II. 기와의 제작공정과 증원의 기와

1. 기와의 제작공정

기와에 대한 인식은 제작기법과 문양 등을 위주로 그 내용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기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그 제작하는 공정을 다소 이해해야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제와장(製瓦匠)³⁾과 70년대 경까지 경북 안강읍 노당리에서 재래식 기와를 제작했던 분들의 전통 재래식 기와 제작기법에 대한 시연 조사내용과 구술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⁴⁾

기와의 제작공정은 연구자마다 공정의 단계와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필자는 통상 다음과 같은 7단계로 나눈다.

①원토채취 ②흙고름 작업 ③흙벼늘 작업 ④다무락 작업 ⑤성형 작업 ⑥건조 ⑦구움(소성)

①원토채취

원토채취는 기와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를 구하는 일이다. 와장의 취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와를 만드는 원 재료는 수천 년 동안 경험 등에 의하여 가장 제작하기 좋고, 구운 후 기와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토질을 찾아 왔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간 찰진 흙에 모래가 섞인 흙을 선호한 것으로 이해된다.

모래가 섞인 흙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좀 찰진 흙에 적당한 크기의 모래를 섞어 작업했다고 한다.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을쯤에 흙을 먼저 채토하여 적토장에서 겨울을 난 후, 봄에 작업을 하면 선호하는 탄력있고 작업하기에 보다 좋은 바탕흙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②흙 고름 작업

흙고름 작업은 30cm내외의 작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사각 구덩이를 마련한 후, 이곳에 채토한 흙을 약 20cm 내외의 두께로 깎는다. 이 흙 위에 물을 적당하게 뿌린 후 하루 저녁을 재운 다음, 좀 넓은 괭이 형태의 도구로서 조금씩 캐듯 작업하면서 흙을 물과 고르게 섞고 큰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 흙고름 작업은 같은 작업을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흙고름 작업에서는 흙이 적당하게 물과 잘 섞이고 기와제작을 위한 바탕흙에 방해될 수 있는 이물질은 많이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부족하지만 세 번의 고름작업을 통하여 기와 성형을 위한 탄력도 제법 붙게 된다.

3) 장흥 안양면 모령리에서 2010대 까지 재래식 기와를 제작했던 전 제와장(인간문화재90호) 한형준 옴.

4) 경북 안강읍 노당리 거주 瓦匠 정○○ 선생; 1987년 1월 14일 대담내용 정리.

③흙 버늘 작업⁵⁾

흙 고름 작업을 마치면 이제 제법 흙에 탄력이 붙는다. 이것을 가까운 바닥에 모래를 깔고, 흙 고름 작업을 마친 흙을 나무 삽으로 떠서 옮긴다. 작업할 흙의 량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원내에 흙을 얇게 옮겨 간 후에 발로 일일이 밟아 가면서 발에 밟힌 작은 이물질까지 일일이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탄력은 더욱 좋아지고, 작은 이물질까지 제거하는 작업을 곁들이는 것이다. 한 번 간 흙을 모두 밟아 가면서 작업을 마치면 그 위에 또 흙 고름한 흙 얹혀 놓는다. 다시 발로 밟아 가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작업을 흙 고름한 흙 전체를 마칠 때까지 반복한다.

흙 버늘작업을 1차 마치면 전체 흙에 대한 동일한 작업을 옆으로 옮겨 가면서 3차례 반복하면 기와성형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탄력이 붙는다. 1차 흙 버늘 작업을 마치면 흙에 탄력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삽으로는 쉽게 흙을 떼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흙을 땔 때는 얇은 철사줄의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른바 쥘 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 쥘줄의 사용은 양손으로 잡고 버늘 작업한 흙을 두께 약 2~3cm두께로 일일이 베어내듯 떼어내어 2차 버늘 작업장으로 옮긴 후, 다시 발로 밟아가면서 작은 이물질도 제거하고 한편 흙의 탄력성도 높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④다무락 작업⁶⁾

다무락 작업이전의 3단계까지는 기와 성형을 위한 충분한 탄성을 올린 작업이었다. 이제 이 탄성이 강한 흙을 기와로 성형하기 위해서는 기와 외통에 맞게 두께와 크기를 한 장씩 떼어 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평평한 지면에 모래를 깔 후, 3단계에서 사용했던 쥘줄을 사용하여 한 커씩 떼어내어 담장형태로 쌓아 올린다. 이때도 쌓아올리는 흙의 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커씩 올릴 때마다 발로 밟아 가면서 올린다.

다무락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흙을 쌓아 올리는 곳에 얇은 철사줄 두줄을 기와 길이에 맞추어 평행으로 설치한다. 다무락 작업을 모두 마치면 사전 바닥에 설치했던 철사줄을 한 줄씩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한 줄의 양끝 중, 한 쪽은 고정된 채 놓고, 다른 쪽을 풀어 위에 쪽 잡아 당기면 다무락 작업을 했던 바탕흙이 벽처럼 수직으로 곧게 남고, 겉면을 잘라져 나간다. 물론 이 철사를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장대라는 바른 나무로 만든 자를 사용하는데 다른 몇몇 작업기능을 갖춘 작업도구들과 함께 세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작업은 적어도 두 세 명이 한조가 되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

⑤성형 작업

성형작업은 이전까지의 작업을 통하여 탄성이 붙은 바탕흙을 사용하여 기와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성형을 위해서는 기와 틀이 필요하다. 이 기와 틀은 통상 와통(瓦桶)이라 부른다. 와통은 암기와를 위한 여와통(현지에서는 女瓦桶), 수기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부와통(夫瓦桶; 장흥 모령리 제와장은 현장에서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나무

5) 버늘 작업은 베(나락)를 낚기리한 것을 다음 작업을 할 때까지 보통 동그렇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6) 다무락은 전남 장흥 지방 등에서 사용하는 담장의 방언이다. 현장에서 와장이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부여하였다.

에 수키와 틀을 부착하여 사용했다. 말처럼 앉을 수 있도록 한 통나무에 수키와 틀을 올려 만들었다. 이는 마치 말 위에 앉아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도구를 통상 말(馬)이라고 불렀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와 성형을 위한 다무락 작업까지 거친 바탕흙(素地)은 여와통과 부와통의 크기에 맞추어 한 장씩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여러 형태의 도구가 필요하다⁷⁾.

암기와는 통상 두 장을 사용하여 여와통에 붙여 타날도구로서 두드려 원통형의 형태를 만든다. 수키와는 부와통에 맞게 한 장 씩 떼어낸 소지를 부착하여 양면을 부착하고 두드려 밀도를 높이면서 완성시켜 나간다. 이때 와통에서 원통형의 기본기와가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와통에는 마포(麻布)를 씌우는데, 통상 통보라 부른다.

⑥건조

건조 작업은 기와를 굽기 위하여 5단계에서 성형된 원통형의 기본기와를 옮겨 분리하거나 건조하는 공정이다. 좋은 날씨에는 통상 2~3일 내외가 소요된다. 암·수막새를 조성하기 위한 내림새와의 제작을 위해서는 건조작업에서 계산하여 부착할 부분은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작업을 하게 된다.

건조는 통상 와통에 부착된 성형된 기본기와 채로 건조 장소에서 와통만을 빼어낸다. 이때 기와 내부에 음각으로 난 선을 따라 와도(瓦刀; 현지에서는 굽낫)를 사용하여 상부만 흠을 낸다.

원통으로 남은 기와는 먼저 상부만 건조시키는데, 하부는 건조되지 않도록 짚이 기타 경험에 의한 재료를 덮어 둔다. 이러한 조치는 먼저 아랫부분은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돕는다. 간간히 물을 뿌려 건조시키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된다.

2~3일이 경과한 후, 상부가 어느 정도 건조되면, 원통형의 기본기와를 뒤집는다. 이때 마르지 않는 부분의 눈테를 따라 와도로서 마저 흠을 낸다. 흠을 낸 후, 암·수막새의 내림새를 부착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막새부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평기와는 흠을 낸 후, 그대로 약 이틀 정도 건조 후에 암기와는 원통기와를 두 다리사이에 놓은 상태로 두 손으로 툭 치면 4매로 분리된다. 분리된 기와는 현장에서 습득한 방법으로 서로 엇걸어 세운 상태로 완전건조로 작업으로 들어간다.

⑦구움(소성)

굽는 작업은 건조된 기와를 가마로 옮겨 재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기와를 가마 내에 재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불이 기와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는 조건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조건일 때, 사용가능한 질 좋은 기와와, 사용할 수 없는 기와의 수량 비율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기와 제작에 있어서 굽는 작업의 중요성은 가장 오랜 경험을 쌓은 와장만이 불의 강약과 시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굽는 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 현장에서는 현지 명칭으로 장자, 머리자, 고마, 팻줄이라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성형을 위한 소지를 한 장씩 베어낸다.

2. 중원과 주변 지역의 기와

중원경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심지는 충주이다. 흔히 중원지역을 거론함에 있어서 좀더 포괄적인 범주를 경계로 할 때 중원일대의 한 문화를 통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충주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남한강과 북한강의 유역일대를 폭넓게 보면, 지금의 충북과 경기도(여주)와 강원도(원주와 영월)의 일부까지 중원의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설정한 이러한 범주내에서 발굴 등에 의한 민을 만한 기와출토 유적은 약 43개소 내외이다. 이 중에는 사찰과 산성을 중심으로 성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건물지와 기타유적으로 구분된다. 건물지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유적들은 아마 당시 이러한 기와를 사용했을 만큼 세력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관여하는 관아나 그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격의 유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유적은 아마 청주 복대동 유적이 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를 기준하여 확인된 삼국시대의 유적은 보은 삼년산성, 청주 부모산성, 충주 탑평리 유적, 제천 장락사지, 청주 복대동 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유적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한적인 조사에 의하여 유물에 대한 성격파악의 한계로 모두 충분한 연구조사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제외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가. 평기와

장락사지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출토된다. 중앙탑 주변의 삼국시대 탑평리 유적에서도 막새류와 함께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평기와는 제작기법으로 보면, 삼국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했던 가래떡형소지와 널판형소지 모두 관찰된다. 삼국의 평기와는 널판형소지에 비하여 가래떡형소지가 훨씬 우세하다. 이러한 추세는 신라 경주에서도 처음 등장하면서 적용되었지만, 비율로 보면 낮은 편이어서 대조적이다.

평기와의 문양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공통으로 공유했던 것은 승문, 선문, 격자문이다. 이곳에서도 이들 세 문양들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평기와는 통쪽와통과 원통와통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삼국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에서 이미 처음부터 등장하여 계승되어왔던 기법들이다.

암기와의 내면에 통쪽을 엮었던 끈 흔적(한줄 엮기 또는 두 줄 엮기법)도 확인된다. 이러한 기법의 종류는 한성시대 역시 한 두 종류가 발견되었는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나. 막새

중원지역의 삼국 막새는 암막새와 수막새 모두 출토되었다. 중원지역에서 삼국의 막새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

8) 중원의 총체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문화특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원과 관련된 주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80년대 중원문화권의 범위를 경북 봉화 등지까지 포함시켰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긍이 되는 부분이다.

고 있음은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이른 시기의 수막새의 문양과 기타 특징은 경주와 주변의 일반 고신라 수막새와는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천 장락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수막새의 두 시기의 것 중, 늦은 시기의 것은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7세기 초경을 전후하여 신라가 통일하는 7세기 후반경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원지역의 암막새 등장은 충주 탑평리유적과 제천 장락사지 출토유물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7세기 중반경을 전후~ 신라가 통일하는 즈음의 시기에는 이미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원지역 출토 초기 암막새는 암기와에 드림새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는 것과 등기와의 선단부를 배면방향으로 완만하게 구부려 내림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있다. 이러한 기법이나 형태와 거의 동일한 암기와는 경주 월성해자유적, 월성내 건물지, 손곡동 유적, 육통리 기와가마 등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시원적인 암막새들의 등장 시기는 위의 중원지역 삼국 수막새 두 번째 시기와 동일한 7세기 초반경에서 중반경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중원지역의 암막새는 경주 초기 암막새의 영향을 받았거나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러한 기법을 터득한 와장들이나 기술을 습득했던 와장들에 의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Ⅲ. 삼국에서 중원지역 기와의 위치

1. 중원지역 기와 등장 전후의 삼국정황

신라 중원경(충주)은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가 5세기경 이 지역을 점령한 후, 국원경으로 삼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가 점령하기 이전에는 백제의 故土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거지와 출토된 토기등의 유물은 백제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마한과 백제에 의하여 오랫동안 그 문화가 깊숙하게 스며든 지역에서 5세기경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 당시의 군사적인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원경이라는 통치기반의 기본적인 체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고구려인들로 교체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습관들은 그대로 지속되어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전반기에는 수도였던 국내성을 기반으로 주변에는 현 중국의 동북 3성의 너른 지역에 성벽을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유지하면서 남북조시대의 접경국가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록강 이남의 유리한 지형과 경영을 위하여 남진정책을 펼칠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급기야 427년도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장수왕은 이러한 대세를 이용하여 중원지역을 점령하고 국원경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의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게 되어 한반도 내륙으로 깊숙하게 군사를 내어 공격하고 점령하게 되자 백제는 내륙의 요충지를 잃게 되고, 신라는 국경 북쪽을 고구려와 접하게 되면서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졌다.

고구려의 국원경 설치의 일시적인 점령이 아닌 항구적인 점령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는 라제동맹을 맺기에 이르렀다. 신라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이용하여 안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군사를 기르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6세기 중반 진흥왕에 이르러 고구려가 점령한 국원경뿐 만 아니라 백제의 한강유역을 넓게 아우르는 지역을 모두 차지하여 중국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신라의 국력을 본격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한편 백제는 건국 당시부터 수백 년간 다져온 한성도읍을 5세기 후반 경에 고구려의 남하정책과정에서 개로왕이 죽고 결국 수도는 함락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백제는 한성도읍시기를 마감하고, 결국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2. 기와 등장 시기 배경에 관한 검토

중원지역에 처음 등장한 기와는 어느 유적일까 하는 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면서도 예민한 문제일수도 있겠다. 필자가 지금까지 유적과 유물을 통해 관찰한, 중원지역에서 첫 기와의 등장은 제천 장락사지를 꼽고자 한다. 왜 중원경(충주)의 중심지도 아닌 제천의 장락사지에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까하는 문제는 문헌기록과 남아 있는 유적 등의 종합적인 검토에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문제이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침략으로 함락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5세기경 한성시기의 기와는 풍납토성과 주변의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인천 기와가마와, 화성 마하리유적, 포천 자작리 주거지 등지의 백제 전반기의 유적에서 적지 않게 발굴 소개되어 있다. 이 시기의 기와는 적지는 않지만, 실제 웅진이후의 백제 성곽 건물지나 사찰 등지에서 출토되는 수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을 보인다. 그렇지만 기와의 제작기법에서 보이는 특징과 공통점, 문양 등에서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한성시기와 웅진이후의 기와는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한성도읍시기를 마감하고, 바로 이어진 웅진시기의 기와는 몇몇 특징과 문양 등에서 쉽게 구별을 할 만큼 다르다는 점은 쉽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된 이후, 웅진과 주변에서 출토되는 백제의 기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이곳 제천의 장락사지 출토 기와가 아닐까 추정한다.

중원지역에 기와의 등장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한 국가의 도읍이나 왕이 자주 행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에서 간단하게 서술한 바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 및 신라가 기회 닿을 때마다 점령 주체가 바뀌는 예민한 지역이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남한강에서 직선거리로 추산해도 20여km를 훌쩍 넘는 거리이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 거련(장수왕)의 공격으로 왕의 죽음과 함께 왕성을 파괴되었다. 이 와 중에 개로왕의 아들인 문주는 신하 몇과 함께 신라로 구원병을 청하여 왔으나, 이미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터여서 475년 9월에 왕위에 즉

위하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⁹⁾. 이때 장수왕은 백제 남녀 포로 8천명을 잡아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있다¹⁰⁾.

이렇듯 백제는 전쟁을 수행하는 어려움 속에서 수도의 함락과 왕의 죽음은 정치와 사회적인 불안감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국가의 존재 또한 한 치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수난은 삼국사기 고구려 장수왕 조의 기록에 의하면 계획적인 계락을 써서 백제왕으로 하여금 백성을 성벽과 궁궐, 각종 토목 사업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국가 재정을 탕진케하고, 백성을 굶주림과 수탈의 원인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었음을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고 탕진과 관리와 백성의 동원은 곧 민심을 배반케 함으로서 관리들 까지도 등을 돌리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로왕이 고구려의 침자의 계략에 속아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사치와, 국가안녕을 소홀하게 하면서 백제는 주변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군사들도 역사에 동원되어 훈련의 기회를 놓치고,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즈음 고구려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앞에서 5세기 경부터 6세기 중반 신라의 진흥왕이 이 지역을 차지할 때까지 국원경(충주)설치와 군사적인 관할지역을 넘어서서 행정적인 체계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천은 충주의 가까운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주변의 한 관할지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제의 갑작스러운 도읍의 함락과 혼란, 왕의 죽음은 사회 각 계층의 구조 역시 크게 무너지거나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종에서 기와를 만드는 외장과 그와 관련된 구성원 집단들도 온전 할리는 없었다고 헤아려진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초기 한성도읍시대의 수백 년 동안 습득한 기와제작기술을 가진 외장들은 이러한 환경을 피하거나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 중원지역까지 흘러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이곳 제천 장락사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수막새는, 신라 경주의 가장 이른 시기의 수막새문양과는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즉 신라 경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초창기 수막새와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장락사지 출토 수막새는 삼국시대 중, 적어도 두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양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중 늦은 시기의 수막새는 신라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특징이 비슷하다. 경주지역의 기와 등장은 6세기 중반경을 전후한 시기에 비하여, 장락사지 출토의 이른 시기의 기와는 6세기 전반경에 이미 등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충주 탑평리유적에서도 경주에서 출토된 초기 암막새 양식인 등기와의 드림새를 따로 접합한 양식과 등기와의 선단부를 구부려 드림새를 제작한 이 두 가지가 모두 출토되었던 점도 앞서 선술한 바 있다.

9)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3 개로왕21년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4 문주왕1년조
10)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3 개로왕 21년조

또 중원지역에서 초기 와장의 유입 조건은 남한강의 존재와 같은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의 제반 연구는 필자로서는 가능성에 관한 넓은 의미에서 제시할 수 있을 뿐 따로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기로 한다.

3. 기와로 본 중원의 위치

중원정은 당시 주변지역과 함께 지형학적으로 삼국의 침예한 내륙의 거점을 점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강을 이용하여 충주로 이동하면, 신라의 중심인 대구를 경과 경주로 통하는 내륙의 핵심지역을 닿을 수 있었다.

한편 북한강을 이용하면 한반도 북쪽의 내륙으로 치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빠질 수 있는 길로 연결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은 중부지역의 가장 너른 평야와 접할 수 있는 교두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강을 타고 서해안으로 가면 중국과 통교할 수 있는 한반도 최고의 교두보와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너른 평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점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 등장은 중원지역이 이러한 지형학적인 유리한 조건과 그에 걸 맞는 지역적인 역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중원이 내포하고 있는 지형학적인 유리한 조건이 삼국이 모두 이를 필요로 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선진 문명의 한 분야였던 기와가 이곳부터 유입·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Ⅳ. 건물의 바람직한 修葺조건과 기와 -맺는말을 곁하여-

우리 선인 들은 건물을 올릴 때 아무런 곳이나 쉽게 올리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건물이 들어선 곳을 잘 관찰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백제의 한성도읍기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을 사례로 들어보자. 2000년대에 들어와 발굴을 했던 당시 미래마을조성부지는 조사결과 백제 한성기의 건물지와 도로, 왕실(국가)에서 행하는 추정 제단 터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곳은 모두 건물 규모와 제단의 규모 및 제단으로 진입하는 小路는 조금도 오차가 없는 지기와 지기가 이동하는 맥선이 흐르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여의 정림사지는 남쪽부터 중문지, 현존하는 5층 석탑, 금당지, 강당지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건물터와 5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지기를 그대로 이용하여 방향과 크기에 따른 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문지 앞의 두 연못터 역시 지기가 분포하는 규모에 맞게 조성하였다. 이 두 연못 터의 중앙에 나있는 진입도로의 라인과 너비는 지기가 흘러 들어오는 곳에 마련하였는데 그 폭도 지기와 맥선(脈線)의 너비에 맞추어 조성하였다.

익산의 백제 미륵사지 역시 세 금당과 세 탑, 강당지와 중문지는 모두 지기에 조금도 오차 없이 건물규모를 맞추었다. 이들 문지는 모두 지기가 흘러들어가는 맥선 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익산 왕궁리의 백제 궁성의 궁담에서 조사된 남쪽의 3곳의 문지와, 출입구 너비, 궁담의 동·서편에서 조사된 각 1개소의 문지와 그 통로 너비 역시 모두 지기와 지기가 흘러들어가는 규모와 너비에 순응하여 조성했다. 내부의 초기 건물지, 사찰과 현존하는 5층석탑 역시 지기와 지기가 흘러들어가는 맥선에 맞추어 출입문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황룡사, 및 분황사 역시 모두 초창기의 건물배치인 3개의 금당지와 탑, 중문지 등은 모두 이러한 지기에 따른 방향과 배치를 따랐다.

고구려의 안학궁 궁담 내부는 약25만㎡내외 인데 그 내부는 모두 지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다. 또한 안학궁의 내외부로 출입하는 통로는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망에 10여개를 넘는다. 이들 출입로는 모두 지기가 흘러들어가는 맥선상을 이용하였고 그 너비 역시 그에 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원 지역의 제천 장락사지는 이러한 건물 사찰건물을 배치 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곳이나 확인된다. 한 곳은 장락사지의 가장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 지기의 방향은 동서향이다. 이 방향은 주변의 지형과 지세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 한 곳은 현존하는 모전석탑을 기준하여 그 서편과 동편(현존하는 장락사 경내 일부까지 포함)에 배치되어 있다. 이 역시 동서향으로 되어 있어 주변의 지형과 지세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락사지는 당시 우연하게 선택된 곳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건물의 한 중요한 재료로서 이용하는 기와는, 이러한 지기가 형성된 곳에 건물을 짓고 기와를 올리면 건물과 함께 빛이 나고 수명도 오래갈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건물을 짓고 기와를 얹는 행위는 고대 궁궐이나, 사찰과 기타 재래 한옥으로 된 향교와 고가(古家)등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경제성이 보다 높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원과 그 영향이 미쳤던 주변지역은 지형학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반도 내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조물의 한 중요한 재료로서 사용되는 기와의 등장 이, 이 중원지역에서 당시 수도였던 경주에 비하여 더 이른 시기에 등장했던 점은 이러한 삼국 간 치열한 세력 다툼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는 반증자료로서 충분할 것이다.

선조들이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끼친 지혜를 버리거나 알 수 없다는 조건을 들어 그냥 팽개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연이 주는 크나큰 혜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주제발표

제 3주제

- 중원지역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 | 최영희 |
- 「중원지역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에 대한 몇가지 질문 | 양종현 |

제 4주제

- 신라 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 최정혜 |
- 「신라 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최태선 |

제 5주제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범자명(梵字銘) 막새 | 이상규 |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범자명(梵字銘) 막새 변천과정」에 대한 토론 | 윤용희 |

제 6주제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 김경범 |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을 읽고 | 백종오 |



제 3주제

● 中原地域 新羅 造瓦技術의 受容과 展開

최영희(강릉원주대학교)

I. 머리말

II. 中原地域 三國時代의 造瓦樣相

III. 中原地域 統一新羅時代의 造瓦樣相

IV. 맺는말

I. 머리말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을 가리키는 ‘中原地域’이라는 용어¹⁾는 고대 삼국(高句麗·百濟·新羅)이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저마다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집중시켰던 ‘接境地’로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바라보는視線은 여전히 중앙의 입장에 머물러, 都城의 정보와 체제에 대한 ‘지방의 受容者’라는 一方向的 입장에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고고자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중원지역 고대 유물에 관한 검토는 같은 시기 도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편년(출현 시기 중심)과 계통을 비정하고, 제작 및 사용주체의 國籍을 판정하는 과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삼국의 특성이 각각 혹은 혼용된 상태로 존재하는 이 지역의 복잡한 물질문화를 山城, 寺院, 기타 建物址의 운영 세력을 구분하는 증거자료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와 자료에 있어서도, 정작 중원지역으로 유입된 造瓦技術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정착·전개되었는지의 기본적 전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자체의 양상을 명확히 하고, 중원 지역 내에서의 변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신라의 조와기술에 기반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기와를 대상으로, 삼국의 통합²⁾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1) 중원지역은 좁게는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넓게는 지금의 충청북도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원의 외당』(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2018)에 조사·계재된 유물 중 충청북도 출토 기와로 그 대상을 한정하되, 상황에 따라 기타 지역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부가하였음을 밝히둔다.

2) 문헌을 통한 ‘三國統一’의 개념이 유적과 유물, 더욱이 도성을 벗어난 ‘지방’의 고고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설명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통일’의 단어를 시대명(통일신라시대)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의 조와기술은 중원지역 내에서 가장 큰 분포범위를 보이는 만큼, 기술의 수용과 확산, 변용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효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中原地域 三國時代의 造瓦樣相

1. 中原地域 新羅 造瓦技術의 分布 : 평기외를 중심으로

중원지역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의 것으로 소급 가능한 기와의 출토 사례로는 충주의 塔坪里遺蹟, 薔薇山城, 大林山城과 忠州山城, 청주 父母山城, 청원의 謳羅山城과 壤城山城, 음성 望夷山城, 보은 三年山城, 제천 長樂寺址, 진천 都堂山城 등을 들 수 있다³⁾.

우선, 출토 기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기외의 양상을 통해 신라 조와기술의 분포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라 조와기술의 추출 기준

고대 삼국의 평기외는 ‘凸面’의 타날형식과 ‘성형틀의 구조’를 통해 판단·구분되고 있다(최태선1993, 최명식2006).

前者는, ‘中板 타날’이 출현(7세기후엽~8세기초)하기 이전까지 사용된 ‘短板 타날’, 즉 토기를 비롯한 여러 토제품의 성형에 일반적으로 구사된 타날방식을 시간적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다.

後者の 경우, 고구려·백제·신라의 각 도성을 중심으로 확인된 성형틀의 차이로부터 그 기술계통을 추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형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무와통), 통쪽을 연결한 성형틀(통쪽와통), 비개폐식 구조의 성형틀(원통와통)이 알려져 있으며, 통쪽와통은 통쪽의 연결띠흔이 드러나는 경우(통쪽와통 I)와 드러나지 않은 경우(통쪽와통 II)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성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른바 竹狀模骨이라 불리는 비주류의 형식도 확인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도구가 국가별로 선택·사용되다가 통합 이후 원통와통만 남는 흐름이 인식되는데【표1】, 2000년대 이후 성형기법의 추가와 함께 한 도성 내 여러 형식의 공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와 기술의 관계를 연결 짓는것이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 사비지역에 무와통의 성형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같은 기술요소라 하여도 각 도성마다 생산 및 사용의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은 도성을 벗어난 지역의 조와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한 정보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3) 본 글에서는 보고서 게재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유적들은 장기간에 걸쳐 연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신자료의 등장 및 유물의 재분석을 통해 또 다른 양상이 부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4) 평기외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사용시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이 서로 다르며, 암키와의 경우 성형시의 내·외면 또한 바뀌게 된다. 본 글에서는 기와의 형태에 따라 볼록한 면을 凸面, 오목한 면을 凹面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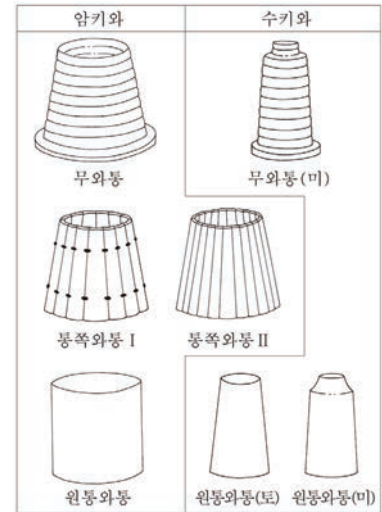
【표 1】삼국시대 평기와의 성형틀 형식(都城 출토품)

국적		성형틀의 유무 및 형식	
		암기와	수키와
고구려		통쪽와통 II[원통와통, 일매작법]	원통와통(토·미)
백제	한성기	무와통, 통쪽와통 I, 원통와통	무와통(미), 원통와통(토·미)
	웅진기	통쪽와통 I	원통와통(미)
	사비기	통쪽와통 I, 통쪽와통 II	원통와통(토·미)
신라	고신라	무와통, 통쪽와통 I, 원통와통	무와통(미), 원통와통(토·미)
	통일신라	원통와통	원통와통(토·미)

* 표는 발굴조사를 통해 일반적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정하되, 단편적 사례가 소개된 경우에 대해서는 []로 표기하였다.

* 고구려의 경우, 천도에 따른 전반적 형식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성별 구분을 행하지 않았다.

* (토):토수키와, (미):미구기와



본 글에서도 이상의 두 가지 변화상을 기준으로 삼아 1차 구분을 실시하였다. 다만, 도구 및 기법의 사용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도성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중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신라 조와기술의 분포 양상

앞서 언급한 평기와의 추출 기준에 따라 중원지역 삼국시대 평기와(기준:凸面の 短板 타날흔)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암·수키와 모두 원통와통의 단일한 성형방식(도구,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로, 충주의 탑평리유적, 장미산성, 충주산성, 청원의 망라산성과 양성산성, 음성 망이산성, 진천 도당산성, 단양 온달산성이 해당된다. 수키와는 확인가능한 개체에 한해서는 거의 토수키와이다. 또 한 가지는 보은 삼년산성, 청주 부모산성, 제천 장락사지와 같이 여러 가지 성형방식이 혼재된 상태로 확인된 경우이다. 본 글에서는 수막새도 출토되어 본 발표의 중요한 논지를 제공하고 있는 삼년산성과 부모산성의 경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報恩 三年山城 출토 평기와 우선, 보은 삼년산성에서 삼국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평기와는 제작기술적 양상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기술群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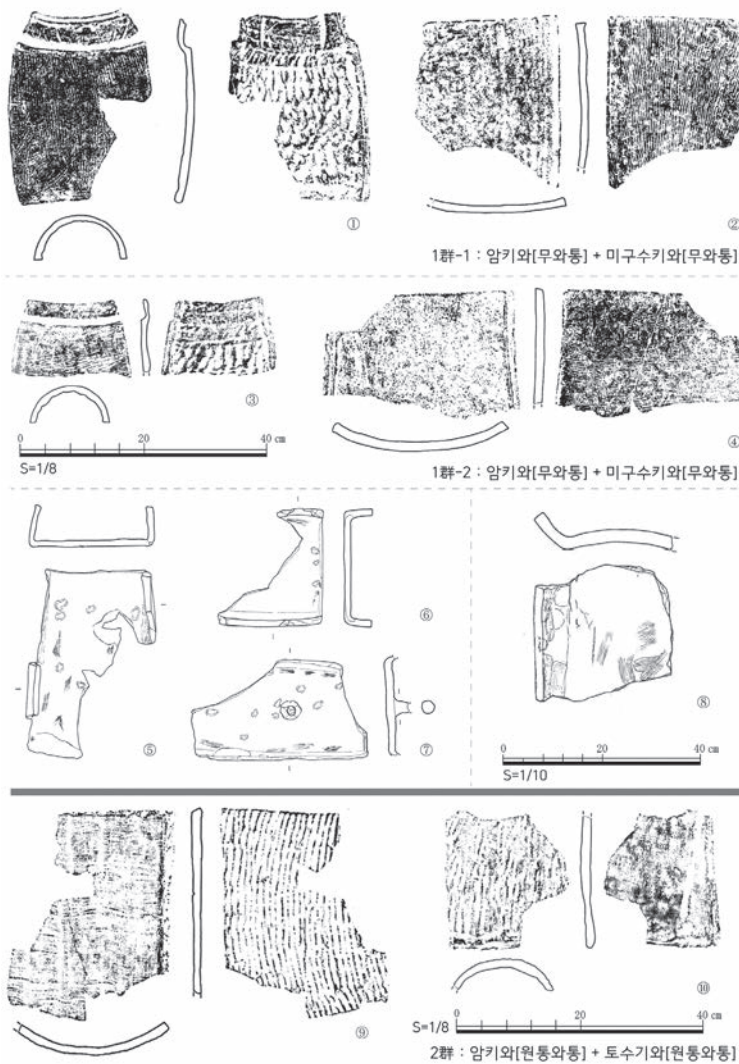
1群	암기와[무와통] + 미구기와[무와통]
2群	암기와[원통와통] + 토수키와[원통와통]

1群은 경주지역에서 늦어도 5세기말부터 제작과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와통 성형기법의 조합이다. 수키와로 미구기와의 형태를 취한 점, 토기 구연부형 암기와, 그리고 최근 월성 출토 사례⁵⁾와도 유사한 측면을 구부린 板形토제품의 공반 등은 신라 조와기술의 직접적인 유입을 증명한다

5) 월성 출토 사례에 대해서는 2016년 고고학회 발표(이인숙2016)를 통해 인지하였다.

【삽도1-①~⑧】. 강원도 정선군 松溪里山城에서도 동일한 조합의 기술군이 확인된 바 있어(최영희2008), 물천리유적의 기와를 표지로 삼고 있는 일련의 생산집단이 경주를 벗어나 지방의 주요 군사·행정시설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년산성에서는 타날흔 및 세부 제작방식의 매치를 통해 2종의 셋트관계(1群-1:【삽도1-①②】/ 1群-2:【삽도1-③④】)가 추출 가능한데, 전반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群은 원통와통으로 성형된 암키와와 토수기와의 조합을 보인다. 선문의 타날상태가 거칠어 생산시점의 동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색조 및 경질 소성의 상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군의 셋트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건조 후 타격분할, 점토판의 사용 등 제작공정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요소가 적용되었다.

신라 慈悲王 13년(470)에 3년에 걸쳐 조영되었다는 축성기록을 감안할 때, 두 기법이 구사되었던 지역은 신라의 영역 뿐이다. 삼년산성은 백제 멸망시 태종 무열왕이 전쟁을 관망한 곳이기도 하며, 삼국의 통합 이후에는 당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등, 오랜 기간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여 왔다(차용걸2008,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08). 발굴조사 결과를 보아도, 삼국시대 유물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라 이외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



【삽도 1】 보은 삼년산성 출토 평기와

다. 통일신라시대의 소산인 중판타날의 평기와도 다수 출토되고 있는 바, 삼년산성 출토 고대 기와는 신라 조와기술의 확산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淸州 父母山城 出土 평기와 청주 부모산성은 미호천 유역의 충적평야와 구릉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인 만큼,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로 이해되고 있다. 삼국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평기와는 크게 세 가지 기술群으로 나누어진다. 1群은 통쪽 간 폭이 비교적 넓고 연결흔이 드러나는 통쪽와통 I의 암키와를 표지로 삼을 수 있으며, 원통와통의 토수기와와 조합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지역에서도 통쪽와통 I의 흔적은 확인되나 그 수가 적고 출토지도 한정되는 반면, 백제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성형도구 중 하나인 만큼, 부모산성의 1群 역시 백제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맹식2013).

2群은 凹面에 승문이 남는 암키와(이하, 凹面승문 암키와⁶⁾)와 원통와통으로 성형된 토수기와의 조합으로, 이 기술군에는 凸面에 印章을 찍은 개체가 포함되어 추출의 유효한 기준이 된다(김병희2006). 인장과 및 凹面승문 역시 백

1群	암키와[통쪽와통 I] + 토수기와[원통와통]
2群	암키와[凹面승문] + 토수기와[원통와통]
3群	암키와[원통와통] + 토수기와[원통와통]

제, 특히 사비도성을 벗어난 외곽지역의 조와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凹面승문 평기와는 기본적으로 통쪽흔이 관찰되지 않아서 성형틀을 사용하였다면 원통와통에 가깝다는 점, 신라의 흔적만 확인되는 인천 계양산성(수키와), 정선 고성리산성(암·수키와) 등지에서도 확인되는 점, 충남 이하 지역의 사례 중 백제와 신라의 전적유적 출토품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의 특성을 갖는다. 대전 월평동산성, 계족산성, 봉산리산성이 대표예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 제작방식을 구사하였던 생산집단이 과연 일정 국적에 소속되어 그 수급범위에 제한을 두었던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3群은 원통와통의 암·수키와가 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타날 및 조정방식, 그리고 수키와의 규격 등을 통해, 뒤이어 설명할 종치형의 압날시문법이 이 기술군의 구성 개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都城과 差別되는 造瓦技法 : 압날시문법의 존재

앞서 언급한 유적에서 막새가 출토된 사례는 매우 적다. 그 중 삼년산성, 부모산성 출토품은 삼국의 도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압날 시문법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 기법이 삼국의 경계지역에서 형성·정착된 造瓦集團의 산물이며, 이 집단은 주로 해당 지역이 신라의 영향 하에 있었을 당시 생산과 공급을 영위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6) 이 형식에 대해서는 ‘승문통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 중에는 포흔과 함께 찍히는 사례가 많아서 통보(포)의 대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죽상모골’이라 불리워지는데, 수키와에만 나타나는 점, 보다 단단히 고정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관찰을 통한 객관적 현상을 우선시하여, ‘凹面승문 암키와’라는 임시 용어로 칭해두고자 한다.



【삽도 2】 부모산성 출토 연화문 수막새

본 글에서는 새롭게 확인된 제작기법을 소개하고, 그 기술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淸州 父母山城 出土 수막새 먼저 부모산성 출토 기와를 살펴보면, 3종(부모·수1, 부모·수2, 부모·수3)⁷⁾의 문양 모두 돌출된 지방 주위로 소판(素瓣)의 꽃잎과 T자형 사잇잎이 각각 8엽씩 배치된 모습이다. 꽃잎의 형태 및 비율이 불규칙한 편이며 대륜형 도구로 찍어 연자를 나타내는 등, 디자인 및 瓦範 조각을 포함한 施文 기술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 문양의 도안적 특징과 표현수법만으로는 제작 및 사용 주체의 국적을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제작방식은 모두 ‘중치형(縱置形)의 압날(押捺)시문법(수막[S]A有)⁸⁾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수막새의 제작이 작업대 위에 와범을 두고 점토를 채워나가며 성형과 시문을 동시에 행하는 것과 달리, 이 기법은

- 수키와 성형틀을 종방향으로 세운 상태(성형틀有)에서 포를 씌우고
- 드림새를 포함한 수막새(수키와는 분할 전 형태)를 함께 성형한 후
- 위쪽에서 와범을 눌러 찍어(압날식 : Stamp) 시문하고
- 불필요한 수키와의 하반부를 베어낸 뒤, 수키와 성형틀을 제거
- 조정과 정리

를 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황에 따라 드림새와 수키와부의 점토부착 및 와범 압날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 이 때

7) 본 글에서는 ‘와범별 문양’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문양의 세부 형태, 範傷의 공유와 진행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지만, 시문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작시기를 달리하는 同範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안의 표기는 ‘중원의 기와’(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2018) 게재 번호이다.

8) 본론에서 사용한 막새의 제작기법의 명칭은 ‘도구(와범 및 성형틀)’와 ‘시문방식’의 두 가지 기술요소를 기준으로 삼은 뒤 평기와와의 ‘접합기법’을 고려하여 구분·설정한 것이다. 또한 수막새와 암막새의 제작이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기법의 명칭과 개념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을 말해 둔다.



【삽도 3】 종치형 압날시문법의 복원안

수기와 배면과 그림새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포흔(a.과정)이, 수기와 하반부를 베어낸 자리에는 그 일부분인 돌대(d.과정)가 남게 된다. 특히 그림새 뒷면의 포흔은 통보의 한쪽 끝단을 모아 묶은 모습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삽도2】(a.과정).

부도산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는 일본의 기타무라 요시히로가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림새의 점토를 우선적으로 얹어 와범을 찍은 뒤 점토띠를 말아올려 수기와부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삽도3】의 ③·④단계(北村圭弘 2004). 수기와 분할과 성형틀 제거 후 그림새 뒷면을 중심으로 조정작업을 진행하였으나(d.과정) 부분적으로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그것이 수기와 배면까지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a.과정). 뒷면 중앙부에 점토가 뭉쳐 돌출되거나 포가 거칠게 겹쳐져 있는 흔적은 통보의 끝을 묶어 뒤집은 부분으로 여겨지며【삽도3-⑤】(a.과정), 보토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기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報恩 三年山城 출토 수막새 한편, 삼년산성에서 출토된 1종의 연화문 수막새(삼년·수)는 연자를 두었으나 따로 구획하지 않은 평면의 지방을 중심으로 끝이 반진된 8엽의 꽃잎을 돌린 모습이다. 백제에서는 熊津期 중국 南朝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大通寺式 수막새의 도안으로, 신라에서도 月城亥子, 勿川里遺蹟, 花谷里 生産遺蹟 등지에서 초기 수막새의 도안으로 사용되었다【삽도4】.

접합부는 결실되었으나 뒷면 하부에 돌대가 남아있어, 미분할 상태의 수기와를 부착 혹은 직접 성형한 뒤 필요 없는 하반부를 베어낸 ‘원통접합 후 분할법(수막[M]A)’, 혹은 부도산성의 사례와 같은 ‘종치형의 성형틀을 사용하는 압날시문법(수막[S]A有)’으로 성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새 뒷면의 포흔 여부를 통해 접합기법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턱면을 제외하고는 제작흔적을 말끔히 정리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포흔이 없었다면 와범을 아래에 두고 성형을 행하는 전자(수막[M]A), 포흔이 있었다면 그림새가 위로 향하도록 세워 성형한 뒤 와범을 찍어 시문하는 후자(수막[S]A有)에 해당할 것이다.



【삽도 4】 삼년산성 출토 수막새와 비교자료

백제의 경우 수키와가 외당 상부쪽으로 깊게 부착되는 ‘수키와피복접합기법(수막[M]Bc)’, 혹은 끝을 살짝 베어 돌린 수키와를 드림새 모서리에 결구되도록 부착하는 ‘수키와가공접합기법(수막[M]B b-β)’으로, 경주의 경우 드림새 충전식의 원통접합 후 분할법(수막[M]A 無)으로 제작되어, 같은 문양형식의 수막새라 하여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경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 중에는 드림새 뒷면에 포흔을 남긴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만【삽도4-④】, 포흔이 수키와의 배면으로 연결되지 않고 돌대 아래에서도 확인되며 수키와는 성형틀 없이 점토 띠를 말아올려 제작되었기 때문에, 압날시문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키와의 성형·부착 작업 이전에 드림새 뒷면에 포를 덮어 정리한 결과로 추정된다(최영희2010). 그러나 자료의 추가와 함께 신라의 도성 내에서도 압날식 시문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만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삽도 5】 계족산성, 봉산리유적 출토 수막새

기타 유적의 수막새 한편, 대전 계족산성(溪足山城)과 조치원을 봉산리산성(鳳山里山城)⁹⁾에서도 종치형 압날식 문법(수막[S]A有)으로 제작된 수막새가 확인되었다. 특히 계족산성 출토 연화문 수막새는 문양형식과 측면의 선문 타날을 비롯한 조정방식이 삼년산성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어 눈길을 끈다【삽도5-①②】. 봉산리산성의 수막새는 다소 이례적인 도안의 연화문을 시문하였는데, 6엽 혹은 7엽으로 추정되는 꽃잎은 볼륨감이 크고 내부에는 중앙선을 배치한 모습이 단단히 맺힌 봉오리 같기도 하다. 꽃잎의 끝이 뾰족하여 一見 漢城期 수막새의 연화문, 혹은 中國 北魏의 연화문처럼 보이기도 하나, 표현수법의 상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부모산성, 계족산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드림새 뒷면에서 수기와 배면으로 연결되는 포흔이 명확히 확인되었다【삽도5-③~⑤】.

이상의 자료는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이자 군사적 요충을 담당하는 산성 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유물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적어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는 각 유적 및 공반 유물의 전반적 양상을 통해 양국의 대립이 극대화되었던 6세기중엽 이후부터 7세기중엽까지의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계족산성과 부모산성, 봉산리산성에서는 압날식 시문법의 수막새 뿐 아니라, 죽상모골기와(竹象模骨瓦)¹⁰⁾, 인장와(印章瓦), 통쪽과 그 연결흔이 모두 남는 암키와와 같이 백제계로 인식되고 있는 평기와도 함께 공반되었으며, 삼년산성과 봉산리산성에서는 백제 한성기, 신라의 초기기와에 사용된 무와통(無瓦桶) 성형방식의 평기와가 같은 구역에서 출토 및 수습되었다. 다만, 삼년산성에서는 백제의 소산으로 단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으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2005), 계족산성 역시 기와의 연대와 맞닿는 6세기중엽 신라에 의해 축조·운영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2001), 죽상모골기와(혹은 노끈·갈대 통보를 사용한 기와)와 같이 주로 도성 외곽에서 발견된 조와기법을 반드시 백제, 혹은 신라의 기술로 선을 그어 규정하는 기존의 인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치형 압날식 시문법 역시 지방에서 고안된 기술적 열세(劣勢)의 흔적이 아닌, 조와기술의 유입과 함께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일정 수급권을 형성하며 생산을 영위한 재지 조와집단(在地造瓦集團)의 독자적 결과물일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기술정보의 유입경로와 형성과정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예상된다. 종치형의 압날식 시문법은 한동안 일본의 하쿠호시대(白鳳時代)부터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걸쳐 사용된 일본 특유의 조와기법(이른바, 一本作¹⁾)처럼 알려져 왔으나, 낙랑토성(樂浪土城) 출토품 중 같은 기법의 수막새가 포함되어 있고(谷豐信1984), 桂宮 출토품을 비롯하여 중국 漢代의 도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2012)이 차례로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존재는 여전히 공백상태로 인식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므로, 위에서 나열한 현충북·충남지역의 확인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공간적 차이가 큰 만큼, 중원지역의 이 기법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고대 기술의 흐름과 그 형

9) 봉산리산성 출토 수막새는 이주열(세종특별자치시)에 의해 조사 및 수습되어(이주열2011), 소재유에 의해 백제 웅진기 기와로 발표·보고된 바 있다(소재유·김경애2014). 본고에서 제시한 유물【삽도5-③~⑤】 역시 이주열씨가 수습한 동범탄계의 연화문 수막새 편으로, 제작흔적이 잘 남아있는 개체에 한하여 수습자의 허락을 받아 보고하였음을 밝힌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10)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죽상모골기와'의 용어는 대나무 모양의 모골, 즉 평기와의 성형을 자체가 가는 통쪽을 연결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대상 유물은 노끈, 혹은 갈대와 같은 식물질 재료를 엮어 점토와 성형틀의 分離材인 통보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물에서 관찰되는 현상의 유사성만으로 일본의 용어가 오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내에서는 양자의 경

성방식이 반드시 중앙-지방의 종속적 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3. 新羅 慶州式 造瓦技法의 流入과 變形

삼국시대 중원지역에서 제작·사용된 기와 중 도성에서 구사된 조와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기와도 확인되는데, 무엇보다도 막새를 통해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례로 경주의 고신라식(古新羅式) 기법 및 문양이 반영된 충주 탑평리유적과 제천 장락사지 출토 수막새·암막새를 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기술정보의 유입 정도와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재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新기술정보의 충실한 반영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無文의 주연 안쪽으로 끝이 뾰족하고 중앙에 능선을 배치한 꽃잎과 사잇잎을 각각 6엽씩 돌린 연화문 수막새(탑평·수3)【삽도6-①~③】는 國原城 혹은 國原小京의 심벌처럼 여겨져 왔다. 문양에 대한 평가도 고구려계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신라계로 보는 의견, 혹은 백제를 포함하여 다국적 요소가 혼합되었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유창종1981, 장준식1981, 다후쿠 료2007, 김성구2012, 김유식2012), 이 역시 중원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진행된 오랜 논의의 일부이다.

제작방식을 살펴보면, 와범에 점토를 채워 드림새를 성형한 뒤 분할이 끝난 수키와를 부착하는 ‘수키와 분할 후 접합기법(수막[M]B)’ 가운데 백제와 신라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수키와 피복접합기법(수막[M]Bc)’으로 확인된다¹¹⁾. 동범관계의 개체라도 주연의 두께에 차이가 있고 한 개체 내에서도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연부(外區)를 시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개방형(주연부 미설정) 와범’의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a, 【삽도11】의 도식 참조). 접합이 끝나면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탑평리유적 출토 연화문 수막새는 드림새 뒷면과 측면을 선문이 새겨진 타날판으로 두드리고 주연의 표면은 거칠게 깎아 정리하였다. 석립의 함유량이 적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회백색 및 회황색, 혹은 붉은색을 띠고, 소성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손에 점토가 묻어나는 점 또한 이 기법으로 제작된 기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제작기술적 양상을 보이는 수막새는 탑평리유적과 장락사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탑평리유적에서는 총 4개의 와범별 문양¹²⁾이 확인되었다. 탑평·수1은 연자가 없는 자방과 타원형에 가까운 6엽의 꽃잎이 매우 특징적이며, 같은 도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경주 월성해자, 皇龍寺址, 東宮과 月池의 하층 유구 등지에서 출토된 문양 형식과 닮아있다【삽도6-④⑤, 마·바】. 탑평·수2는 6엽의 꽃잎에 능선을 배치한 모습으로, 이른바 신라계 연화문 수막새의 도안을 사용하였다. 이 문양형식은 7세기전·중엽경 복수의 생산지에서 다량의 同形이 생산되어 월성해

11) 유물 관찰시 주연이 파설되거나 주연 안쪽이 조정된 상태에서는 수키와의 단부가 주연의 점토를 충전한 뒤쪽에 위치하는지, 수키와 자체가 주연을 이루도록 깊이 삽입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12) 同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異範 관계로 상정해 둔다.



【삽도 6】충주 탕평리유적 출토 수막새 (가~자:비교자료)

자, 황룡사, 芬皇寺를 비롯한 경주지역 전역에 공급되었으며, 제작방식 또한 정형화된 양상을 보여 모두 같은 접합 기법(수막[M]Bc)으로 확인된다(최영희2014)¹³⁾. 특히, 분황사와 九皇洞園池 출토품을 살펴보면, 드림새 뒷면과 측면을 격자문 타날구로 두드려 정리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관성을 추정케 한다【삽도6-⑥~⑧, 사~자】. 그런 가하면, 이 시기 경주지역 수막새 중에는 끝이 뾰족한 꽃잎 안에 능선을 배치한 연화문의 개체도 존재한다. 분황사 창건와(善德女王 3년 : 634년) 중 하나로 알려진 단판연화문 수막새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삽도6-가·나】. 물론 탕평·수3·4는 6엽의 배치, 큰 볼륨감, 꽃잎과 사이잎의 유려한 반전 등 경주지역의 신라기와와 비교하여 다소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나, 능선의 사용, 자방 둘레의 돌선과 같은 표현이 유사하며, 무엇보다도 접합 및 조정(타날)방식이 같다는 점에서 신라의 영향에 설득력을 더한다【삽도6-①~③, 가~라】.

13) 필자는 경주 내 신라계 연화문 수막새의 출현·확산,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일련의 기술적 변화에 대하여, 신라가 기술집단의 재편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적 조와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최영희2014).



【삽도 7】제천 장락사지 출토 수막새

한편, 장락사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수막새를 살펴보면, 장락·수8의 경우 탐평·수3·4와 同形의 문양이지만, 꽃잎의 섬세한 굴곡은 잘 표현하지 못해 마치 돌출부가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등 시문의 숙련도가 떨어진다【삽도 7-③】. 장락·수1·2는 문양이 새겨지지 않은 와범으로 성형한 뒤 드림면에 연화문을 거칠게 線刻하거나 印花文을 찍어낸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삽도 7-①②】. 장락·수9·10은 중앙에 능선을 배치한 6엽의 평면형 꽃잎과 십자형으로 마감된 사잇잎을 배치한 단판 연화문 수막새이다. 이 문양형식은 부여지역의 백제 사비기 수막새와 경주지역의 신라 고식 수막새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경주에서는 6세기대부터 등장하여 주된 문양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잇잎이 아닌 꽃잎의 능선으로 사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興輪寺址,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출토 수막새 등에서 보이는 십자형의 표현도 눈길을 끈다【삽도 7-④⑤, 가】. 장락·수15·17의 複瓣 연화문 역시 7세기전엽을 즈음하여 신라 경주에서 나타나는 도안적 특색 중 하나이다. 장락·수15는 芳內里古墳群 출토 품, 甌區의 외연에 연주문을 돌린 장락·수17은 분황사 창건 수막새의 한 형식과 매우 닮아있다【삽도 7-⑥⑦, 나~마】. 필자는 개방형 와범에 의한 무문 주연과 조합된 복엽 연화문 및 연주문의 도안에 대해,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唐의 조와기술을 수용한 근거로 이해·제시한 바 있다(최영희 2010·2014).

이처럼 장락사지에서는 탐평리유적 수막새와 동범으로 제작한 개체는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문양유형이 제작·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거친 문양의 표현과 더불어, 사발을 얹어놓은 듯한 형태와 조잡한 접합 및 보토상태 등은 기술적 숙련도 또한 탐평리유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키와 피복접합 기법, 드림새 뒷면의 타날조정 등 탐평리유적의 사례와 기본적인 기술 요소는 거의 동일하다. 장락·수17은 주연이 마련된 위에 수키와를 중첩하여 피복시킨 접합기법(수막[M]B-β)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같은 문양형식이 등장하는 대표 유적인 분황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탐평리유적과 장락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7세기전엽 이후 신라의 도성인 경주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조와기술의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세부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양상이 충실히 반영된 것은 중앙 공인이 직접 이동하거나 또 다른 방식의 직접적 기

술전수를 통해 제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그 지표유물로서 분황사 출토 수막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주지역 내에서도 분황사와 구황동 원지의 조영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일련의 기와는 앞서 언급한 접합·조정방식의 특징을 통해 구별이 용이한 편인데, 그러한 기술적·양식적 요소가 중원의 국원소경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유적별 출토품에서 드러나는 시문·기술 정도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탑평리유적)와 유입된 정보가 주변으로 전해지면서 나타나는(장락사지)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기와 사용에 있어서는 탑평리유적의 독보적 위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중앙의 기술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된 수막새가 극히 소수의 유적에만 사용된 것은 일정 관리집단에 의해 한정된 생산 및 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신라계 연화문 수막새의 출현과 유행이 경주지역 내에서 신라 조와체제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일정 도안과 일정 제작방식의 제작 매뉴얼을 복수의 생산지에서 공유하게 되는 현상은 건축자재의 항시적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체제의 변화상이라 할 수 있는데(최영희2014), 이러한 전개 속에서 지방의 주요 도시로도 이러한 매뉴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울산지역, 경상북도 상주지역 등지에서 보이는 고식의 연화문 수막새가 모두 경주의 신라계 연화문 수막새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재래공인의 융통적 생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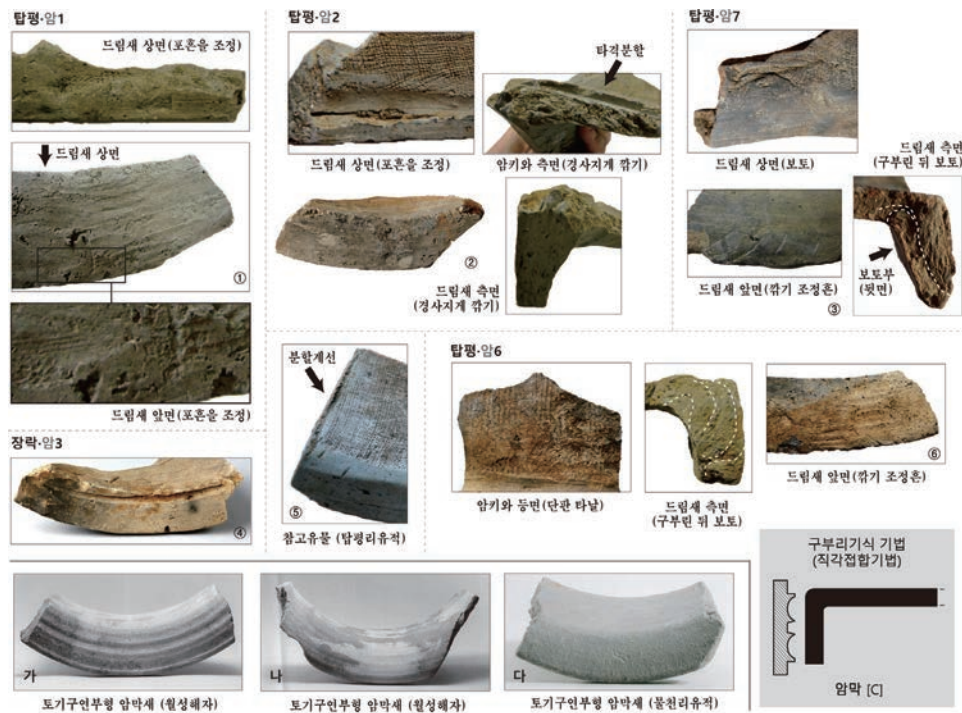
탑평리유적, 장락사지에서는 앞서 설명한 수막새와 셋트관계로 추정되는 암막새도 확인되었는데, 무문(無文) 암막새와 당초문(唐草文) 암막새 두 종류이다. 주목되는 것은 양자(兩者) 모두 와범에서 드림새를 성형한 뒤 그 뒷면에 암키와를 접합하는 일반적 제작방식이 아니라, 암키와 끝을 구부리거나 직각으로 꺾어서 드림새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일종의 암키와 변형사례인 것이다.

① 무문 암막새

무문암막새는 탑평리유적과 장락사지에서 모두 확인되며, ‘구부리기식 기법(암막C)’으로 제작되는데,

- a. 암키와의 한쪽 단부를 거의 직각이 되도록 구부려(Curve) 드림새를 형성하고
- b. 꺾인 부분과 드림새 주변을 중심으로 점토를 덧붙여 보완(보토)한 뒤
- c. 타날, 물손질, 깎기 등의 조정작업을 통해 전체 성형을 완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드림새의 표면은 거칠게 깎기 및 물손질한 것이 대부분이나, 세밀한 관찰을 통해 암키와 배면과 연결되는 포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a.과정【삽도8-①】). 이후 얇아진 부분을 중심으로 드림새 쪽을 향해 점토를 덧붙이다보니 암키와부에 비해 드림새가 훨씬 두꺼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양상이 일정치 않은 만큼 두께도 고르지 않다. 측단면에는 점토가 겹쳐진 흔적인 잘 남아있다(b.과정【삽도8-③⑥】). 보토된 부분은 편평하게 정리하고【삽도8-①~⑥】 암키와 성형에 사용하였던 타날구로 두드리기도 하는데(c.과정【삽도8-⑥】), 별도의 문양을 장식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공정은 일정한 틀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따라서 반대 면에서 받쳐주어야 용이한 압날 시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드림새의 크기를 결정하는 성형틀이 없다면 드림새의 높이



【삽도 8】충주 탐평리유적과 제천 장락사지의 무문암막새 (가~다:비교자료)

도 3.0~5.5cm로 일정치 않은 편이다¹⁴⁾. 그 중에는 드림새에 횡방향의 홈을 내어 장식처럼 보이는 개체도 확인된다【삽도8-④】.

중원지역의 무문 암막새는 유문 암막새가 등장하기 이전에 제작된 암막새의 초기형식으로 관심을 모아왔고, 형태만으로 본다면 신라 물천리요지,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토기구연부형 암막새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무문 암막새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미 성형·분할 단계를 거친 암기와를 변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부여 부소산성에서도 출토되는데, 부여의 사례가 통쪽와통에서 성형된 것과는 달리, 통쪽흔 및 그 연결흔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원통형와통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특히, 측면의 배면 쪽에는 분할시 크기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형틀에 장착하여 표지로 삼은 흔적인 분할계선이 명확히 남아있으며【삽도8-⑤】. 분할표지를 따라 와도로 그어둔 뒤 건조 후 타격분할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삽도8-②】. 이러한 점들은 통일신라시대를 넘어 고려·조선시대까지 남은 정형화된 신라의 기술요소로, 그 상한이 언제까지 소급되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5세기말부터 등장하는 토기구연부형 암막새와는 연결점을 찾기에 무리가 있다. 단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드림새의 끝을 사선으로 베어낸 행위가 일반적인 암막새가 지닌 드림새의 형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즉 와범성형을 통한 암막새의 모방형식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삽도8-②】.

14) 드림새의 크기(높이)는 본서의 유물 계측치와 더불어 장준식의 저서(장준식1981)에 게재된 <표2>의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15) 정식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월성 내부 조사에서도 통쪽와통의 암기와를 변용한 유단식 암기와가 확인된 바 있다(『신라 왕궁 월성, 전시품을 참조함』).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문 암막새가 앞서 설명한 7세기전엽 경의 연화문수막새와 공반되었다는 점¹⁶⁾, 등면에 단판 형식의 타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수막새는 중앙계 기술의 직접적 유입을 통해 형성된 반면, 암막새는 그 존재에 대한 정보만이 유입되어 모방제작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에서 와범을 통해 드림새를 성형 및 시문한 암막새의 출현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7세기중엽보다 올라가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四天王寺址와 동궁과 월지의 창건와에서 확인되는 無頸式 당초문 암막새【삽도8-나 참조】가 바로 그것이다. 수막새 조와집단의 원류로 제기한 분황사에서 암막새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문양과 형태를 가진 암막새가 일본에서는 7세기초에 창건되어 670년 全焼된 法隆寺의 若草伽藍에서 출토되었고 坂田寺의 7세기 2사분기에 해당하는 수막새와 섯트관계로 사용된 것을 감안할 때(奈良文化財研究所 2000·2007)【삽도10-가~다 참조】, 신라에서도 그 시기가 7세기전엽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즉, 중원지역의 무문암막새는 7세기 전·중엽경에 출현한 암막새의 제작·사용에 대한 기술정보가 경주식 수막새 제작기술이 유입된 이후, 혹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간접적인 경로를 따라 전해지면서, 재지공인(혹은 재지공인으로 정착한 중앙계 공인)의 융통성 있는 고안을 통해 탄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최근 경주 월성 내부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토기구연부형 암막새(혹은 기능성 기와)를 비롯하여(이인숙2016) 다양한 형식의 유사 암막새가 다수 출토된 상황이 알려져 있는 만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2018), 무악식 암막새가 창출되기 이전에 무문의 암막새가 보편화되고 이것이 중원지역에 전달되었을 가능성, 혹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암기와가 도성에도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② 당초문 암막새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당초문 암막새는 지금까지 삼국 시대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암기와의 등면에 단판으로 추정되는 타날이 확인되며 태토 및 소성상태 또한 고신라식 수막새 및 무문암막새에 가까워 그 시기가 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모티브의 당초를 시문한 두 가지의 와범별 문양이 확인되었는데, 대림산성 수습품 중에는 또 다른 배치양상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삽도9】. 통일신라시대의 무악식 암막새에 장식되는 당초문과 다소 차이가 느껴지며,



【삽도 9】충주 대림산성 출토 기와

넙쿨이 묶여지고 갈라지는 흐름이 매우 유려하여 막새 보다는 삼국시대의 금속공예품에 장식되는 도안에 가깝다.

중요한 점은 이 암막새 또한 예외적인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드림새 상부에 남아있는 포흔을 통해 무문암막새와 같이 암기와 끝을 구부려 변용된 개체임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구부리기식 기법이 적용된 압날시문법(암막 [S]C·직-b)’으로 다음과 같은 성형공정이 확인된다.

16) 두 종류 막새의 공반 및 섯트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장준식과 김유식의 논고를 통해 설명된 바 있다(장준식1981, 김유식 2012). 특히 김유식은 타날에 의한 제작 기법의 유사성을 함께 언급하였다.



【삽도 10】충주 탑평리유적의 당초문 수막새 (가~다:비교자료)

- 성형 및 분할이 끝난 날장의 암키와를 직각에 가깝게 ㄱ자로 꺾인 면을 갖는 작업대(직) 위에 걸쳐 놓고, 점토가 작업대에 붙지 않고 원활히 분리될 수 있도록 포(-b)를 깎는다.
- 암키와의 한쪽 단부를 거의 직각이 되도록 구부려(Curve) 드림새를 형성하고,
- 문양이 조각된 와범을 눌러 찍어(압날식 : Stamp), 드림새를 시문한다.
- 기와를 작업대에서 분리한 뒤, 드림새 뒤쪽과 암키와 등면을 중심으로 점토를 덧붙여 보완(보토)하고
- 타날, 물손질, 깎기 등의 조정작업을 통해 전체 성형을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대에 깔았던 포의 흔적이 드림새 뒷면에 찍혀 남게 되는데(a.과정), 이 속성이 암막 [S]C · 직-b기법과 구부리기식 기법(암막C)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 무문암막새와 마찬가지로 꺾이면서 얇아진 부분과 드림새 뒷면을 중심으로 점토가 도포되면서(c.과정), 다양한 조정도 행해진다(d.과정)【삽도10-①~③】. 암키와 등면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물손질되고 현존상태의 제한도 있어, 포흔의 유무 및 곡률의 변형 정도를 통해 작업대의 형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압날식 와범의 형태 또한 드림새의 양측 끝단이 사천왕사지, 동궁과 월지의 무악식 암막새처럼 시문 후 베어진 상태이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횡지형 압날시문법의 당초문 암막새는 드림새가 암키와 등면 쪽으로 돌출되어 일견 일반적인 유악식(有顎式) 암막새와 동일한 개체로 인식되기 쉬우나, 변용제작의 과정을 통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주지역에서 등장한 무악식 당초문 암막새의 존재가 이 지역에 전해진 뒤, 제작 방식을 알지 못하는 재지공인(혹은 재지공인으로 정착한 중앙계 공인)은 나름의 고안과 방식을 통해 같은 형태, 같은 기능의 암막새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암키와는 원통형와통과 단판의 타날구를 사용하여 성형되어, 기본적으로 무문암막새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드림새의 시문을 위해 성형틀과 구분되는 작업대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현 시기 또한 무문암막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악식 암막새가 등장한 7세기전·중엽부터 뒤이어 설명할 통일신라식 막새의 제작기술이 중원지역에 도입되기 이전, 즉 700을 전

후한 시기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나, 무문 암막새가 당초문 암막새의 단순화된 형식으로 후행(後行)할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문양의 유무는 장식적 요소인 만큼 반드시 기술적 조건의 일부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암막새는 현재까지 탑평리유적과 대림산성에서만 수습되었으며, 장락사지에서는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간접적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유입·제작된 건축자재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고대의 막새는 건물의 기능과 위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옛 국원소경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는 데 있어 탑평리유적과 대림산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Ⅲ. 中原地域 統一新羅時代의 造瓦樣相

신라는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을 통합한 이후, 지방의 행정구역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지방의 물질문화, 그 중 기와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일신라 기와 연구의 주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라 9州5小京 중 中原京에 해당되는 충주 탑평리유적과 근접한 제천 장락사지에서는 삼국시대의 막새에 뒤이어 경주지역 출토품과 비교하여도 도안의 섬세함과 제작의 숙련도에 손색이 없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상화문 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새가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신라시대에 현 충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기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막새의 분포는 매우 한정적이지만, 7세기말~8세기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확산된 중판타날, 즉 횡방향의 회전력만 이용하는 평기와의 제작에 적절히 고안된 기와 전용 타날구 및 그 사용방식이 적용된 기와가 중원지역의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 統一新羅式 造瓦技法의 재유입

7세기후엽이 되면, 경주지역 기와의 제작과 사용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막새의 경우, 암키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주연을 시문 범위에 포함시키는 외곽 2단(계단형)의 와범과 드림새의 둘레를 감싸는 보조 와범의 사용을 통해 장식적 효과와 더불어 크기와 형태가 보다 견고히 유지된다. 또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롭고도 다양한 모티브(보상화문, 사자문, 기린문, 가릉빈가문, 포도당초문 등)가 도안으로 활용되고, 複瓣·重瓣 구조의 연화문 수막새가 주류를 이루면서, 지붕의 분위기도 새롭게 바뀌었을 것이다. 연목와와 같은 처마장식기와의 귀면와, 망새, 모서리암막새 등의 마루장식기와를 도입하여 지붕 의장의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반면, 성형방식은 '수기와 후면접착기법(수막[M]a)'으로 정형화되며,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수기와 단부를 굽어내거나 針線을 넣어 요철을 마련하는 방식도 널리 확산된다. 한편, 평기와는 그 변화시기가 막새에 비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되나, 중판 타날구의 도입과 함께 소량화·경량화되고, 토수기와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최영희2014).

중원지역 내에서 이상의 변화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단연 國原小京 및 中原京의 후보지 중 한 곳인 탑평리유



【삽도 11】 중원지역의 통일신라식 막새 (가~라:비교자료)

적이다. 무엇보다도 막새의 문양이 경주지역의 그것과 큰 차이 없이 세련된 모습을 보이는데, 도안 역시

【삽도11】 중원지역의 통일신라식 막새 (가~라:비교자료)

화곡리, 동산리, 금장리 생산유적의 수막새와 동일한 표현수법 및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 요소도 크게 다르지 않아, 수막[M]a기법의 접합방식과 함께 계단식 와범의 흔적이 확인된다. 귀면와가 등장하고【삽도11-⑤】, 횡방향의 폭은 넓히면서 드림새 뒷면의 하단은 깎아낸 장락사지의 수막새는 이른바 타원형 수막새의 제작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삽도11-⑥】.

이러한 조형적·기술적 특성은 I 장에서 설명한 중원의 삼국시대 막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들로, 삼국의 통합 이후 신라 도성의 조와기술이 또 한 번 유입되어 기존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바꾸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새로운 생산집단의 이동에 의해 주도적 기술집단의 교체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이전에 형성된 재지집단이 새로운 기술정보와 매뉴얼을 받아들여 동일 공방 내에서 기술적·제도적 재편을 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주 내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통일신라식 조와체계를 단기간 내에 정착시킨 것을 고려한다면(최영희2014), 중원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혹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축적된 제작방식을 고수한 공인들이 별도로 기와제작을 영위해 나가면서 양방향의 전개가 이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중원지역에 통일신라식 조와기술이 적용되는 시점은 경주내 중판타날의 확산·정착과 드림새 문양의 출현·존속 등을 등을 감안할 때, 7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비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황인호는 구획시설과 성곽유적의 존재양상, 그리고 누암리고분군의 부장품과 양식 및 부호까지 동일한 신라토기, 6엽의 단판 연화문수막새 등 6~7세기대에 해당되는 신라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현상을 통해, 국원소경의 중심지는 탑평리유적에 세워졌으나 삼국통합 이후 현재의 충주시내가 위치한 충주분지로 이전하여 중원소경의 治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황인호2013). 경주계 조와기술과 조형적 특성을 갖춘 7세기말~8세기전엽

경의 기와들이 눈에 띄게 탑평리유적에 집중되어 출토되고 있으며, 반면 충주지역을 비롯한 중원지역 전역에서 8~9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는 막새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현상이 탑평리유적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것인지, 조사상황의 제약 및 한계에 따른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중원지역의 고대 도시를 복원해나가는 데 있어 수막새·암막새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在來式 造瓦技法의 유지

한편,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모두 중앙의 제작양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삼국통합 이전에 출현한 재지의 기술요소가 통일신라시대에도 존속·사용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원주 居頓寺址에서는 꽃잎에 능선을 가지고 주문은 無文으로 표현한 단판 연화문을 시문하고 미분할 상태의 통형 수키와를 부착한 뒤 필요 없는 하반부를 베어낸 수막새가 확인되었다【삼도12-①~⑤】. ‘원통접합 후 분할법(수막[M]A)’, 혹은 부모산성 출토품과 같은 ‘종치형의 압날시문법(수막[S]중)’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 또한 문양과 성형방식만 보면 삼국시대의 기와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으나, 유구의 상황 및 전반적으로 羅末麗初를 소급하지 않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시간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수막새와 동범·동기법의 개체가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내 건물지 부근에서 거돈사지에서도 확인된 당초문 암막새, 그리고 라말여초부터 등장하는 長板타날의 격자문 암키와와 공반되어, 시간적 위치를 증명한다【삼도12-⑥⑦】.

한편, 원주 法泉寺址에서는 주연이 無文인 素瓣의 연화문 수막새 1종이 발견되었다【삼도12-⑭】. 배수로 조사과정에서 수습되어 사용 건물의 확인은 어렵지만, 법천사지에서 가장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유물 중 하나로, 삼국이 통합되기 이전으로 소산으로 편년되기도 한다. 古式의 문양형식과 함께 법천사에서 확인된 수종의 수막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키와 피복접합기법’의 제작방식 만으로도 시기를 올려볼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주연부의 바깥쪽이 돌출되어 있어, 와범 제작시 이미 주연의 폭을 의식한 구조의 와범(계단형 와범)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 유적 모두 단판타날의 평기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중판타날의 기와 역시 유구를 벗어난 지점에서 소량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후일 하층유구의 조사를 통해 창건기 이전에 조성된 건물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삼국시대의 조형적·기술적 요소가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비슷한 사례로, 본서의 내용에 담긴 영동 계산리유적의 보상화문 수막새(계산·수1)는 문양의 모티브와 ‘수키와 피복접합기법(수막[M]C-a)’, 작은 드림새의 크기(직경 13.3cm)의 고식적 요소와는 달리, 수키와에는 장판의 어골문이 타날되어 빨라도 고려시대 초 이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보상화문 수막새는 신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유행하였다는 인식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소산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중원지역에는 꽤 늦게까지 그 유려한 도안을 유지하여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삼도12-⑧⑨】.

또한 청주 북대동유적의 단판 연화문 수막새(북대·수1)는 무문의 주연과 단순한 문양 구조, 와범에 포를 깔아 드림새면에 포흔이 남도록 한 독특한 제작방식 등으로부터 시기를 올려보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수키와 후면접착기법(수막[M]a)’과 제한된 구역에서 공반된 유물의 편년 등을 고려할 때 역시 나말여초의 시기를 상회하기 어렵다【삼도12-⑩⑪】. 음성 양덕리유적 출토 연화문 수막새(양덕·수1) 역시 무문의 주연과 점토피를 말아올린 뒤 거



【삽도 12】 중원지역의 각종 기와

칠게 선문을 타날한 수키와부의 전반적 양상이 삼국시대로 편년될 수 있으나, 유적 내의 출토 상황 및 공반 기와의 양상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를 훌쩍 넘긴 것을 알 수 있다【삽도12-⑫⑬】.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중앙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지방의 시·공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원지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조와기법들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기와의 제작자들 가운데에는 일정 제도권 내에 소속된 상태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집단 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던 공인집단도 존재하였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보다 오랫동안 재래의 방식을 유지·구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시·공간적 간극을 수정하고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문양, 기술요소, 막새·평기와·처마끝·마루끝 장식기와 등 타종류와의 조합상, 타유물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중원지역 기와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한 가지가 아닐까 한다.

IV. 맺는말

본 글에서는 신라의 기술 계통을 가진 기와를 중심으로, 고대 중원지역에 조와기술이 유입된 후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정착되며, 통일신라시대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전개를 보이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원지역은 삼국 각축의 장이자 후일 고려의 건국에 기여한 중요 호족들의 세력권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작·사용된 막새는 유적의 국적을 결정하고 세력자의 위세를 표현하는 자료로서 관심을 모아왔으나, 그 시선이 생산과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상황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량의 자료를 한 곳에 집성하여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도성의 주된 정보를 수용하면서도 나름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생산집단을 형성·발전시켜나간 이 지역만의 기술력

과 원동력, 그리고 이후의 조와양상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흐름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중원지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와기법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제작방식의 차이를 추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형과 기술에 담긴 다양한 양상을 통해 생산주체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고고학적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자료의 확보를 이어나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國文 (가나다順)

국립경주박물관, 2000, 『新羅瓦塼』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製瓦匠』

국립부여박물관, 2010, 『百濟瓦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중원의 와당』

김 병희, 2006, 「청주 부모산성 출토 백제 인각와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 23집, 한국고대학회

김 성구, 2012, 「중원기와의 전개와 주요유적의 기능전환」, 『중원문화와 기와』 제9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김 유식, 2003, 「중원지역의 삼국시대 와당 검토」, 『佛敎美術』, 동국대학교 박물관

김 인한, 2012, 「중원지역 기와 출토 유적 현황과 성격」, 『중원문화와 기와』 제9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다후쿠 료, 2007, 「長樂寺址 出土 수막새 檢討」, 『충북의 기와-제천 장락사지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제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박 성현, 2012, 「신라 통일기 州·小京의 성곽과 그 활용 -漢山州와 國原小京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21집, 한국성곽학회

소 재운·김 경애, 2013, 「세종시 봉산리산성 및 수습 백제기와 소개」, 『성곽과 기와』 국제학술대회 한국기와학회·한국성곽학회

신 창수, 2007, 「장락사지 출토 암막새 검토」, 『충북의 기와-제천 장락사지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제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영남대학교박물관, 2008, 『嶺南大學校博物館所藏遺物目錄集-瓦塼』

이 인숙, 2016, 「월성 A지구(서편지역) 출토 삼국시대 기와 검토」, 『제4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이 주열, 2011, 「봉산리 산성」,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충남지역 향토사연구 사료집』, 한국 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 유 창중, 1981, 「증원 탑평리 출토 6엽 연화문 수막새」, 『藥城文化』 2
- 장 준식, 2007, 「제천 장락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충북의 기와-제천 장락사지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제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 장 준식, 1981, 『신라증원경연구』, 학연문화사
- 차 용걸, 2008, 「증원의 산성」, 『증원의 산성』, 국립증원문화재연구소
- 충주시·예성동호회, 1991, 『忠州·中原地域 出土 瓦當圖錄』 예성문화 12호 별책
- 최 맹식, 2006,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 최 맹식, 2007, 「장락사지 출토 평기와에 관한 검토」, 『충북의 기와-제천 장락사지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제4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 최 맹식, 2013, 「父母山城 출토기와에 관한 小考」, 『한국성곽학보』 24집, 한국성곽학회
- 최 태선,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對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 영희, 2008, 「강원지역 기와에 대한 고찰」, 『추계학술대회-강원지역의 역사고고학-』, 江原考古學會
- 최 영희, 2010, 「新羅 古式수막새의 製作技法과 系統」, 『韓國上古史學報』 제 70호, 한국상고사학회
- 최 영희, 2014, 「統一新羅式기와의 성립과 造瓦體制의 변화」, 『嶺南考古學』 제 70호, 영남고고학회
- 황 인호, 2013, 「國原小京에서 中原小京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호, 중부고고학회

日文 (연대順)

- 島田貞彦 1935 『造瓦』岡書院
- 龜田修一, 1981, 「百濟古瓦考」, 『百濟研究』第12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龜田修一, 2006, 『日韓古代瓦の研究』, 吉川弘文館
- 龜田修一, 2009, 「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傳播』,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谷 豊信, 1984, 「西晉以前の中國の造瓦技法について」, 『考古學雜誌』第69卷 第3號, 日本考古學會
- 小林行雄, 1964, 「Ⅳ屋瓦」, 『続 古代の技術』, 塙書房
- 龜田修一, 1996, 「韓半島南部地域の瓦當裏面布目軒丸瓦」, 『碩晤尹容鎮先生退任紀念論集』
- 北村圭弘, 2004, 「縦置き型一本作り軒丸瓦製作技法とその地域的変容」, 『金沢大学考古學紀要』 27, 金沢大學文學部考古學講座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7, 『法隆寺若伽藍発掘調査報告』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0, 『古代瓦研究Ⅱ-山田寺式軒瓦の成立と展開-』古代瓦研究会シンポジウム記録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012, 『漢長安城桂宮』

* 본문의 삽도는 「증원의 기와」(국립증원문화재연구소2018)에 게재된 도면을 재인용한 것으로, 세부 출처는 생략하였다.
또한 지면의 한계상, 지표·시·발굴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생략하였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3주제 토론문

● 「中原地域 新羅 造瓦技術의 受容과 展開」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양 종 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영희선생의 발표는 ‘중원지역’이라는 영역을 공간적 범위로 삼아 지엽적인 시각을 넘어 보다 넓은 시야에서 기와를 다루어 주었다. 각 특징을 명확하게 기술하면서 객관적 기준과 비교를 진행함으로써 중원지역의 기와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신라기와의 나타나는 요소를 ‘조와기술’로 정립하여 기준을 상정한 점은 매우 인상에 남는다. 토론자 역시 ‘신라기와의 지방확산’이라는 주제로 조사·정리한 바가¹⁾ 있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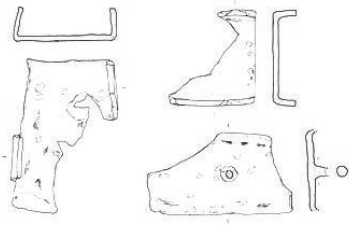
토론자가 발표 이전에 글을 먼저 접할 수 있게 된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독을 하는 사이에 생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먼저 용어에 대한 문제로 간단히 질문을 시작하겠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造瓦技術’과 ‘造瓦技法’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상하위개념과 같은 특별한 의미구별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2. 다음으로는 본문에서 “신라 조와기술의 확산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한 보은 삼년산성(報恩 三年山城) 출토기와에 대한 질문이다. 그 근거로서 제시한 “월성 출토 특수기와는 발표자가 관찰한 대로 삼년산성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월성 출토품은 평기와의 한 쪽 측면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자의 주장대로 양 쪽 측면 모두가 접히는 삼년산성과 동일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쪽 측면만 구부렸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월성 출토품이 양쪽 모두를 구부린 형태를 이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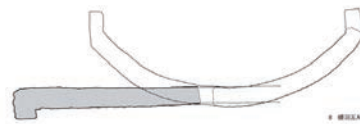
1) 양종현, 2012, 「신라기와의 지방확산에 대한 검토」, 『문화재』, 제45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것이라면 일본의 야마다데라(山田寺, 7세기)²⁾, 미나미시가하이(南滋賀廢寺, 7세기)³⁾와 같이 방형의 형태를 이루는 특수기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 쪽 면만을 구부린 것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막새 또는 일본 나카야마와요지(中山瓦窯蹟, 8세기)⁴⁾ 출토품과 같은 너새기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기와에 알려져 있던 토기구연부형암막새⁵⁾와도 제작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토기구연부형암막새는 종단면의 한 쪽 면을 구부려서 막새부를 이루는가 하면 반대쪽 종단면은 명확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삼년산성과 월성 출토품은 모두 측단면을 구부린 것으로 기존의 토기구연부형암막새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평기와의 종단면을 구부리는 것과 측단면을 구부리는 것은 작은 차이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제작공정을 생각하면 그 차이는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와를 구부려서 만드는 행위가 아이디어의 공통점인지 기술의 공통점인지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1. 보은 삼년산성 출토 평기와



2. 일본 야마다데라(A4형식)



3. 일본 미나미시가하이(왼쪽부터 막새, 수키와, 암키와)



4. 경주 월성 출토 특수기와

5. 일본 나카야마와요지

6. 월성 출토 암막새

2) 奈良文化財研究所, 2002, 『山田寺發掘調査報告書』.

3) 寺島典人, 2017, 『南滋賀廢寺』, 『企劃展大津の都と白鳳寺院』大津博物館編, アインズ株式會社.

4) 森郁夫・金誠龜, 梁淙鉉譯, 2009, 『日韓の瓦』, 帝塚山大學出版會.

5)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新羅瓦塼』.

3. ‘신라 경주식 조와기법의 유입과 변형’에서 ‘수키와 피복접합수법’을 백제와 신라에서 주류를 이루었다고 기술하였는데, 고구려 평양기의 기와에도 적지 않게 확인된 바가 있다⁶⁾. 한편 요즘 토론자는 제작기법 중에서 이 수키와 피복접합수법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새의 직경을 고려하지 못한 공인(工人)의 실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펼치기 어렵다. 보통 암막새의 경우 막새 뒷면에 다치구(多齒具)를 가하고 평기와를 접합하는 반면 수막새의 경우 동범의 수막새라도 수키와 피복접합수법을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사례가 있다. 이는 막새 직경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키와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막새보다 직경이 넓은 수키와를 덧대고 빈공간을 점토로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기법을 실수에 의한 임시방편(臨時方便)으로 보아야 할지, 정치된 기법으로 보아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원주 거둔사지와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출토품의 동범관계에 대한 부연설명을 생산위치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고자 한다.

6) 梁淙鉉, 2009, 「高句麗軒丸瓦－帝塚山大学付属博物館所蔵品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瓦研究』1, 東アジア瓦研究會.

제 4주제

● 신라 말 · 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최 정 혜(부산근대역사관)

- I. 머리말
- II. 통일신라 후기의 연화문수막새
- III. 후삼국기의 연화문수막새
- IV. 고려 초기의 연화문수막새
- V. 맺음말

I. 머리말

수막새는 지붕의 처마에 사용하는 장식기와로 드림새면에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며, 특히 연화문은 불교 영향으로 기와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주요 문양으로 시문된다. 삼국시대의 연화문수막새는 지역에 따라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형식적 특징을 보이지만,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연화문 형식은 경주를 중심으로 양식적으로 통일되면서 복판 · 중판 · 세판 · 혼판 등의 다양한 형식이 제작된다. 이 중에서 대표적 형식은 중판연화문수막새이다.

고려 초기는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연화문수막새가 주로 사용되며, 고려중기 이후는 일휘문과 범자문 등 새로운 형식의 문양도 등장한다. 이렇듯 연화문수막새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출현하고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상에는 당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대외관계 등 다양한 요인과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한국사에서 나말여초(羅末麗初)로 불리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은 신라의 중앙권력이 약화되면서 견훤(후백제)과 궁예(태봉)의 후삼국으로 나누어졌다가 왕건의 고려로 재통일되는 과정을 겪었던 시기이다. 그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지방분권화와 재통일을 통해 정치 ·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자 새로운 시대로 향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¹⁾.

1) 이 시기는 나말여초 혹은 후삼국기로 보기도 하며, 일부는 신라하대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분분한 실정이다(이재범 2015). 시간적 범위는 대체로 9세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진성여왕 대 부터 고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는 성종 대까지 100여년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의견도 있다(정청주 2015).

신라 말 고려 초의 전환기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간취되는데, 본고에서는 나말여초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한 방안으로 한반도에서도 가장 변화가 많았던 남한강유역의 중원지역²⁾ 연화문수막새 변천과정과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나말여초 전환기의 기와 양상은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전환기 기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시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신라 말 고려 초의 시기를 통일신라후기·후삼국기·고려 초기의 3시기³⁾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통일신라 후기의 연화문수막새

중원지역의 통일신라 후기 연화문수막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양상이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선승이 신라왕실의 후원을 받아 주석하였던 여주 고달사와 궁예와 관련이 있는 영월 홍교사 출토품을 통해 형식적인 특징과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달사는 경문왕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선승 원감국사 현욱(787~868)이 주석하였다⁴⁾. 사지는 장기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원감국사가 머물기 전인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전엽에 창건되어 4차례에 걸친 중창이 있었으며 16세기까지 존속하였음이 밝혀졌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 자료이며 일부이지만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인화문토기와 중판선조문수기와·연화문수막새가 확인되었다.

연화문수막새(그림1-1)는 1차 발굴조사 시 축대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새의 화판부에 연판의 형태는 같으나 크기가 다른 8엽의 단판을 배치한 형식이다. 이와 유사한 형식은 양양 진전사지에서도 확인된다⁵⁾.

진전사지 출토품(그림2)⁶⁾은 건물지 6에서 수기와가 부착된 원형으로 발견되었는데, 연판과 간판의 형태에서는 고달사지 것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때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전사지 출토품은 통일신라

2) 중원지역은 한국 역대 왕조가 가장 중요시하였던 지역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여야 한반도의 패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삼국통일 전쟁이나 신라 말 고려 초기에 문화적인 변화·발전양상이 다른 지역보다 복잡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라 말 고려 초 중원지역은 신라 왕실의 분열과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 등으로 기형·양길·궁예·왕건 등의 세력이 격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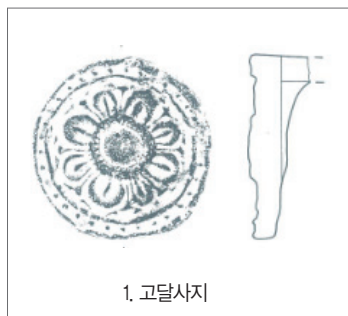
특히 중국에서 유학한 선승들이 귀국하여 신라왕실의 도움으로 남한강 유역의 사찰에 주석하면서 신라정부의 영향력도 집중되었다. 선종사찰들이 890년 이전에는 주로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았으나, 924년 이후에는 고려 왕건의 도움으로 경영되면서 이들 지역사원이 갖는 정치적인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김혜완 2008).

3) 통일신라후기는 불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에도 불상·불탑이 건립되는 경문왕대(재위 :861~875)의 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진성여왕대(재위:887~897)의 중앙정치 혼란으로 지방분권화가 심화되고 견훤이 무진주에서 스스로 칭왕(稱王)하는 892년까지, 후삼국기는 견훤의 후백제·궁예의 후고려가 성립되면서 신라와 병립하는 892년부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936년까지, 고려 초기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부터 일취문막새가 등장하는 예종(재위:1105~1122)대를 전후한 시기까지를 잠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보통 고려시대를 정치사적으로 초기·중기·후기로 구분할 때도 속군·속현·향·소·부곡까지 지방관인 감무를 파견하는 예종대 전후까지를 고려 초기로 본다.

4) 鳳林山門의 開山祖로 지리산 실상사에 머물다가 경문왕의 청으로 고달사에 주석하였다.

5) 진전사는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으로 전한 도의선사가 주석하였던 사찰이다. 도의선사는 821년 중국에서 귀국하여 당시 불교의 주류였던 교종에 선종이 배척되어 양양 진전사에 은거하였다.

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陳田발굴조사보고서』.



1. 고달사지



2. 흥교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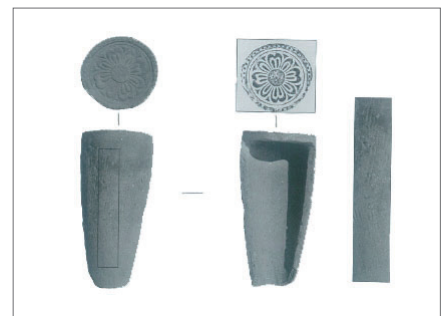


그림2. 진전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

그림1. 통일신라후기 중원지역 연화문 수막새

시대에 성행한 중판선조문수키와가 부착된 점에서 통일신라 후기에 사용된 기와임을 알 수 있다. 고달사와 진전사지 출토품과 같은 형식은 남한강 유역에 위치하는 영월 흥교사지⁷⁾에서도 확인된다. 흥교사지는 통일신라후기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하였는데, 고려시대에 가장 번성하였다. 흥교사지 출토품(1-2)은 3차 발굴조사 Tr2의 2호 건물지 적심석 하부에서 출토된 것인데, 화판부에 꽃술이 장식된 복판을 8엽 시문한 형식으로 중판선조문수키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 후기 경주에서도 확인된다. 경주지역에서는 흥교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처럼 자방 주위를 복판으로 장식하고 복판 형태가 하트형처럼 변하는 형식이 성행한다.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는 고달사 출토 연화문수막새와 비슷한 형식이 출토된다(이인숙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원지역의 통일신라후기 막새로 추정되는 유물은 몇 례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주 출토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경주지역에서 성행하는 중판연화문수막새와 세판연화문수막새가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세판연화문수막새는 후삼국기를 지나 고려 초기에 중원지역 뿐 만 아니라 개태사지나 굴산사지 등지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성행하던 형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이 시기적인 차인지 아니면 기와 제작에 참여한 장인 계층의 이동 문제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달사지나 흥교사지 등지에서 통일신라 후기 기와류의 출토양이 적고 특히 연화문수막새의 비율이 매우 소량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경문왕의 도움으로 원감국사가 주석한 고달사지에서는 통일신라후기 기와는 막새와 평기와만 소량만 확인되고 고려시대의 수막새와 암막새·치미·평기와 등은 다량 출토된다. 이러한 유물 출토상황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보다 고려시대에 사역의 확장 등 중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영월 흥녕사지⁸⁾와 김생사지⁹⁾에서도

7) 흥교사는 공예가 신라왕실에서 쫓겨나 머물렀던 세달사로 『삼국유사』 탑상 제4조에 의하면 “옛날 경주가 서울이었을 때 세달사(지금의 흥교사이다)의 농장이 명주 내리군에 있었다”고 하여 어느 시점에 사찰명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8) 흥녕사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징효국사 절중(折中 826~900)이 머물렀던 사찰이다. 징효국사 절중이 흥녕사에 주석하자 현강왕은 흥녕사를 중사성에 예속 시켜주었으며 정강왕과 진성여왕도 그의 도행(道行)을 흠모하였다.

9) 김생사지는 통일신라시대의 명필가인 김생(金生 711~791)이 두타행(頭陀行)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찰로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세를 유지하였으며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는 고려시대임이 확인되었다.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통일신라 후기에 왕실지원과 중국에서 유학한 선승이 주석한 사찰은 예상한 것과 달리 창건이나 중창 등의 큰 불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¹⁰⁾.

따라서 신라 하대에 중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선승들이 신라왕실의 지원으로 남한강 유역의 사찰에 주석하였을 때, 신라왕실의 지원으로 사찰 중창과 사세가 크게 번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이들 사찰유적에 대한 발굴 결과로 본다면 오히려 고려시대에 사역이 확장되고 사세가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후삼국기의 연화문수막새

후삼국기의 중원지역은 대부분 궁예와 왕건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곳이다. 궁예는 원주의 양길에게 있으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895년에 철원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며 899년에 양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황해도·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901년에 개경을 도읍으로 하여 후고구려¹¹⁾을 건국하였지만, 918년에 전제왕권 강화로 민심을 잃어 왕건에게 멸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격동기에 궁예와 왕건의 지배영역에 속했던 중원지역에는 고구려계·백제계·신라계 등 다양한 계통의 연화문수막새가 확인된다. 후삼국기의 중원지역 연화문수막새에는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계통 양식 혹은 형식적 속성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신라계로 분류한 것 중에는 백제 요소가 혼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연화문수막새의 계통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필자는 양식론 관점에서 삼국의 연화문수막새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화판부의 세부 속성을 우선 기준으로 계통을 분류하였을 밝혀 둔다¹²⁾. 본 장에서는 후삼국기 연화문수막새를 계통 별로 사례를 살펴보고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

고구려 계통으로 생각되는 연화문수막새는 청주 복대동과 음성 양덕리유적에서 출토된다. 복대동 출토품(3-1~2)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전기에 걸쳐 형성된 문화층에서 확인되었으며 고구려 지역에서 성행한 적갈색 계통으로, 2형식으로 구분된다. 그림3-1의 연화문수막새는 연자의 삼중 시문, 화판부에 8엽의 연판배치, 연판 가운데

10) 구산선문을 개창하였던 선승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을 통해 남종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종사상을 가지고 귀국하였으며 그들이 주석하였던 사찰들도 중국 선종가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구산선문 가람들이 개산조에 의해 새롭게 가람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람배치방식을 일정정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양정석 2012). 이러한 양상을 양정석은 구산선문 사찰이 기존의 가람 배치방식을 일정 정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사찰의 창건 내지 중창을 지원한 신라왕실과 귀족들의 영향력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 사찰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 유물 특히 기와 출토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라 왕실은 중국에서 귀국한 선승들을 기존의 교종사찰에 주석시켜 당시의 민심을 안정시켜 보려 노력하였으나, 사찰을 대대적으로 창건 또는 중창하지는 못했던 결과로 생각한다.

11) 궁예는 국호를 후고구려(901)·마진(904)·태봉(911)으로 바꾸었으며 도읍도 개경에서 철원(905)으로 옮겼다.

12) 본고에서 검토한 후삼국기 연화문수막새의 계통분류는 시론적인 것이며 향후 양호한 자료의 증가에 따라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혀 둔다.

능선, 첨형 연단, 연판 주위는 화륜대가 있고 주연부는 폭이 넓고 무문인 것이 특징이다. 그림3-2은 중앙의 연자를 중심으로 주위에 작은 연자를 장식하였으며 연판은 그림3-1과 마찬가지로 연단이 첨형이다. 주연부는 화판부보다 높고 무문이며, 문양이 시문된 드림새면에 포흔이 있으며 포흔은 주연부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다.

양덕리유적에서는 3지구 3-1지점 1호 건물지에서 중판선조문평기와·치미·연목와 등의 기와류 및 통일신라 시대 토기등과 함께 15점의 연화문수막새(3-3)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동형와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양덕리 출토품은 드림새 중앙에 하나의 연자를 원권으로 장식, 주위는 8개 연자와 원권 시문, 화판부에 6엽 단판배치, 둥근 연판 내의 2조 능선, 마름모꼴 간판,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의 구상권, 주연부는 드림새 면보다 높은 무문이 특징이다. 드림새에 부착된 수키와는 점도띠로 성형한 것(그림3-4)도 있으며, 연판 내에 능선을 이중으로 장식한 것은 고구려 연화문수막새에서 보이는 속성이다.



그림3. 후삼국기 중원지역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

2. 백제계 연화문수막새

백제계 연화문수막새는 원주 법천사지와 거둔사지, 제천 장락사지 등지에서 출토된다. 법천사지¹³⁾ 출토품(그림 4-1)은 드림새의 중앙에 연자를 배치한 자방과 화판부에 8엽 단판을 시문한 형식인데, 판단은 백제 연화문수막새에서 나타나는 용기형이다. 주연부와 화판부 사이에 구상권은 없으며 주연부는 화판부보다 높고 폭이 넓은 무문이다. 드림새와 수키와 접합 방법은 수키와 선단이 드림새 상부의 주연이 되는 고식 접합기법이다(최영희 2010).

법천사지 인근에 위치하는 거둔사지¹⁴⁾에서도 백제계 연화문수막새(그림4-2)가 확인된다. 그림은 1/2정도가 남은 편으로 연판은 8엽으로 추정된다. 자방부는 연자를 배치, 연자 주위는 꽃술대를 시문, 연판은 단판으로 중앙에 능각, 판단은 백제 연화문수막새에 주로 보이는 삼각형 돌기를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간판은 T자형이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장락사지¹⁵⁾에서도 백제계 연화문수막새(그림4-3)가 출토된다. 장락사지 출토품도 1/2 정도가 남은 편으로 연판은 8엽으로 추정된다. 연자를 갖는 자방, 둥근 연판, 판단 용기 등은 백제 연화문수막새에서 보이는 형식적 속성이다.

13) 법천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나말여초에 창건되어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가장 번창하였으며 여말선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하여 임진왜란 때 폐사되었다.

14) 거둔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후기에 창건되어 고려 초에 중창·확장되었으며 조선전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장락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세를 유지하였으며, 5차례에 걸쳐 중창이 있었다. 사지에는 통일신라후기에 건립된 7층모전 석탑이 현존한다.



그림4. 후삼국기 중원지역 백제계 연화문수막새

간판 형태는 삼각형이루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3. 신라계 연화문수막새

신라계 연화문수막새¹⁶⁾는 백제계가 출토되는 법천사지, 거둔사지, 장락사지 등지에서 확인된다. 법천사지 출토품(그림5-1)은 드림새의 자방에 연자 장식, 화판부에는 신라 연화문수막새에서 주로 보이는 능선과 꽃술이 시문된 연판 배치, 삼각형의 간판,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 구상권, 주연은 무문이다. 드림새와 수키와의 접합은 드림새 선단이 드림새 상부의 주연이 되는 고식 접합기법이 특징이다.

거둔사지에서는 3가지 형식의 신라계 연화문수막새(그림5-3~5)가 확인된다. 그림5-3은 드림새의 자방에 연자 배치, 화판부는 능선이 장식되고 판단은 용기한 연판을 시문한 형식이다. 편으로 출토되어 연판 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잔존한 연판이 6엽인 것으로 보아 전체는 10엽으로 추정된다.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는 좁은 구상권이 있으며 주연은 무문이다. 그림5-3의 연화문수막새 연단이 용기하는 점에서 백제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을 보이지만, 연판 내의 능선과 꽃술을 장식한 점 그리고 화판부의 전체적인 형태가 신라의 형식적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계로 분류하였으며, 동범와가 괴산지역에서 확인된다¹⁷⁾.

그림5-4은 드림새의 자방에 연자배치, 자방부와 화판부 사이에 2조의 원권이 있는 형태이다. 화판부는 연판 내에 음각의 능선이 시문된 단판을 10엽 배치형식으로 간판은 삼각형이다. 화판부와 주연부는 맞대어 있으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그림5-5의 연화문수막새는 파편이라 정확한 특징은 알 수 없으나 연판에는 능선과 꽃술 장식 · 삼각형의 간판 ·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는 좁은 구상권이 있으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그림5-5의 동범와(그림5-6)가 충주 추평리 유적에서 확인된다. 제천 장락사지 출토품(그림5-2)은 드림새 자방에 연자배치, 연판 내 능선과 꽃술 장식, 용기 연단, 삼각형 간판,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는 구상권이 있으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자방과 연판은 양감있게 표현하기 위해 드림새면의 깎아서 정면하였으며, 드림새 측면과 뒷면에는 선문타날흔이 남아 있다¹⁸⁾.

16) 신라계 연화문수막새는 신라와 통일신라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은 의미한다.

17)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내 유적」.

18) 수막새 드림새 측면과 뒷면을 도구로 정면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사용하였던 고식 정면기법이다(최영희 2010).



그림5. 후삼국기 중원지역 신라계 연화문수막새

4. 후삼국기 연화문수막새의 성격과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삼국기 중원지역에서는 삼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의 전통(양식)을 계승한 연화문수막새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중원지역은 궁예 궁예는 반 신라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궁예와 왕건의 지배 영역에 속한 곳으로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와 신라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연화문수막새가 법천사지와 거둔사지, 장락사지 등지에서 함께 출토된다.

원주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5소경의 하나인 북원경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법천사지가 위치하는 부론면 법천리 일대는 신라 지배 이전에는 백제 세력이 존재하였던 곳으로, 마한과 백제의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법천사와 인접한 거둔사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 인근에 위치하는 제천 장락사지는 영월·충주·제천·원주·문경·단양 등을 연결하는 교통로 중심지에 위치하는 입지적인 특징이 백제·신라 계통의 연화문수막새가 출토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 양덕리와 청주 복대동유적에서 출토하는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는 삼국전쟁기의 정치적 변동 및 후삼국의 지방 권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지역은 한때 백제 영역이었지만,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후 고구려의 잉홀현(仍忽縣)로 되었고, 복대동유적이 위치하는 청주는 고구려 영역이었다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9) 궁예는 반 신라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궁예와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구려로 사용하였다.

20) 국립중앙박물관(1999~2007)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법천리고분군에서 마한-백제-신라로 구분되는 무덤이 확인되었다.



그림6.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

5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후삼국기에는 태봉과 후백제의 국경으로 군사상 요충지였으며 궁예가 전제 권력을 확보하는 시기에는 친궁예·친왕건·중립세력으로 나뉘어져 청주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상태를 보였다(김주성 1988).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음성과 청주지역에서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가 출토하는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원지역에서 보이는 계통별 연화문수막새의 재지적 양상과 특성은 경기지역에 위치하는 안양 중초사지²¹⁾에서도 확인되며, 여기서도 고구려계·백제계·신라계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중초사지 출토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그림6-1)는 적갈색 태토에 자방이 넓고 첨형 연판을 시문한 형식이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백제계 연화문수막새(그림6-2)는 연자가 배치된 자방을 중심으로 연단이 반전되는 연판을 장식한 형식이며, 주연부는 무문이다. 신라계 연화문수막새(그림6-3)는 꽃술을 장식한 연판 내에 능선을 시문한 형식이며, 주연은 무문이다. 화판과 주연부 사이에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중초사지가 위치하는 안양이 처음에는 백제, 장수왕 남정(南征)으로 고구려 울목군(栗木郡)으로 편입, 신라통일기에는 울진군으로 변경, 후삼국기는 궁예와 왕건의 세력권에 속했던 곳이다. 안양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중초사지에 다양한 계통의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필자는 중원지역 연화문수막새의 계통별 출현 배경에는 재지의 역사적 맥락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후삼국기의 지방 세력이 표방했던 정치적 이념 혹은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재지의 역사적 배경(특성)과 지방장인의 활동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후삼국기의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계통의 화문수막새에 재지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원인은 불사의 발원이 대부분 지방 호족세력이며 기와 제작에도 지방 장인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라 왕실은 공적인 수공업체제를 갖추고 관장(官匠) 주도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지만(신호철 2009), 지방 세력이 본격적으로 발호하는 9세기말을 전후하여 이러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지방호족은 재지의 장인을 동원하여 기와를

21) 중초사의 사명은 흥덕왕2년(827)에 세워진 당간지주의 명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발굴조사에서 안양사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중초사가 이 지역의 지명유래가 된 안양사임이 확인되었다. 안양사는 태조 왕건과 승려 능정이 중창하였다.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이들 장인들은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 기와 형식을 모본으로 하여 연화문수막새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²³⁾.

후삼국기에 재지적인 역사적 맥락 또는 배경이 반영되는 현상은 연화문수막새 뿐 만 아니라 불교조각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후백제 불교조각은 통일신라 조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신생국가의 활기와 구 백제지역의 조각적 특징이 표현되는 독특한 양식을 보인다(최성은 1993).

10세기 무렵부터 구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된 백제양식의 석탑들은 형식에 따라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형식을 모본(模本)으로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백제계 석탑은 금골산(金骨山) 5층 석탑으로 보아 13~14세기 무렵까지 제작된다(이희정 1993). 백제 구토에서 백제계 석탑이 건립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희정은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면서 후백제를 표방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진정환(2010)도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을 통일신라 양식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백제적 요소가 확인되는 것은 백제의 불교미술의 잠재적 표출보다는 후백제 건현에 의해 촉발된 백제 계승의지의 표출을 위해 특정 형식만 차용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백제계 석탑이 나말여초에만 건립된다면 백제전통의 계승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13~14세기 경까지 제작되고 있다는 점과 후백제미술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에서만 백제적인 요소가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념이 반영된 백제계승의식의 표출보다는 전술한 재지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그리고 지방 장인층의 참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IV. 고려 초기의 연화문수막새

충원지역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선승(禪僧)이나 지방호족이 많았던 곳이다. 고려 왕실은 재통일 후에도 이들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진공대사 충담²⁴⁾의 탑비이다. 흥법사에 주석하면서 원주지역 교화에 노력한 진공대사가 940년에 입적하자 바로 승탑을 건립하고 941년 탑비를 세웠는데 태조 왕건이 직접 비문을 작성하였다.

이밖에 원종국사 찬유²⁵⁾가 주석하였던 고달사도 광종 대에 부동사원(不動寺院)²⁶⁾으로 지정되면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둔사나 법천사도 국사의 하산소가 되면서 고려왕실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

22) 후삼국기는 장인들이 이동하여 불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견훤은 경주를 침입했을 때 백공 가운데 뛰어 난 자를 끌고 갔으며, 완주 봉림사지 석불좌상 조성시에는 안동지역의 장인들을 참여 시켰다.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세운 후에 명주(강릉)지역의 장인을 철원의 불교석조미술품 조성에 참여시키기도 하였으며, 충주지역의 장인이 개태사 석조삼존불 조성에 참가한 사례도 있다(진정환 2014).

23) 불교미술조각이나 금속공예 등에 표현된 연화문을 모본으로 하여 연화문수막새를 제작할 가능성도 있다. 광양 옥룡사지에서는 승탑에 조각된 연화문과 같은 형태의 연화문이 시문된 암막새가 확인되었으며, 법천리고분 4호분에서는 연화문이 조각된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다.

24) 진공대사 충담(869~940)은 918년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왕사로 임명되었으며 922년 경에 흥법사 주지로 임명되었다.

25) 원종대사 찬유(869~958)도 왕건의 청으로 고달사에 주석하면서 재통일 과정에서 태조 왕건을 지원하였다.

26) 고달사는 회양원 · 도봉원과 함께 971년(광종22)에 부동사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의 문도(門徒)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며 국가가 입적하자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었다²⁷⁾. 이와 같이 고려 초기에 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여주 고달사와 원주 흥법사·거둔사·법천사 등은 발굴조사 결과로 보아 모두 고려 초기에 가장 번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지역은 태조 왕건이 재통일 과정에 가장 유력한 지원세력인 충주 유씨가 토호 세력으로 있었던 곳이다. 충주 유씨는 왕건의 혼인정책에 부응하면서 고려 초기 막강한 정치력과 권력을 소유하였고, 그 영향력은 해종 대에 건립된 법경대사 현휘와 징효대사 절종의 탑비를 통해 알 수 있다. 법경대사 탑비는 943년에 충주 정토사에 건립되었으며, 그 다음해에 징효대사 탑비가 영월 흥녕사에 세워 졌다. 뿐만 아니라 광종은 954년에 모후인 신명순성 왕후의 명복을 위해 승선사를 충주에 창건하기도 하였다.

중원지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실과 재지 호족세력의 지원을 받은 많은 사찰이 고려 초기에 창건되거나 중창된다. 이들 사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기와·도자기·도기·석조물 등 많은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기와의 출토 수량이 가장 많다. 특히 사격(寺格)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양을 가진 연화문수막새도 다량 출토되었다. 이들 사지에서 출토된 고려 초기의 연화문수막새는 양식으로 볼 때 고구려계와 통일신라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는 거둔사지와 법천사지에서 확인되는데, 거둔사지 출토품(그림7-1)은 드림새의 중앙에 한 개의 연자를 중심으로 18개 연자를 배치하고, 자방부와 화판부 사이에는 원권이 있는 형태이다. 연판은 4엽 단판으로 연판 내의 능선은 양각으로 표현, 간판은 세 줄의 양각선으로 시문하였다. 주연부는 연주문을 장식, 드림새에 부착된 수키와는 무단식, 측면은 와도로 완전히 절단,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법천사지 출토품(그림7-2)은 드림새의 중앙에 1과의 연자를 중심으로 4과 연자 배치, 자방부와 화판부 사이는 2조의 원권, 연판은 연단은 갈라지는 4엽 단판 형태이다. 간판은 세 줄의 양각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있다.

거둔사지와 고달사지 출토품은 화판부를 간판으로 구획하고 4엽의 단판을 배치한 형태에서 고구려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데, 간판은 고구려 연화문수막새(그림7-3)²⁸⁾와 매우 유사하다.

고구려계 4엽연화문수막새는 중원지역뿐만 아니라 남원 만복사지에서도 출토된다. 만복사지에서는 6종류의 4엽연화문수막새가 확인되며 거둔사지와 법천사지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화판부를 간판으로 구획하고 4엽의 연판을 배치하면서 고구려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인 자방에 방사선문을 장식한 형식(그림7-4~5)이다. 그림7-6은 고구려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인 반구형 자방을 표현하였다. 만복사는『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문종(재위:1046~1083)

27) 거둔사는 원공국사 지종(930~1018)의 하산소로 승탑과 탑비는 현종16년(1025)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법천사는 지광국사 해린(984~1070)의 하산소로 승탑은 열반 직후인 문종24년(1070)에 건립되었고 탑비는 선종2년(1085)에 세워졌다.

28) 『고구려 와당』, 2005,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그림7. 고려초기 중원지역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1.거둔사지 2.법천사지), 전 고구려 연화문수막새(3), 만복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4~6)

대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발굴조사 결과 중판선조문평기와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2.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연화문수막새가 성행한다. 중원지역의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는 연판의 형태에 따라 단판연화문수막새(Ⅰ), 복판연화문수막새(Ⅱ), 세판연화문수막새(Ⅲ)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단판연화문수막새(Ⅰ)

단판연화문수막새는 복판이나 세판연화문수막새보다 전체적으로 출토량은 많지 않으며, 고달사지와 법천사지에서 출토된다. 고달사지 출토품(그림8-1)은 드림새 중앙에 연자 시문, 넓은 원권, 양감이 있는 12엽 단판, 삼각형의 간판,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의 좁은 구상권, 주연부는 연주문을 주요 속성으로 하는 형식이다.

법천사지 출토품(그림8-2)은 드림새의 중앙에 구획 없이 3단 연자 시문, 둥근 연단의 8엽 단판, 간판은 연판과 같은 형태로 크게 표현하고, 주연부는 연주문을 장식한 형태이다.

2) 복판연화문수막새(Ⅱ)

복판연화문수막새는 드림새면에서 자방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방부가 드림새면

의 1/2 이상 것은 ⅡA형식, 1/2 이하이면 ⅡB형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ⅡA형의 대표적인 것은 송선사 창건기 연화문수막새(그림8-3)로, 954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갖고 있어 연화문수막새 편년의 절대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ⅡA형은 연자형 자방을 가지며, 연판이 복판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은 정림사지(그림8-4), 봉업사지(그림8-5~6), 흥녕사지(그림8-7), 원향사지(그림8-8) 등지에서 출토된다. 특히 봉업사지 출토품 중에는 송선사지와 같은 동형화가 있으며, 정림사지 출토품은 태평8년무진정림사 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匠唐草) 명문기와와 같은 위치에서 출토되어 1028년(현종19)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B형은 정토사지(그림8-9)와 원향사지(그림8-10), 거둔사지(그림8-11), 개경 고려궁성(그림8-12) 등지에서 출토되며, 기본적으로 ⅡA형과 같은 양상이지만 자방부의 크기는 ⅡA형보다 작다. 정토사지 출토품은 화판부를 간판으로 구획하여 4엽 복판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며²⁹⁾, 원향사지 출토품은 정토사지와 유사하지만 복판이 8엽으로 증가하면서 간판이 줄어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을 갖는 것은 개경 고려궁성에서도 확인되는데, 고려 궁성 출토품은 화판부를 간판으로 구획하여 5엽 복판을 배치한 형식이다.

3) 세판연화문수막새(Ⅲ)

세판연화문수막새는 16엽 이상의 연판이 드림새에 시문되는 형식으로 연판 형태에 따라 단판인 ⅢA형식과 복판인 ⅢB형식으로 구분된다.

ⅢA형은 고달사지(그림8-13~14)와 김생사지(그림8-15), 흥법사지(그림8-16)에서 출토되는데 고달사지 출토품은 드림새의 자방에 연자를 무질서하게 시문하고 화판부는 가늘고 긴 단판을 배치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식은 개태사지(그림8-18)에서도 확인되지만, 화판부와 주연부 사이에 좁은 구상권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B형은 흥녕사지에서 출토되며, 드림새의 중앙에 연자가 시문된 자방 주위에 2조의 원권과 화판부와 주연부는 맞물려 있는 형식이다. 흥녕사지의 ⅢB형은 지금까지

지 조사된 수막새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수막새로 추정되며 충주유씨의 지원으로 징효대사 절종의 탑비가 건립되는 시기에 사찰이 중창되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고려 초기 연화문수막새의 성격과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초기 중원지역에서는 고구려계와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가 병존하면서 출토되며, 고구려계 보다는 통일신라계가 수량도 많고 문양 형태도 훨씬 다양하다.

고구려계의 특징은 화판부의 간판 구획, 4엽 연판 배치, 간판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간판 형태는 고구

29)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로 분류한 정토사지 출토품은 간판의 형태적 속성에서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필자는 연판 형태가 통일신라 후기 경주에서 성행하는 복판 형식이라는 점에서 통일신라계로 분류하였다.



그림8. 고려 초기 중원지역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1~3.7~11.13~17), 봉업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4~5), 정림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6), 개경 고려궁성 출토 연화문수막새(12), 개태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18).

려 연화문수막새와 유사하다.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을 갖는 4엽연화문수막새는 남원 만복사지에서도 출토되는데, 특히 만복사지 출토품 중에는 고구려 연화문수막새의 특징적인 요소인 반구형자방을 가진 연화문수막새도 확인된다.

고려 초기에 고구려계의 연화문수막새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필자는 태조 왕건의 고구려 계승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 연화문수막새가 평양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최정혜 2015).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는 통일신라후기 경주지역에서 성행한 복판과 세판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신라양식이 고려초기까지는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과 경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장인들이 고려 초기의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의 통일신라계 연화문수막새는 고려적인 정체성과 문화가 확립되는 11세기 후반 무렵까지 존속하며, 통일신라 양식의 연화문수막새와 전혀 다른 고려적인 일휘문수막새가 출현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본고는 신라 말·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최근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계통문제와 계통별 수막새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해석과 논지 전개는 많은 비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학습 능력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불사 발원 계층과 장인 수급 문제, 시기설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차후에 수정·보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발굴조사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2, 『師子山 興寧禪院 地表調査 報告書』.
 2004, 『陳田 發掘調査 報告書』.
 2009, 『原州 法泉寺 I』.
 2014, 『原州 法泉寺 II』.
 2017, 『原州 法泉寺 III』.
 2017, 『原州 興法寺地 I』.
- 경기도박물관, 2002, 『高達寺地 I』.
 2002, 『奉業寺』.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고달사지 III』.
 2015, 『여주 원향사지』 증보판
 2016, 『고달사지 IV』.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夫餘 定林寺址』.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II』.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고달사지 II』.
- 전북대학교박물관, 1986, 『萬福寺 發掘調査 報告書』.
- 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영월 흥교사지 I』·『영월 흥교사지 II』.
 2015, 『영월 흥교사지 III』.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忠州 金生寺地』.
- 충청대학박물관, 2008, 『堤川 長樂寺地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양덕리유적』.
 2012,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내 유적』.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청주 복대동유적』.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0, 『거둔사지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및 자료집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와당』.
- 국립경주박물관, 2000, 『新羅瓦塼』.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우리나라 전통무늬 6와전』.
- 국립부여박물관, 2010, 『기와에 담긴 700년의 숨결 백제와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 『중원의 와당』.
- 안양역사관, 2013, 『안양사지 출토 瓦 특별기획전』.

논문

- 김혜완, 2008, 「나말여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韓國古代史研究』 49, 한국고대사학회.
- 신용철, 2009, 「통일신라시대 불탑의 발원자와 제작자」, 『문화사학』 31, 한국문화사학회.
- 양정석, 2012, 「구산선문 가람인식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인숙, 2012, 「경주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수막새 편년」, 『한국고고학보』 85, 한국고고학회.
- 이인숙 · 최태선, 2011, 「평기와 용어 검토」, 『한국고고학보』 80, 한국고고학회.
- 이재범, 2016.08, 「후삼국시대사론」,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 이희정, 1993, 06, 「高麗時代 美術品の復古樣式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영애, 2013, 「신라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 정청주, 2015, 「신라말 · 고려초 海上勢力의 대두와 그 역사적 의미」, 『역사학연구』 제59집.
- 진정환, 2010,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 2014, 「新羅下代~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 최성은, 1994, 「後百濟地域 佛教彫刻 研究」, 『美術史學研究』 204, 한국미술사학회.
- 2006, 「10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문화교류 ; 전환기의 불교조각: 나말여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 33, 이화사학연구소.
- 2010, 「중원(中原)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3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최영희, 2010, 「신라고식수막새의 제작기법과 계통」, 『한국상고사학보』 제170호, 한국상고사학회.
- 2017, 「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 『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최정혜, 2012, 「고려~조선시대 중원지방의 수막새 편년」, 『중원문화와 기와』, 한국기와학회.
- 2015, 「이우치 컬렉션 고려 · 조선의 와전」,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단.
- 2017,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최태선, 2013, 「안양사지 출토 기와의 특징과 성격」, 『안양사지 출토 瓦 특별기획전』, 안양역사관.

제 4주제 토론문

● 「신라 말·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문

최 태 선(중앙승가대학교)

그동안 고려시대 기와 연구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이고 계시는 최정혜 선생께서 이번에는 “신라말·고려 초 중원지역의 연화문수막새 검토”라는 주제로 평소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던 중원지역 라말여초기의 독특한 연화문구성과 수막새의 문양을 정리하고, 나말여초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사회상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담아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정의하신 “라말여초(9세기후반~10세기전반)기”는 신라의 중앙권력이 약화되고 후삼국을 거쳐 고려로 재통합되는 시기이고, 사회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재통일을 통해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이고, 이 시기의 중원지역은 어떠한 지방적특징을 보이는 것인지 연화문수막새의 중앙(경주)적 요소와 중원(지방)지역 요소의 차이를 통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막새에 대한 식견이 일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평소 발표자와 이러한 특징에 대한 궁금증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적이 있기에, 다시한번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는 9세기후반~10세기전반의 중원지역 연화문수막새를 ①통일신라후기, ②후삼국기, ③고려 초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①통일신라후기에는 중원지역의 연화문은 경주계와 유사한 것으로 제시한 경주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삼국기는 연화문 막새의 속성 중 가장 큰 지역색을 가지는 연판의 유형에 따라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의 요소로 구분하고, 중원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정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작업으로 평가하며 토론자의 질의를 드립니다.(토론문 지도참조)

1. 지도에서처럼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중원지역에서 발표자가 정리한 고구려, 백제, 신라계의 요소는 다양한 호

죽중심권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둔사지와 장락사지, 법천사지에서는 기존의 신라계와 새로운 후삼국 기 백제계가 혼재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중초사지에서는 기존의 통일신라계 위에 고구려와 백제계가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후삼국기의 백제계 고구려계의 등장은 경주의 권력이 약해진 사이에 나타나는 문양(의장적 요소)이 분명한데, 발표자가 표현한 ‘후삼국기의 기와’라는 것은 곧 견훤중심의 후백제기와, 궁예중심의 후고구려기와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요. 즉, 후삼국기와의를 공식표명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시기의 후삼국계의 연화문 문양(의장)은 경주에서 이탈한 기와 장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문양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상징성이나 표식을 요구하는 호족집단이나 후삼국 권력집단의 선택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는 문양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호족 및 후삼국기 권력집단의 거점지와 후삼국기 막새의 특징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우선은 공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석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만, 후삼국기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삼국적 특징의 막새문양의 본(틀)은 기술의 전파와 함께 선진지역의 주도하에 이동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지역의 선택이 더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문헌에서 보이는 백제 와박사에 의한 일본으로의 조와기술의 전파에서도 비조사 유적에서 백제막새와 동일한 본(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작기술은 받아들이되 문양의 선택은 비조사를 경영하는 집단의 아이디어 즉, 자기식의 문양표현(9엽의 연판과 연판표현의 비조사식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 와공집단의 전달 의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 보입니다.

토론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호족중심기의 중원지역 막새문양을 정리하신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후삼국기에 각 지역의 호족이 선택하는 막새문양의 다양성을 보면서 토론자가 느끼는 우문입니다만, 혹 선택된 수막새의 문양은 후삼국을 포함한 그 지역 세력의 문장적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물론 15,6세기 자료의 연장선상인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일본닛고지역의 도쿠카와 묘역에 건립된 건물들의 현재 수막새의 문양은 모두 도쿠가와 문장인 삼엽으로 표현되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인데, 다시말해 삼국시대에 신라계, 고구려계라는 것은 단순한 미술사적 특징이 아닌 고대사회 각 집단의 문장과 같은 심벌(표식)로 볼 수는 없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어 봅니다. (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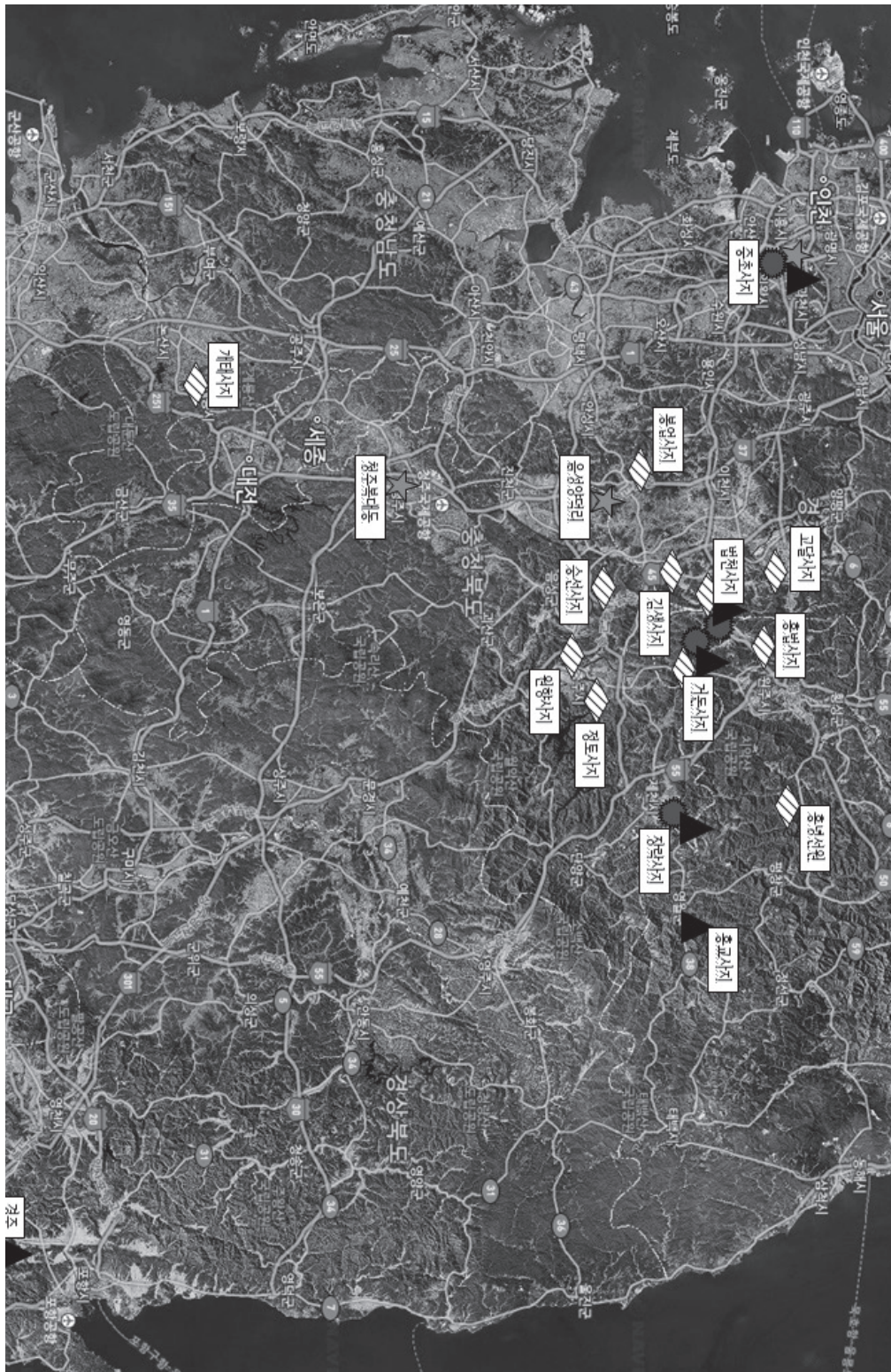


그림 최정화선생이 제시한 중원지역의 후삼국기, 고려 연호문수막새의 분포양상

제 5주제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梵字銘 막새

이 상 규(한성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 梵字銘 막새 출토 유적현황

III. 중원지역 출토 梵字銘 막새 형식분류

IV. 중원지역 梵字銘 막새의 변천과 특색

V. 맺음말

I. 머리말

중원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을 이용한 물류 중심지로 정치, 경제의 주요 길목이었다. 삼국은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으며,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도 경제적 유통에서 중요한 입지를 지키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가 수도를 개성으로,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확정하면서 지방 거점의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중원지역은 지리적 위치상에 있어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를 잇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梵字銘 막새는 시기적으로 고려와 조선을 잇고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梵字銘 막새는 그 출현을 고려 후기에 속하는 12~13세기로 보고 있으며¹⁾,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사찰건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막새이다. 특히 梵字銘 막새의 경우 고려나 조선의 왕실과 관련된 사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원주 법천사, 충주 송선사, 영동 영국사, 여주 신흥사, 양주 회암사, 강화 선원사 등에서 사용되었다.

범자는 산스크리트어의 문자로 불교 경전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문자로 우리 역사에서는 8세기 경 다라니의 형태로 등장한다. 경상북도 금릉군 갈항사지 삼층석탑에서 ‘准提眞言’이 필사된 유물이 발견되어 삼국시대에 이미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²⁾. 이는 이미 범자가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범자는 불교의 종파 중에서도 밀교와의 관련성이 높는데 갈항사지 유물과 같이 眞言이나 다라니의 형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문자이기 때문이다. 진언은 석가의 깨달음이나 본인의 서원을 이루는 말로 밀교에서는 1글자, 혹은 여러 글자로 된 주문과 같은

1) 이상규, 2013,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외당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 남권희, 2005, 「한국 기록문화에 나타난 진언의 유통」, 『밀교학보』, 7.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해 다라니는 문장 혹은 문단의 단위를 사용하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밀교는 기본적으로 진언과 다라니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구복이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범자가 삼국, 통일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불경 속에서 벗어나 기와, 정병, 풍탁, 향완, 청동거울 등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지는 계기는 불교사상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을 함께 확인 할 때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고려후기는 무신 정권으로 인해 발생한 불교 종파의 변화, 대몽항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원과의 교류로 인한 새로운 문물 수용 그중에서도 밀교적 성격의 불교를 통해 범자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막새의 문양으로 사용된 범자는 그 역할이 문자와 문양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 문자로서의 의미는 불교에서 나타내는 진언의 표현일 것이며, 문양의 의미는 실답자나 란차자 등 시각적인 효과에 충실한 형태이다. 더욱이 범자를 도식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추측할 수 있다. 범자를 사용하는 와당에 보통 梵字文 혹은 梵字紋의 명칭으로 통칭되었으나, 최근에는 梵字銘 와당으로 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이며, 본인도 범자가 문자로서 의미와 무늬로서의 의미를 공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⁴⁾. 이에 범자가 시문된 와당을 梵字銘 와당으로 칭하여 전개하도록 하겠다.

범자명 와당은 시기적으로 일취문 와당과 함께 고려시대 와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와라고 할 수 있다. 일취문 와당이 14세기 이후 사용이 줄어들는데 비하여, 범자명 와당은 고려후기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고, 현재까지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막새의 문양이 되었다. 梵字銘 와당이 시기적으로 고려 와당의 일부분을 특징짓는다면, 지역적으로는 도시 중심의 사찰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왕실과 관련된 사찰 유적에서 그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행사나 중창기에 사용된 예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고려 수도인 개경의 만월대와 공민왕릉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일시적이지만 수도로 사용되었던 강화도 내의 선원사지에서 발굴 조사된 경우가 있다. 조선시대에 왕실사찰의 역할이 했던 양주의 회암사지는 범자명 기와의 대표적인 유적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지역에서 사용되었던 梵字銘 막새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중원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지 출토 유적별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막새를 장식하는 문양을 기준으로 그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 梵字銘 막새 출토 유적현황

중원지역에서 梵字銘 수막새가 출토되는 유적으로는 충주에서는 원동리사지, 감생사지, 송선사지, 미륵리사지가 있다. 또한 청주의 보살사, 대전의 보문사, 영동 영국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원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출토되는데 경기 지역의 여주 신록사, 강원 지역의 원주 법천사지, 경북 영주의 부석사, 충남 지역의 서산 보원사지,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 등에서 梵字銘 수막새가 출토되고 있다. 암막새는 충주에 위치한 감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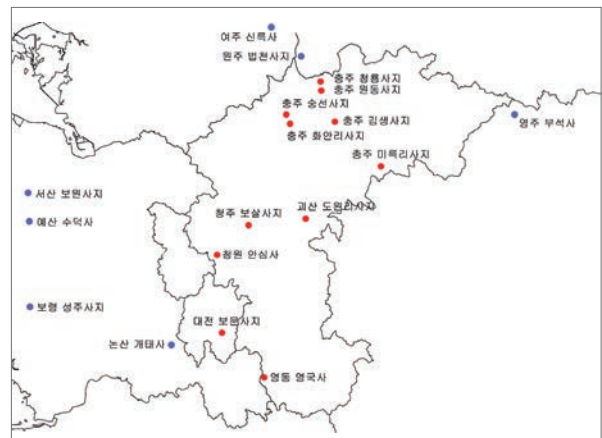
3) 엄기표, 2013, 「寶珠形 唵(om)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 제14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333~390

4) 이상규, 2013, 앞의 글.

지, 송선사지, 청룡사지, 화안리사지, 미륵리사지에서 확인되고, 청원의 안심사, 대전의 보문사, 영동 영국사 등에서 출토된다. 중원인근지역으로는 경기 지역의 여주 신흥사, 강원 지역의 원주 법천사지, 경북 영주 부석사, 충남 지역의 서산 보원사지, 예산 수덕사,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 등에서 梵字銘 암막새가 출토되고 있다.

1. 중원지역내 유적

충주 원동사지는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절터이다.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74년 철불과 ‘崇慶二年’ 명문의 鐵印이 발견되었다. 이는 1213년(경종 2)에 해당하며 당시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이후 많은 와편이 출토되었고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는 육엽연화문 수막새가 포함되어 삼국시대 창건된 절이라는 추측도 있다. 육엽연화문 수막새는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기와 형태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외에도 梵字銘 수막새, 화훼문 암막새 등이 수습되었다⁵⁾. 梵字銘 막새는 수막새만 확인되는데 주변부에 연주문을 배치하고 중앙에 𑖀(om)자 1자만을 배치한 형태이다.



충주 청룡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에 위치한 사찰지이다. 창건 연대와 창건자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는 바가 없으나, 普覺國師(1310~1392)와 관련된 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후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폐사 시기 역시 조선 말기에 불태워 없앴다는 전설이 있을 뿐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룡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藥城春秋』에 ‘청계산 중허리에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 그것이 곧 청룡사요, 그 유래를 더듬어 보건대 그 시초는 알 길이 없으나, 고려말경 이곳에 한 암자가 있어 보광국사가 이 암자에 은거하실 때 이태조께서 이를 애석히 여기사어 그곳에 백여 년간에 걸쳐 대사찰을 지어 주셨다.’⁶⁾는 내용이 남아 있다. 범자와 일휘문이 함께 조합된 형태로 弧狀形과 역삼각형 2종류의 암막새가 나타난다⁷⁾.

충주 송선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寺址이다. 고려 광종이 자신의 어머니인 神明順成王太后的 명복을 빌기 위해 광종 5년(954)에 창건한 사찰이다. 절터 부근에서 발견된 ‘崇善寺’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사찰명이 확인되었다. 송선사는 창건과 보수, 중건을 포함해 총 5회의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건 당시는 연화문 위주의 와당을 사용하였으며, 고려 명종 12년(1182)에 1차 중창이 이루어졌다. 이후 1579년에 해당하

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6) 『藥城春秋』 p. 292.

7) 충주산업대학교 박물관, 1996, 『충주 청룡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는 “萬曆”명 암막새가 출토되어 2차 중창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⁸⁾. 수막새는 중앙자방에 𐄀(hrih)를 배치하고⁹⁾ 주변에 ‘𐄀𐄀𐄀𐄀(om ma ni pa dme hūṃ)’을 시문하였다. 암막새는 내곡이 3회인 형태의 역삼각형으로 명문이 시문되어 있는 형태이다.

충주 김생사지는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일원에 위치한 사찰지이다. 김생사지는 충청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1999년~2004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통일신라시대 김생이 이곳에서 修學했다는 기록과 김생재방과 관련된 전설이 사명(寺名)의 배경으로 보인다¹⁰⁾. (충청대학교박물관, 2014) 2004년 중원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중 “金生寺”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와 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고 “咸通十三”명 암막새가 출토되어 872년(경문왕12)에 이미 사역이 존재하였으며, 고려후기까지는 사찰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폐사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梵字銘 막새는 수막새만 확인되고, (om)자를 도식화한 寶珠形 圖像이 수막새 전면을 가득 채운 형태이며, 일반적인 보주형 도상보다 원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도식화하여 일휘문의 한 종류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충주 미륵리사지는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에 있는 절터이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며,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청주대학교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등에서 5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명문기와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고, 역원(驛院)시설이 확인되어 명칭이 2011년에 ‘충주 미륵대원지’로 변경되었다. 삼국유사에 미륵대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고려 충렬왕대까지는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梵字銘 막새와 일휘문 막새가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고려후기에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¹²⁾.

미륵리사지 막새 중 梵字銘 막새는 암막새 1종류와 수막새 2종류가 확인되었다. 암막새는 장방형을 활처럼 휘 형태가 아니라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 측면에 각이 없는 점이 특이하다. 드림새는 六子大明王眞言(𐄀𐄀𐄀𐄀, om ma ni pha dme hūṃ)으로 장식하고 있다. 수막새는 중앙에 일휘문을 두고 4개의 𐄀(ram)자를 배치하는 형태와 중앙에 𐄀(ram)자를 두고 주변에 진언을 적은 형태가 확인된다.

괴산 도원리사지는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에 위치한 사찰지로 창건이나 폐사에 대한 관련 문헌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식 발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표에서 수습되는 유물로 추정할 때 통일신라에서 조선전기까지의 와편과 막새가 확인된다. 범자명 막새는 암막새만 확인되며 弧狀形의 형태에 장식없이 범자 진언만이 시문된 형태가 나타난다.

충주 화안리사지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조사에 관한 자료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충청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되었으며, 현재 梵字銘 암막새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막새는 弧狀形의 형태에 연주문을 두르고, 중앙에 𐄀(om)자를 배치하고, 주변에 화려한 당초문으로 장식한 형태와 초승달 모양의 드림새에 중앙에 보주형 도상을 배치하고 좌우 끝단에 𐄀(om)자를 배치하고 중간에 명문을 시문한 2종류가 확인된다. 명문은 ‘嘉靖

8)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 박물관, 2011, 『충주 송선사지(5차 발굴조사 보고서)』.

9) 본인 논문에서는 ‘𐄀(ah)’자로 인식하였으나 다른 연구자에 의해 𐄀(hrih)일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였다.

10) 충청대학교박물관, 2014, 『충청대학교박물관 30년』.

11) 『삼국유사』권1, “계림령금미륵대원동령시아(鷄立嶺今彌勒大院東嶺是也)”.

12) 청주대학교박물관, 1978, 『미륵리사지발굴조사보고서』.

三十八年三月月’이 기재되어 있다.

청원 안심사는 충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위치한 사찰이다. 775년 眞表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1325년(충숙왕 12)에 원명국사가 중창하고, 1613년(광해군 5)비로전을 중건했으며, 1626년(인조4) 松庵이 중수하였다. 1672년(현종 13)에 대웅전을 중수하고 임진왜란때 폐사되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법통을 이어오고 있다. 확인되는 범자명 막새는 ‘康熙十一年壬子六月日’명문이 시문된 것으로 현종13년 대웅전 중수 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원형의 모양으로 상하에 선문을 두고 위쪽에 ㉸(om)자 일휘문 ㉸(om)자 일휘문 ㉸(om)자를 배치하고 아래에 시주자를 명문으로 남겼다. 선문 아래 역시 ㉸(om)자와 시주자를 명문으로 남겨놓았다.

대전 보문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존립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며, 1999~200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범자명 막새는 3종의 수막새와 1종의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수막새는 중앙에 일휘문을 두고 2종의 원권 밖에 ㉸자와 ㉸자를 혼합되어 사용한 양식과 보주형 도상이 사용된 것, 자방위치에 ㉸자를 시문하고 둘레에 연꽃잎을 시문한 형태가 확인된다. 암막새는 정확한 드림새 모양 확인은 어렵지만 수막새 중 ㉸자와 조합된 것의 짝으로 보이는 형태가 출토되었다.

청주 보살사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사찰이다. 567년(진흥왕28) 義信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진표의 제자 融宗에 의해 중창하고, 923년과 1107년 중창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458년과 1626년, 1683년 중건이 이루어졌다. 보살사 극락전에 사용된 범자명 수막새 1종이 보고되고 있다. 수막새 전면에 중앙에 원권을 두고 ㉸(om)자를 배치하고 주변에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영동 영국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에 위치한 사찰이다. 영국사에 대한 자료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명종 10년(1180)에 세워진 “원각국사비”, 그리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명문 기와 등이 있다. 기록상으로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7년(528)에 원각국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고려 문종대 대각국사(1055~1101) 시기에 두 번째 중창이 이루어졌다. 영국사는 고려시대 천태종이 성행되면서 명찰로 자리 잡았고, 원각국사 덕소의 탐비가 세워진 1180년경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고려 말~조선 초의 변화 속에 선종인 조계종 사원으로 분류되었다. 영국사지에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원각국사탑비와 명문 와당류가 출토되었다. 원각국사탑비의 제작시기인 1180년과 銘文瓦에 나타나는 1500년, 1559년은 영국사의 중요한 중창기이다. ‘弘治’명 수막새는 ㉸자를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에 명문을 배치한 형태이며, ‘弘治’는 1500년을 나타낸다. ‘嘉靖三十八年/己未’명 암막새는 내곡이 2회 이상인 형태로 조선시대인 1559년에 제작된 막새로 확인된다¹³⁾.

2. 중원지역 인근 유적

원주 법천사지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에 위치한 고려에서 조선까지 유지된 사찰지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001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현재 10차 발굴조사(2015년)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13) 충청대학 박물관, 2008, 『영동 영국사』.

법천사지의 창건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며, 몇몇 자료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에 928년 釋超(912~964)가 법천사에서 賢睿律師에게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原州 法泉寺Ⅲ: 549) 발굴조사 결과 7세기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신라말 창건을 증명하고 있다.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탑(국보 제 101호)이 있었으나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현재 경북궁에 옮겨져 있다. 현재는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만 남아있다. 고려시대 양대 교단인 화엄종과 법상종 중 법천사는 법상종계 사찰로 번성하였다. 이후 임진왜란 때 전 소된 뒤 중창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주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사찰이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나 명확하지 않다. 고려 말 나옹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며, 조선 성종3년(1472)에 영릉의 원찰이 되면서 중수가 이루어졌다. 중요문화재로는 祖師堂(보물 제180호),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등이 있다. 한성문화재연구원에서 2016년과 2017년 조사당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범자명 수막새 1종, 암막새 1종이 출토되었다.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寺址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사찰이다. 보원사지와 관련된 문헌기록으로는 창건과 폐사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다만 보원사지 인근에 위치한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여래입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창건 시기는 백제시대인 6세기까지 높여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여겨진다¹⁴⁾.

보원사지 발굴은 서산시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년간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현재 발간된 보고서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진행된 1~4차 발굴을 정리한 것이다¹⁵⁾. 현재까지 발굴결과 출토된 범자명 와당 중 수막새는 연화문의 자방부에 범자(om)를 넣은 형태 한 가지만 확인된다. 수막새에 비해 암막새는 종류가 3종류로 그 형태는 범자명과 당초문이 복합된 것, 범자명만 단독으로 사용된 것, 원권 안에 범자명과 운문이 조합된 것이 있다.

예산 수덕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사찰이다. 수덕사는 창건에서부터 고려시대 말까지의 기록이 뚜렷하지 않다. 몇 가지 기록에서 수덕사에 관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續高僧傳』 권28 백제국 達拏山寺 釋慧顯傳이다. 혜현이라는 승려가 백제의 북부 수덕사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 인용되기도 하였다¹⁶⁾. 그밖에도 寺傳에는 백제 법왕 원년(599) 지령대사가 창건하였거나, 백제 말에 승제법사가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朝鮮震興勝覽』(1910~37년 편찬)에서는 신라 문무왕 2년(662)에 원효가 창건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현재 수덕사는 백제시대부터 존재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수덕사와 관련한 기록 중 가장 확실한 근거자료는 수덕사 대웅전 수리 시 발견된 수리기이다. 대웅전 수리공사 당시 발견된 고려 충렬왕 34년(1308) 이후의 기록을 적은 명문에 의하면 1308년 대웅전 건축이 시작되고, 1528년 단청, 1630년과 1637년 기와를 바꾸고, 1803년부터 1805년까지 단청과 수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1688년 改修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된다¹⁷⁾. 현재 수덕사 대웅전의 와당은 1940년 수리 시 사용된 범자명 암막새와 연화문수막새가 없어져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서산 보원사지 I』, pp 20~21.

16) 『三國遺事』 卷 5, 惠現求靜, “...初住北部修德寺, 有衆則講, 無則持誦, 四遠欽風, 戶外之履滿矣...”

17) 德崇叢林 修德寺, 2003, 『수덕사 대웅전-1937년 보존 수리 공사의 기록-』, pp. 11~12.

있으며, 이는 1308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형식을 模本으로 사용하였다. 수덕사 대웅전 수리 당시 범자명 와당은 암막새 2종이 확인되었으며, 제작방법이나 접합각도 등이 유사하여 동일시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¹⁸⁾

보령 성주사지(사적307호)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백제시대 창건되어 통일신라말 문성왕대 성립한 九山禪門 중 하나이다. 개태사, 보원사와 함께 충남의 3대 사찰로 꼽을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다. 창건 당시에는 사찰 명칭이 ‘성주사’가 아닌 ‘烏舍寺’인 것으로 발굴결과 확인되었다. 『三國史記』에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는 통일신라시대 문성왕대에 성주사로 이름을 바꾸고 선종사원의 번성기를 누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폐사 시기는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면서 터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¹⁹⁾

성주사지는 1968, 1974년 2회에 걸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만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발굴은 1991년부터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 6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백제시대의 층위를 확인하였으며, ‘오합사’에 대한 문헌기록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였다²⁰⁾. 발굴된 유물 중 와당류는 연화문, 범자명 등이 있으며, 범자명의 경우 범자단독으로 사용된 것과 범자+초화, 범자+일휘, 범자+명문+초화문의 형태의 다양한 모양이 발굴되었다. 암막새에서는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논산 개태사지(충청남도기념물 제44호)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에 위치한 사찰 터로 936년 태조 왕건이 후백제 정벌을 기념하여 세운 사찰이다. 창건연대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다. 『高麗史』에 창건에 관한 기록이 전하며²¹⁾, 4년 후인 940년 낙성화엄법회가 열렸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를 통해 936년 건립을 시작하여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940년 완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개태사의 창건 이유를 전하고 있다²²⁾.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기록은 『高麗史』(1362)에서 확인되며²³⁾,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朝鮮王朝實錄』에 연산현의 치소를 개태사로 옮겼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⁴⁾.

개태사지에 대한 발굴은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하였으며, 1989년 11월부터 90년 1월까지 진행하였다. 발굴결과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대규모의 개수나 증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⁵⁾.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범자명 와당은 문양에 있어서 수막새 1종과 암막새 2종으로 구분된다. 수막새의 경우 범자명의 일종인 보주형 도상(유가심인도)²⁶⁾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보고서에는 초승달문양 등 형이상학적인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암막새 역시 보주형 도상을 사용한 2종류가 발굴되었다. 하나는 일휘문과 보주형 도상의 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초문과 일휘문, 보주형 도상이 함께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두 종류의 암막새는 외형적으로 弧狀形과 역삼각형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

18) 德崇叢林 修德寺, 위의 글, pp. 33~40.

19)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성주사』.

20)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義慈王 15年, “驛馬入北岳烏舍寺, 鳴匠佛宇, 數日死”

21) 『高麗史』 世家 卷2 太祖 19年條, “是歲 創廣興 理聖 彌勒… 內天王等寺 又創開泰寺於連山”.

22) 『新增東國輿地勝覽』 第 18 卷 連山縣 佛宇條, “…高麗太祖 十九年 征百濟大克獲 河內三十餘郡及 渤海國人 皆歸順 乃命有司 創建開泰寺 親製願文 手書略…”

23) 『高麗史』 世家 卷 40 恭愍王 11年條, “命僉議評理李仁復詣開泰寺太祖眞殿卜遷都江華不吉乃止.”

24) 『朝鮮王朝實錄』 卷 81 世宗20年 5月 16日, “…今連山縣遷于開泰寺. 夫開泰, 不宜立縣之地, 願待豐年移于他地…”

25)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3, 『개태사』, p. 50.

26) 유가심인도문은 광주 심신사지에 있는 ‘梵字碑’에 관한 연구에서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석의 이름이 ‘梵字碑’라고 불리는 것으로 유가심인도 문양이 범자의 도식화된 형태라고 해석되었다.(최몽룡(1978) 「光州 十信寺址 梵字碑 및 石佛移轉始末」, 『미술사학연구』 138·139, 한국미술사학회.) 실제로 이러한 문양의 외당은 개태사, 성주사에서 출토되는데 개태사의 경우 화염무늬장식으로, 성주사에서는 귀면문이 도식화 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암사지 보고서에서는 이 문양이 ‘極樂曼荼羅’를 표현하는 밀교의 문양인 유가심인도로 보고 있다.

고 있다. 이중 弧長型 형태의 와당에는 ‘꽃표’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연대를 추정케 한다.

영주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위치한 사찰이다. 676년 (문무왕16) 의상이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고려 정종 때 決凝이 중창하고, 이후 1372년(공민왕 21)에 圓應國師가 한차례 중수하고, 1580년(선조 19) 泗溟當이 중건하고 1746년(영조 22) 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1916년 해체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1358년(공민왕 7)에 화재로 인해 1376년(우왕 2)에 재건하였다고 한다. 확인되는 범자명 막새는 수막새 2종과 암막새 1종이다. 수막새는 원권을 두르고 그 안에 1자씩의 범자를 넣어 총 5개의 범자를 배치하였다. 중앙에 𑖀(hrih)를 배치하고 𑖔(om)과 𑖥(ni)를 포함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2개의 글자를 돌리고 있다. 다른 한 종류는 커다란 원권에 𑖔(om)자만을 가운데 배치한 형태이다. 암막새는 내곡이 3회인 역삼각형으로 중앙에 명문을 두 줄로 배치하고 좌우에 𑖔(om), 𑖥(ni)를 원권안에 시문한 형태이다.

수 막 새					
중원지역					
	충주 원동리사지	충주 송선사지	충주 김생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청주 보살사	대전 보문사지	대전 보문사지	대전 보문사지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인근지역					
	여주 신록사	원주 법천사지	영주 부석사	영주 부석사	서산 보원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지

표 1) 중원 및 인근 지역 출토 梵字銘 수막새

암막새					
중원지역					
	충주 청룡사지	충주 청룡사지	충주(북원예상) 송선사지	충주 화안리사지	충주 화안리사지
					
	(傳)충주 미륵리사지	괴산 도원리사지	청원 안심사	영동 영국사	영동 영국사
인근지역					
	여주 신륵사	원주 법천사지	원주 법천사지	영주 부석사	서산 보원사지
					
	서산 보원사지	서산 보원사지	예산 수덕사	예산 수덕사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	논산 개태사			

표 2) 중원 및 인근 지역 출토 梵字銘 수막새

지역	유적명	시기	출토유형	
			수막새	암막새
중원지역	충주 원동리사지	추정/삼국~	범자단독	
	충주 청룡사지	추정/고려후기~조선후기		범자+일휘 (호장형,내곡형)
	충주 송선사지	954년~	범자단독	범자+일휘
	충주 김생사지	추정/통일신라~고려후기	범자단독	
	충주 미륵리사지	추정/고려초기~	범자+일휘, 범자단독	범자단독
	괴산 도원리사지	확인불가		범자단독
	충주 화안리사지	확인불가		범자+당초, 범자+명문
	청원 안심사	775년~		범자+명문
	대전 보문사지	추정/고려말~조선	범자+만자, 범자단독, 범자+연화	
	청주 보살사	567년~	범자+선문	
	영동 영국사지	528년~	범자+명문, 범자+운문, 범자+연화	범자+당초
인근지역	원주 법천사지	신라말~임진왜란	범자단독	범자+연화
	여주 신흥사	추정/신라 진평왕~	범자+연화	범자+당초
	서산 보원사지	추정/6세기~임진왜란	범자단독	범자단독,범자+당초,범자+운문
	예산 수덕사	추정/백제~		범자+일휘
	보령 성주사	백제~임진왜란	범자단독, 범자+연화, 범자+초화	범자단독,범자+일휘,범자 +초화,범자+명문+초화
	논산 개태사지	936년~조선전기	범자단독	범자+일휘
	영주 부석사	676년~	범자단독	범자+명문

표 3) 유적별 출토유형

Ⅲ. 중원지역 출토 梵字銘 막새 형식분류

중원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범자명 수막새는 다양한 종류의 모양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기와 연구에 있어서 범자는 하나의 문양 종류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체적인 형식 분류와 제작 연대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태였다. 기존 와당연구에 있어서 문양은 제작 시기와 제작 주체등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연화문의 경우 시문된 앞의 양상이나 수, 자방의 역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되어진 반면 범자명 막새의 경우 형식분류에 대한 시도도 미비한 상태였다. 범자명 막새의 형식을 구분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드림새를 구성하고 있는 문양이다. 범자와 함께 조합되거나 범자만이 시문된 경우를 구분하고, 함께 조합된 문양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일휘문

과 사용시기가 유사한 범자명 막새의 특징이 일회문과의 조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범자명 막새가 대중적이고 폭 넓게 사용되어지면서는 연화문이나 시주자의 이름을 넣는 명문 등의 조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범자명 막새에 사용되는 범자의 서체의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주로 사용되는 서체는 실담자와 란차자이며, 이외에 도상화된 문양도 나타나고 있다. 글자체 뿐만 아니라 시문된 진언의 종류 등으로도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진언은 ‘육자대명왕진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자명 막새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이 제작방법의 변경시기와도 연계되어 막새의 접합 기법 모두가 시기에 따라 확인된다. 이는 범자명 막새의 연구에 있어서 문양뿐만 아니라 제작방법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원지역과 중원에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범자명 막새를 문양의 구성형태에 따라 형식분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막새 문양 중 일회문과 범자명은 고려시대 막새를 대표하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11세기에서 13세기에 주로 사용된 일회문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되던 시기를 지나게 되면 부속적인 무늬의 형태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범자명은 이에 반해 12~13세기를 기점으로 일회문과 함께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다가 단독 혹은 연화문 등 다양한 무늬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후 범자명 막새는 조선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사찰유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일회문과 다른 점은 범자명의 경우 꾸준히 막새 장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수막새

수막새는 그 드림새의 모양에 있어서 문양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정된 원형 안에 어울리는 문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연화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일회문도 수막새에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자 역시에 불교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진언이나 다라니 등이지만 수막새에 사용되는 경우 1자, 혹은 3자~6자 정도로 제한적인 문구만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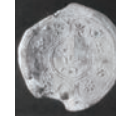
형식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범자+일회	범자+연화	범자 단독	범자+초화	범자+기하학	범자+운문	범자+만자
문양 구성							

표4) 중원지역 범자명 수막새 무늬별 분류

기존에는 문양의 구성에 따라 범자+일회, 범자+연화, 범자 단독, 범자+초화, 범자+기하학, 범자+운문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원지역과 인근에서 출토된 범자명 수막새는 그에 더해 범자+만자 유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범자와 일회문이 함께 사용되는 유형은 충주 미륵리사지와 대전 보문사에서 확인된다. 그중 대전 보문사지의

경우 중앙에 일휘문을 두고 주변에 범자와 만자를 돌아가면서 배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범자+연화문의 조합은 중원지역 내에서는 영동 영국사를 제외하고는 범자와 연화문이 함께 나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범위를 조금 넓히더라도 보령 성주사지와 여주 신륵사에서 출토되는 정도이다. 연화문은 막새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문양이고, 범자와의 조합되는 경우도 다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중원지역에서 그 사용예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범자가 단독으로 사용된 유형은 범자의 글씨체가 실담자를 사용한 것만 확인되며, 란차자는 찾아볼 수 없다. 새겨진 범자의 경우 𡇗(om)자 1자만을 사용한 경우와 보주형 도상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진언을 시문한 예가 확인된다. 범자의 서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란차자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원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범자와 초화문이 조합된 경우는 중원지역과 인접한 보령 성주사지에서 확인되고, 선문(기하학)과 조합된 경우는 청주 보살사에서 확인된다. 운문이 범자를 받치고 있는 형태는 영동 영국사지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수막새의 경우 짧은 명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 보문사지의 경우 ‘𡇗’자를 범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범자와 만자의 관계와 의미가 유사함을 추측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수막새에서도 명문이 확인되는데 2016년 조사된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서 발굴 조사된 범자+연화문 수막새에서 “癸巳” 명문이 확인되었다. 신륵사 조사당은 1469년 영릉의 원찰로 지정되고 1472년부터 중창이 이루어져 이듬해까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사용된 수막새로 추정된다. 함께 짝을 맞춰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암막새도 출토되어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막새에서 제작연대가 명문으로 남은 경우는 중원지역의 경우 영동 영국사에서 발굴된 “弘治”명 수막새가 있고, 경기 지역에서는 회암사지의 “孝寧大君”명 수막새 등이 있다.

출토지	여주 신륵사	영동 영국사	양주 회암사지
명문			
	癸巳	弘治	孝寧大君

표 5) 梵字銘 수막새 중 명문내용

2. 암막새

고려 조선시대 암막새는 그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시대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²⁷⁾. 범자가 시문된

27) 서창호, 2008, 「고려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대학원.

막새의 경우도 이러한 특징 안에 존재하기에 그 모양에 따라 형식분류가 진행되어 왔다. 다만, 본 글에서는 중원지역이라는 제한적 특징이 있기에 수막새의 분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양의 구성을 통해 구분해보고자 한다.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범자명 막새의 조합 형태는 범자명+일휘문, 범자 단독, 범자+당초문, 그리고 범자와 명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연화문과의 조합, 운문과의 조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형식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범자+일휘	범자 단독	범자+당초	범자+명문	범자+연화	범자+운문
문양 구성						

표 6) 중원지역 梵字銘 암막새 무늬별 분류

기존 분류에서 사용된 기준에 의하면 중원지역의 암막새는 드림새 평면형태가 장방형이 활처럼 휘어진 형태의 弧狀形과 역삼각형을 기본으로 굴곡이 1회 나타나는 內曲形, 내곡형에 굴곡이 2회 이상 나타나는 內曲添形 모두 확인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弧狀形에서 내곡형, 내곡첨형의 순으로 시기가 추정되고 있으며, 충주 청룡사에서 발굴된 弧狀形 암막새의 경우 운주사에서 조사된 형태와 내용이 흡사하여 범자명 막새로서는 이른 시기인 12세기말에서 13세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적	화순 운주사지	합천 영암사지(복원도)	충주 청룡사지
암막새 유형			
	충주 화안리사지		서산 보원사지
			
	영동 영국사	여주 신록사	
			

표 7) 유사한 형태의 암막새

또한 충주 화안리사지의 경우 범자+당초문의 조합으로 弧狀形을 띠는 암막새가 확인되는데 이는 서산 보원사에서 출토된 암막새와 형태와 문양면에 있어서 거의 일치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14세기 이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온 형태인 역삼각형의 암막새도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문양구성으로 분류할 때 범자와 일휘문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유적은 충주 청룡사지, 충주 송선사지, 원주 법천사지, 예산 수덕사,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弧狀形의 막새에서는 𪛗(om)자를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로 일휘문을 배치하고 주변에 범자를 시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역삼각형으로 변화하면서는 범자의 크기나 비율이 확대되고 일휘문은 크기가 축소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일휘문과의 조합으로 보주형 도상의 사용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동 영국사, 서산 보원사지, 여주 신륵사 등에서 확인되는 범자+당초문의 조합은 드림새 평면형태가 弧狀形일때는 중앙에 𪛗(om)자를 배치하고 좌우에 당초문을 시문하였으나, 역삼각형으로 변화 후에는 범자를 시문하고 이를 받치고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드림새의 형태에 따라 범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초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제작되는 암막새의 경우 역삼각형의 넓이가 넓어지면서, 범자와 일휘문이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고, 시주자의 이름이나 제작연대 등을 명문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자와 명문이 조합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범자와 명문이 함께 나타나는 유적은 청원 안심사, 보령 성주사지 등이다. 범자문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통 弧狀形의 형태에서 나타나며 진언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충주의 미륵리사지와 괴산 도원리 사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범자와 당초문의 조합, 범자와 연화문, 범자와 운문의 조합 등이 확인되나 그 수량이나 유적은 적은 편이다.

IV. 중원지역 梵字銘 막새의 변천과 특색

범자명 막새는 중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범자가 기와에 시문되기 시작한 고려 후기를 기준으로 창건이 이루어지거나 중창 불사가 행해진 사찰의 경우 많은 수가 범자가 시문된 막새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시대 창건되었다가 고려시대 폐사된 사찰이나, 고려시대 창건되었으나 중창되지 못하고 고려시대에 폐사된 사찰에서는 범자기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엄기표, 2014: 185)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범자의 유형은 서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대장경이나 진언집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체인 ‘실답자’로 한자의 해서체처럼 붓글씨체와 비슷한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란자자’로 현대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자체와 유사하며, 각진 형태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보주형 도상(유가심인도)’²⁸⁾ 나타나고 있다. 보주형 도상(유가심인도)은 충주 김생사지, 논산 개태사, 보령 성주사지 등에서 출토되는데 충주 김생사지는 일휘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개태사의 경우 화염무늬장식으로²⁹⁾, 성주사에서는 귀면문이 도식화 된 것으로 설명하는 등 범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범자에 대한 연구가 늘어가면서 범자의 한 부류로 확인되고 있다³⁰⁾.

28) 경기도박물관에서 출간한 회암사지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밀교의 상징인 유가심인도문으로 보고 있으나, 𪛗(om)자를 도식화하면서 나타난 형태로 여겨 보주형 암자 도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주형 도상(유가심인도)”로 칭하도록 하겠다.

29)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3, 앞의 책, p. 35.

30)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성주사』, p. 217.

범자명 막새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 후기로 12세기말에서 13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막새기와 의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막새와 평기와의 접합방법에 있어서 ‘L’자형의 접합기법을 사용하다가 ‘ㄱ’자형 접합기법을 거쳐 13세기부터 주로 사용되는 ‘ㅅ’자형 접합기법이 선보이는 시기이다³¹⁾. 이런 현상과 맞물려 범자명 막새는 초기 제작된 유물은 접합각이 90°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조선시대 이후 제작된 경우는 120°이상의 접합각을 보이는 유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³²⁾. 중원지역 내에서 발굴되는 막새의 유형에 따라 접합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물의 수량이 적다는 한계는 있으나 대체로 위의 제작방법에 따른 구분과 범자사용 막새의 시기는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원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범자명 수막새의 경우 전국적인 성격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자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문양을 선호하였으며, 이외의 문양은 운문이나, 연화문의 활용이 눈에 띈다. 다만 범자 이외에 다른 문양과 조합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이 중원지역 내에서는 영동 영국사뿐이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더라도 보령의 성주사지, 서산의 보원사지 정도라는 점에서 중원의 중심보다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체로 중원지역내에서는 범자의 조합보다는 범자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수막새를 장엄하는 방식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막새에 시문된 범자의 글자체는 실담자와 보주형 도상(유가심인도)만이 확인된다. 수막새 그 모양에 있어서는 자 1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진언(대명왕진언)을 사용한 경우가 충주 송선사지에서 확인된다. 보주형 도상을 사용한 경우가 충주 김생사지에서 보이고, 범자와 만(卍)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도 대전 보문사지에서 확인된다.

암막새의 경우 범자와 일휘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범자와 당초문이 조합된 유형의 순이다. 암막새의 드림새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화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고, 공간에 시주자의 이름이나 제작년대를 남기는 명문이 자리하는 경우에 범자와 함께 시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범자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림새 모양이 弧狀形일 때 많이 사용된 경향이 보인다. 이외에도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암막새의 경우 연화문과 범자를 사용한 예가 보이고 있다. 사용된 범자체로는 실담자가 주로 나타나고, 보주형 도상, 란차자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암막새는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형과 매우 친밀감을 띠고 있는 유물이 보이고 있다. 먼저 여주 신륵사에서 출토된 암막새와 영동 영국사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그 모양이나 구성이 매우 흡사해 보인다. 원권을 3개 배치하고, 각 원권안에 범자를 배치한 점이나 원권을 당초문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이 유사하다. 다만, 원권안의 범자는 영동 영국사가 좌측부터    인 반면 신륵사는   로 중앙에 을 배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사와 신륵사 출토 암막새는 형태적인 유사성 뿐만 아니라 제작시 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마치 기와 표면에 마연을 한 것 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다. 충주 화안리사지에서 확인된 암막새와 서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형태나 문양 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弧狀形의 드림새에 주변에 연주문을 배치하고, 중앙에 방형의 곁을 두어 자를 배치하고, 좌우에 당초문을 채워 넣을 모습은 동일한 와범

31) 이호경, 2007,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2) 이상규, 2013, 앞의 글

을 사용했다고 해도 무난해 보인다. 이처럼 다른 유적에서 친연성을 띠는 막새가 출토되는 것은 제작자의 이동이나 재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³³⁾. 특히 암막새의 경우 제작연대가 확실한 명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중원지역 내에서는 保寧 聖住寺址(正德13年, 1518年), 保寧 聖住寺址(嘉靖27年, 1548.03), 忠州 崇善寺址(萬曆己卯, 1579年), 忠州 花顔里寺址(嘉靖38年, 1559.03), 淸原 安心寺(康熙11年, 1672.05), 榮州 浮石寺(1718.03) 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암막새의 드림새 면적이 늘어나면서 명문의 양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명문으로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15세기를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명문 보다는 형태나 제작방법을 통해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V. 맺음말

고려말 조선초는 기와연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작 방법에 있어서 막새와 평기와의 접합방법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고, 암막새의 드림새 형태가 弧狀形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아래를 향하는 역삼각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문양면에서는 연화문과 일휘문을 이어 드림새를 장식하는 요소로 범자가 등장하여 활발하게 사용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범자가 막새의 드림새를 장식하는 것에 있어서 문양(紋)의 역할과 문자(銘)의 역할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이 있었다. 범자는 불경에 사용되는 문자이며, 염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진언과 다라니의 표현문자이다. 결국 문자로서 막새와 불교 장엄구에 사용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서체의 변화와 도식화된 새로운 형태의 범자를 생산하면서 장식적인 요소도 충족할 수 있는 문양의 역할도 증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중원지역의 많은 사찰유적에서 범자명 막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범자와 어떤 문양이 조합되었는지에 따라 수막새는 7가지, 암막새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막새는 범자와 일휘문, 범자와 연화문, 범자만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초화, 기하학(선문), 운문 등과 함께 사용된 유형도 있었다. 암막새는 일휘문, 당초문, 명문, 연화문, 운문 그리고 범자만 사용된 유형이 확인되었다.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범자명 막새는 고려 후기인 13세기 말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 청룡사지 출토 암막새와 화안리사지 출토 암막새가 이른 시기에 사용된 막새로 여겨지며, 명문으로 제작연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암막새를 통해 17세기까지 꾸준히 梵字銘 막새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막새에 비해 수막새의 사용시기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이른 시기 사용된 암막새의 경우 일휘문과 조합인 경우가 많았는데 수막새에서는 동일한 조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측하건데 일휘문과 범자 조합의 암막새는 일휘문의 수막새와 짝을 이뤘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에 비해 범자명 수막새는 14세기 이후에 범자 단독으로 시문되는 형태가 많아지는 점과 연화문 조합의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중원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사찰

33) 엄기표, 2014,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17-인천의 학림사지와 인천도호부지에서 사용된 범자기와가 재활용된 것을 추정되고 있다.

의 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범자명 막새의 연구에 있어서 제작기법이나 문양의 조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범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의미일 것이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일회문과 범자는 부처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 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밀교에서 주존불로 여기고 있는 大日如來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불전 앞에 위치하는 석등의 경우 등불을 밝힌다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우리말 ‘불’과 부처를 나타내는 ‘佛’의 음이 같음을 염두에 둘 때 부처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치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처를 모시는 건물의 한계로 인해 많은 인원이 법회나 강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은 불전 밖에 또 다른 부처를 상징하는 존재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탑’이다. ‘탑’의 경우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거나 경전을 봉안하는 형식으로 불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 후기 불교에서 밀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와의 장식에게까지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바로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일회문’을 채용한 막새나, 불교 최고의 성음으로 여겨지는 ‘ (om)’자를 새김으로 여러 대중에게 불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범자를 통해 수행하는 밀교 또는 禪宗系 불교의 종교사상에 대한 연구와 종교를 통한 현실극복을 추구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범자의 등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범자가 나타내는 진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史料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論文

고정용, 2012,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고려 범자기와」, 『皆蓋以瓦 高麗瓦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남권희, 2005, 「한국 기록문화에 나타난 진언의 유통」, 『밀교학보』, 7.

박은경, 1988, 「고려와당 문양의 편년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서창호, 2008, 「고려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대학원.

엄기표, 2013, 「寶珠形 唵(om)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 제14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엄기표, 2014,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17.

이상규, 2013,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외당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54.

이호경, 2007,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田福涼, 2006, 「송선사지의 창건 막새」, 『문화사학』, 26, 한국문화사학회.
 최몽룡, 1978, 「光州 十信寺址 梵字碑 및 石佛移轉始末」, 『미술사학연구』 138 · 139, 한국미술사학회.
 최정혜, 2017, 「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 『중원의 와당』.

單行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서산 보원사지 I』.
 경기도박물관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회암사 III』.
 경기도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회암사 I -시굴조사 보고서』.
 경기도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회암사 II』.
 德崇叢林 修德寺, 2003, 『수덕사 대웅전-1937년 보존 수리 공사의 기록-』.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3, 『사적259호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 · II』.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3, 『용인 마북리』.
 유창중 외, 2009,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이태승 · 최성규, 2008, 『실답범자입문』, 정우서적, 서울, 대한민국.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4, 『운주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8, 『운주사 II』.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0, 『운주사 III』.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4, 『운주사 IV』.
 청주대학교 박물관, 1978, 『미륵리사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3, 『개태사 I』.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성주사』.
 충주산업대학교 박물관, 1996, 『충주 청룡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대학 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 박물관, 2008, 『영동 영국사』.
 충청대학 박물관, 2011, 『충주 송선사지(5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대학교박물관, 2014, 『충청대학박물관 30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5주제 토론문

● 「고려말 · 조선초 중원지역의 梵字銘 막새 변천과정」에 대한 토론

윤 용 희(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 정비사업추진단)

본 발표문은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지역(대전 포함) 11개 유적과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여주, 충남 논산 · 서산 · 예산 · 보령 등 중원 인근 지역의 7개 유적에서 출토된 고려말~조선초 梵字銘 막새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위 18개 유적에서 출토된 범자명 막새를 수막새와 암막새로 나누어 형식을 분류하고, 범자명 막새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범자와 조합되는 문양의 종류에 따라 수막새는 A(범자+일휘), B(범자+연화), C(범자 단독), D(범자+초화), E(범자+기하학), F(범자+운문), G(범자+군자)의 7가지 유형으로, 암막새는 A(범자+일휘), B(범자 단독), C(범자+당초), D(범자+명문), E(범자+연화), F(범자+운문)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원지역 범자명 막새의 특징과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을 일정 부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자명 막새는 주로 고려~조선시대 유적에서 흔히 발견되는 막새의 한 종류로 범자는 密敎의 眞言을 담고 있는 문자로 인식되면서도 연화문이나 당초문 같은 문양의 범주에서 막새 문양의 특수한 한 형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범자의 서체와 유형, 문양 구성, 막새의 형태와 제작기법, 출토 양상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범자명 막새 연구가 명실상부하게 고고학적 연구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발표 또한 발표자가 지난 몇 년간 활발히 진행해 온 범자명 막새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중원지역 범자명 막새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그동안 범자명 막새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발표자의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하며, 배우는 자세로 범자명 막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토론자가 평소 궁금해 하였던 몇 가지 질문과 이번 발표문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범자명 막새의 출현 시기

발표자는 범자명 막새의 출현 시기를 12세기 말에서 13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다른 논문을 보면 화순 운주사지를 비롯하여 합천 영암사지, 강화 선원사지, 서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범자명 막새를 초기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자명 막새의 초기 형식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인지, 편년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출토 현황을 보면 위의 초기 막새가 얼핏 전남, 경남, 경기, 충남 등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범자명 막새가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자는 중원지역 범자명 막새 출현 시기를 13세기말로 추정하면서 충주 청룡사지와 충주 화안리사지 출토 암막새를 가장 이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청룡사지 암막새는 범자가 日暉文과 조합되었고, 화안리사지 암막새는 범자와 唐草文이 함께 시문된 형식이며, 막새 형태는 모두 弧狀形입니다. 중원지역 초기 암막새에 범자와 일휘문 혹은 당초문이 조합되는 것은 타 지역 초기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편년 상 중원지역과 타 지역 간에 시기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역 초기 범자명 암막새와 비교하여 중원지역 출토 암막새의 편년을 13세기말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 문양 구성, 막새 형태, 접합 각도 변화의 상관관계

범자명 막새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막새 형태의 변화와 접합 각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발표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암막새 형태가 장방형 호를 이루는 弧狀形에서 내림새 면이 아래로 넓어지는 역삼각형-內曲形(1회 내곡)과 內曲添形(2회 이상 내곡)으로 세분-으로 변화하며, 수막새의 경우 둥근 원형에서 아랫부분이 뾰족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새의 접합 각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 전통인 90°에서 시작하여 120°까지 점차 鈍角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막새는 막새 문양과 막새 형태, 접합각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시기적으로 크게 12~13세기, 14~15세기, 16세기 이후의 3단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표자도 이와 같은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하신 13세기말에서 17세기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갖는 중원지역 범자명 막새가 문양 구성, 막새 형태, 접합각도라는 측면에서 변화하는 양상과 상관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호상형→내곡형→내곡첨형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嘉靖三十八年月(1559)’ 명문이 있는 충주 화안리사지 출토 초승달 형태의 암막새의 출현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막새 형태를 중원지역 범자명 막새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범자명 막새 변천의 배경과 시기 구분

그동안 축적된 범자명 막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범자명 막새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크게 3단계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2단계는 14~15세기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1392년 조선 건국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로 약 200년의 시간 폭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이 시기 범자명 막새의 특징은 범자와 연화문의 조합이 두드러지며, 범자 단독 형식이 나타납니다. 막새 형태는 내곡형으로 변화하며, 접합 각도도 110° 이상으로 벌어지는 개체가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기에 일회문 혹은 당초문에 범자를 조합하던 방식에서 범자가 독립적인 意匠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해되는 바가 있지만 연화문이 새로이 범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중원지역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연화문과 범자가 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새의 접합기법과 관련하여 둔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제와장 민속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목 위에 점토를 깔고 瓦范을 위에서 눌러 문양을 찍는 이른바 ‘스’자형 제작방식으로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왕조 변천을 염두에 두고 막새가 둔각을 이루고 뒷면에 布木痕이 있는 것은 조선시대 막새라고 이해했던 통념을 깨뜨리는 실증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을 앞당긴 연구 결과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14세기 중에서도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와 같은 연대 설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앞으로 새롭게 출토되는 자료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6주제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김 경 범(고운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 II.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
- III. 남한강 유역 기와 출토 유적 현황
- IV.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 V. 맺음말

I. 머리말

지리적으로 중원지역(中原地域)¹⁾은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이 접경을 이루던 전략적 요충지로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곳으로 독자적인 문화와 함께 삼국의 문화가 혼합(융합)된 특성을 지니는 지역으로 '중원문화'라는 특징적인 양상을 지닌다.

남한강(南漢江)은 강원도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의 북부지역인 단양·제천·충주를 동-서로 관통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 본류를 이룬다.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동-서로 관류하는 관계로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소백산맥의 영로(領路)를 축으로 한 육상교통로가 남한강과 연결되면서 영남지방과 한강 유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남-북 교통의 최고 요충지가 되었다.

중원지역에서 와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6년에 조사된 '중원 문주리 와요지(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²⁾가 발굴조사되어 보존되면서부터이다. 중원 문주리 와요지가 발굴조사된 이후 각종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유적이 발굴조사되었고, 와요지 또한 통일신라시대 ~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가마가 다수 조사된 바 있다.

기와의 생산과 사용은 삼국시대 이래 계속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소성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산유구인 와요에 가장 잘 반영된다. 이러한 와요지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소비지인 건물지 등에서 출토되는 기와에 비해 편년설정에 좀 더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급관계 연구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1) 중원지역은 좁게는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넓게는 지금의 충청북도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글에서는 남한강 유역의 분류가 지나가는 충북권역의 세 개 시·군인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중원 문주리 와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본 글에서는 먼저 중원지역(단양·제천·충주) 와요지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를 파악 한 후, 남한강 유역 기와 출토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토대로 남한강 유역 기와의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생산 및 유통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력한 자료이나 중원지역 기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에서의 발굴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택지(아파트·주택단지 등)조성, 도로 개설(고속도로 등), 공장건설(산업단지 등)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구제발굴조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원지역 중 본 글에서 다루는 남한강수계의 북부권(본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충주시의 와요지에 대한 발굴된 유적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원지역 기와가마터 발굴조사 현황

기와(瓦)는 고대부터 왕궁이나 사찰 등의 관영건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부재이다. 이러한 기와를 생산하는 곳이 기와가마터(瓦窯)이다. 瓦窯는 고려시대에는 瓦所, 조선시대에는 瓦署를 중심으로 한 官窯에서 기와의 생산을 주로 전담하였으며, 私窯도 성행하였다.

중원지역에서 처음으로 瓦窯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중원 문주리 와요지’이다. 1986년 중원 문주리 와요지가 조사된 이후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통일신라시대의 와요지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와요지가 다수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 삼국시대 와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가마터는 12개 유적 총 48기로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³⁾

<표 1> 중원지역(단양·제천·충주) 기와가마터 발굴조사 현황

지역	유적명	시대	가마(수)	조사기관	발간년도
단양군 (3)	단양현천리 하현천유적 ⁴⁾	고려	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조선	9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구역 내 유적(Ⅰ지구 ⁴⁾)	조선	2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년 조사)	미발간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 ⁵⁾)	조선	2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제천시 (2)	제천 하소동 안담유적 ⁶⁾	고려	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제천 왕암유적 ⁶⁾	조선	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3) 위의 <표 1>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현천리 하현천 유적』 제Ⅴ장. 고찰의 표 17을 발췌 후 수정함.

지역	유적명	시대	가마(수)	조사기관	발간년도
충주시 (7)	중원 문주리유적	조선	1(민요)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충주 창동리(쇠꼬지)유적 ⁴⁾	조선	1(민요)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두정리유적 ¹⁰⁾	조선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노계마을 고려시대 야철유적 ¹¹⁾	고려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모남리유적 ¹²⁾	조선	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¹³⁾	조선	1차 발굴 (6) 4차 발굴 (1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미발간
	충주 용탄동 학골유적	고려~조선	1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미발간
총 계	총 12개 유적	고려~조선	48기	한선문(4), 중원문(3), 중앙문(2), 충주대(1), 충북문(1), 동아문(1)	

위의 [표 1]에서 보면 하나의 유적에서 대부분의 와요지가 통상 1기(단독) 또는 2기가 발굴조사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대량으로 기와가마를 생산한 유적은 크게 2개 유적으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과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1)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9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유적은 충북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유물포함층 및 기와가마가 확인·보고되었다. 발굴조사는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의해 2011년 4월 19일 ~ 8월 31일(실조사일수 43일)까지 실시·완료되었다.

유적의 입지는 덕절산(해발 780.2m)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산 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하며, 북쪽으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남동쪽에서 흘러 온 죽령천이 남한강에 흘러 유입된다. 발굴조사결과, 구석기유물포함층, 기와가마 17기(고려시대 8기, 조선시대 9기), 시대미상 소성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기와가마는 해발 137~140m의 능선 사면 하단부에 8기가 분포하며, 모두 반지하식 구조를 보인다. 조선시

4)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현천리 하현천 유적』.

5)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구역 내 유적(Ⅰ 지구)』.

6)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수양개 Ⅲ 지구 구석기유적(10차)』.

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제천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부지 내 제천 하소동 안담유적』.

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제천 왕암유적』.

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용두-금가간 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내 충주 창동리유적』.

10)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발굴조사보고서 - 충주 두정리유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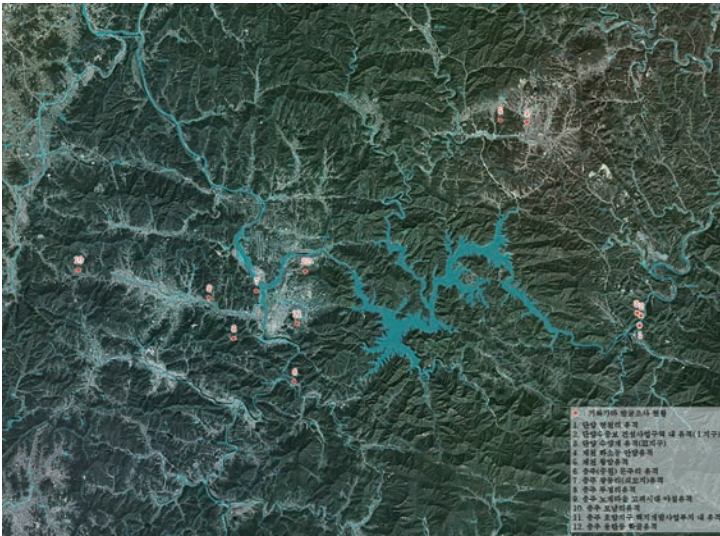
1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노계마을 고려시대 야철유적 -』.

1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2구간내 음성 육령리·오생리 및 충주 모남리유적』.

1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대 기와가마는 해발 141~145m에 9기가 분포하며, 가마의 구조는 지하식과 반지하식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

고려시대 유물은 평기와 91점(수키와 7점, 암키와 84점), 특수기와 1점, 전돌 2점 등이며, 조선시대 유물은 평기와 148점(수키와 64점, 암키와 84점), 석제품 1점, 벼루 1점 등 150점이다. 고려시대 기와의 문양은 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조선시대 기와는 집선문과 청해 파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고려시대 1·5호 기와가마에서 ‘仲巳五月日造’ 명 명문와가 출토된 바 있다. 이렇듯 남한강변에 위치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은 고려~조선시대 기와가마가 중복현상 없이 조성되어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가마구조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라 하겠다.



〈사진 1〉 중원지역 기와가마터 분포 현황



〈사진 2〉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전경(항공사진)



〈도 1〉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유구배치도

2)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본 유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로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지현동 일대에 해당하며, 전체 면적은 145,854m²이다. 충주 호암동 유적은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구석기, 분묘, 토성, 기와가마 등이 조사된 충주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유적으로 평가된다. 이 중 기와가마는 1차 발굴조사에서 6기

(조선시대 전기), 4차 발굴조사에서 12기(조선시대 후기) 등 총 16기가 조사되었다.

기와가마는 지하식의 등요로서 1차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6기의 기와가마는 창해파문, 차륜문+집선문(복합문)이 시문된 평기와편 및 전(塼)편, 화문이 시문된 암기와편 등을 통해 볼 때 조성시기는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하였다. 특히, 6호 기와가마의 경우 소성부 내에서 암기와와 수키와, 전(塼)이 소성시 재임상태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가마의 길이방향으로 수키와를 양측벽과 가운데에 총 3횡으로 배치하였고 암기와는 수키와 사이에 옆으로 세워져 재임하였다. 연소실과 인접한 곳에는 소문전을 재임하였는데,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조선시대 기와가마 조업시 기와재임방법과 가마 1기당 1회 조업시 생산량¹⁴⁾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소성실과 연소실까지 양호한 상태로 진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턱이 2~3단이다. 가마의 벽체보수흔적 및 단면조사를 참고해보면 최소 2회 이상의 조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4차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12기의 기와가마는 창해파문, 복합집선문 등의 평기와편과 공반유물인 백자발편 등을 통해 볼 때, 조성시기는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하였다. 특히, 가마 내부에서는 창해파문, 복합집선문이 시문된 평기와편을 비롯하여 소문전, 망와편, 암막새편 및 백자발편 등이 출토되어 기와류 뿐만 아니라 자기류도 같이 생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마의 벽체보수흔적 및 단면조사를 참고해보면 최소 1~2회 이상의 조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진 3〉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기와가마
(1차 발굴조사) 전경(항공사진)



〈사진 4〉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기와가마
(4차 발굴조사) 전경(항공사진)

14) 6호 기와가마 내 출토유물의 수량 및 비율을 살펴보면 1회 생산량이 약 551장(수키와 50장 - 약 9%, 암기와 약 251장 - 약 45.6%, 전(塼) 250장 - 약 45.4%)이 재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남한강 유역 기와 출토 유적 현황⁵⁾

〈표 2〉 남한강 유역(단양·제천·충주) 기와 출토 유적 현황

지역	유적명	유적종별	유구유형	기와종류	시대	조사기관	발간년도
단양군 (4)	단양 일명사지 ¹⁶⁾ (중방리사지)	사지	건물지	막새, 평기와	고려~ 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단양 온달산성 ¹⁷⁾	관방	남서 회절부	평기와	통·신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2013
	온달산성 ¹⁸⁾ (2015년 발굴조사)	관방	집수 시설, 성벽	평기와	통·신~고려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기숙형중학교 신축부지 내 유적 ¹⁹⁾	생활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제천시 (15)	제천 덕주산성 ²⁰⁾	관방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6
	청풍 南倉址 ²¹⁾	공공(外倉)	건물지	평기와	통·신~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청풍 北倉址 ²²⁾	공공(外倉)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청풍 西倉址 ²³⁾	공공(外倉)	건물지	평기와	조선 후기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유적 ²⁴⁾	공공(추정)	건물지	막새, 평기와	고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제천 德周寺 極樂殿址 ²⁵⁾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평기와 외	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2006
	제천 명암리 미륵당이유적 ²⁶⁾	사지 (추정)	건물지	평기와	고려	충북대학교박물관	1991
	제원 傳 淨金寺址 ²⁷⁾	사지	건물지	평기와	삼국~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제천 장락사지 ²⁸⁾ (2)	사지	건물지	명문와, 치미, 연목와 외	삼국~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2004, 2008

15) 앞의 〈표 1〉에서 와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므로 제Ⅲ장의 〈표 2〉에서는 와요지에 대한 현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유적에 대해 1개 기관이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했거나 2개 기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유적조사건수는 각각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위의 〈표 2〉는 김인한, 2012, 『증원지역 기와 출토 유적 현황과 성격』, 『증원문화와 기와』, 한국기와학회, 53쪽 표 1을 발췌 후 수정함.

16) 정명호, 1984, 「단양 일명사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7)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2013, 「단양 온달산성 - 서문지 일원 발굴조사보고서」.

18)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온달산성 - 2015년 발굴조사 보고서」.

19)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장발리 202번지 유적」.

20)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6, 「제천 덕주산성 - 상성문지 및 서측 성벽 정비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21) 차용걸, 1984, 「청풍 남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22) 윤세영, 1984, 「청풍 북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23) 차용걸, 1984, 「청풍 서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2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 유적」.

25) 충청대학교박물관, 2006, 「제천 덕주사 극락전지 발굴조사 보고서」.

26) 김홍주·김성명·소재구·박진우, 1991, 「제원 명암리 寺址遺蹟 발굴조사 보고」, 『증양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지역』, 충북대학교박물관.

27) 정명호, 1984, 「제원 傳 淨金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28) 충청대학교박물관, 2004, 「제천 장락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8, 「제천 장락사지 -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지역	유적명	유적종별	유구유형	기와종류	시대	조사기관	발간년도
제천시 (15)	청풍 읍리 逸名寺址 ²⁹⁾	사지	건물지	명문와, 평기와	삼국~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제천 하소동유적 ³⁰⁾	제사	건물지	평기와	조선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제천 왕암유적	樓亭(추정)	건물지	막새, 평기와	고려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제천 신월동유적	미상	건물지	평기와	조선 중기	한국문화재단	2003
	제천 왕암동유적	미상	건물지	평기와	고려 후기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시 (29)	충주 馬山烽燧 ³¹⁾	관방	건물지	평기와	조선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周井山烽燧臺 ³²⁾	관방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
	충주산성 ³³⁾ (2)	관방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2005
	충주 호암동유적 ³⁴⁾	관방(토루)	건물지(추정)	평기와	고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北倉址 ³⁵⁾	공공(外倉)	건물지	평기와	조선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충주 倉洞里 (창발)유적 ³⁶⁾	공공 (추정 漕倉址)	건물지	평기와	고려~ 조선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倉洞里 (쇠꼬지)유적 ³⁷⁾	공공 (추정 漕倉址)	건물지	명문와, 평기와	조선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청풍헌유적 (충주읍성 내) ³⁸⁾	공공 (관아)	건물지	막새, 평기와	통 · 신~고려	충청대학교박물관	2008
	충주 김생사지 ³⁹⁾ (2)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귀면와 외	통 · 신~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2006
	충주 미륵리사지 ⁴⁰⁾ (대원사, 미륵대원지 (5))	사지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치미 외	고려~조선	청주대학교박물관	1978 1979 1992 199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2
	충주 본리 당저 I 유적 ⁴¹⁾	사지	건물지	평기와	고려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송선사지 ⁴²⁾ (3)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연목와 외	고려~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2006, 2011, 2016

29) 정영호, 1984, 『淸風 邑里 逸名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물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3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제천 하소동 아파트신축부지 내 제천 하소동유적』.

3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忠州 馬山烽燧』.

32)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 『忠州 周井山烽燧臺 발굴조사 보고서』.

3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忠州山城 - 東門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5, 『忠州山城 - 동문 남측 저수지 시 · 발굴조사 보고서』.

3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호암동유적 - 2009년 발굴조사 보고』.

3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충주 용두-금가간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충주 金生寺址』.

36) 원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倉洞里 · 樓岩里 遺蹟 - 충주 가금-칠금간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3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용두-금가간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충주 창동리유적』.

38) 충청대학교박물관, 2008, 『충주 淸風軒 주변 시굴조사 보고서』.

39) 충청대학교박물관, 2006, 『충주 金生寺址』.

지역	유적명	유적종별	유구유형	기와종류	시대	조사기관	발간년도
충주시 (29)	충주 정토사지 ⁴³⁾ (개천사지)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평기와	고려~조선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충주 청룡사지 ⁴⁴⁾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평기와	조선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1996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주변 사지 ⁴⁵⁾	사지	건물지	막새, 평기와	통 · 신~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2009
	증원 탑평리사지 ⁴⁶⁾	사지	건물지	명문와, 막새, 평기와 외	삼국~고려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93
	충주 탑평리유적 ⁴⁷⁾	생활	건물지	막새, 평기와	삼국	국립증원문화재연구소	2009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북측) 내 유적 ⁴⁸⁾	미상	건물지	평기와	조선	충청대학교박물관	2010
	충주 가흥리유적 ⁴⁹⁾	미상	건물지	평기와	조선 중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충주 안림동 954-6번지 유적 ⁵⁰⁾	미상	건물지	막새, 평기와	고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금곡리유적 ⁵¹⁾	생활	건물지	평기와	조선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총 계	총 39개 유적 (유적조사건수 49건)	사지(14), 공공(8), 관방(7), 생활(3), 누정(1), 제사(1), 미상(5)			삼국~ 조선	대학박물관 및 대학연구소, 재단법인, 연구소	1984 ~ 2017

40) 청주대학교박물관, 1978, 『彌勒里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1979, 『彌勒里寺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주대학교박물관, 1992, 『중원 彌勒里寺址 4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1993, 『大院寺址 · 彌勒大院址 - 중원 미륵리사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4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본리 · 영평리 · 완오리유적』.

42) 충청대학교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 - 시굴 및 1~4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1, 『충주 송선사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43) 정영호, 1984, 『중원 淨土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44)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1996, 『충주 청룡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45) 충청대학교박물관, 2009,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주변 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46)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93, 『증원 탑평리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1994, 『93 증원 탑평리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47) 국립증원문화재연구소, 1993, 『충주 탑평리유적(中原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48) 충청대학교박물관, 2010,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북측)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49)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충주 가흥리유적 - 충주 가흥리 전원주택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5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안림동 954-6번지 유적』.

51)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충주 금곡리유적 - 충주 금곡리 토석채취장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V.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

1. 기와가마의 입지 및 성격

1) 기와가마의 입지

기와제작과 관련하여 기와가마의 위치는 강이나 해안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김경미 2011)⁵²⁾, 충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내륙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내륙에 자리하지만 남한강은 서울·경기지역으로 흐르며, 예로부터 조운(漕運)의 역할을 하였다.

남한강 본류에서 기와가마가 근접한 유적은 6곳으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구역 내 유적(I 지구),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 충주 창동리유적 등이 분포하며,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분포하는 기와가마는 충주 문주리유적,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남한강 본류 및 지류에 분포하는 기와가마는 6곳의 유적으로 이중에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을 제외한 다른 기와가마 유적은 물길과 약 200~900m 정도의 이격거리를 보이는 반면,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은 물길과 불과 100m 이내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을 제외하고 충북지역 대부분의 기와가마는 하천지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천변에서 직선거리로 약 5~10km 이내에 위치하고 지류 하천들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심이 낮아 수로를 통한 기와의 운송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로를 통해 기와를 보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와가마의 수가 적고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인근에 소비처를 두고 공급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기와가마의 경우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기와가마의 수나 밀집도가 다른 수계 및 지역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남한강을 이용하여 수로를 통해 인근지역을 포함한 원거리까지 기와를 보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⁵³⁾.

2) 기와가마의 성격

기와가마는 소비지를 기준으로 관요(官窯), 민요(民窯), 사찰요(寺刹窯)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민요(民窯)는 마을이나 사원 등에 기와를 공급했던 가마를 통칭한다. 조선시대 가마의 특성중에 하나는 전국적인 민요의 증가이다. 전 시기에 비해 민요가 증가한 원인은 물론 수요의 증가를 꼽을 수 있지만, 고려시대 후기 와소(瓦所)의 해체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정신 2007)⁵⁴⁾.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민요로 확인되는 가마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민요의 특성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비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중원지역 기와가마 중 민요로 파악된 유적은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 중원 문주리유적,

52) 하지만, 대규모 기와가마 유적인 공주 마곡사 기와가마(사찰요; 56기)의 경우 인근의 마곡사로 기와를 납품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강변에 자리한 대규모 군집을 이룬 원주 안창리 기와가마(사찰요; 26기) 또한 흥법사로 기와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53) 김경미, 2011,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충주 창동리(쇠꼬지)유적 등 3곳이다.

①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 기와가마

본 유적은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24-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기와가마는 2기(조선시대)가 발굴조사되었다. 가마 내부에서 ‘단양(丹陽)’명 기와가 출토되어 인근의 단양향교(남서쪽으로 약 1.5km 이격)에 기와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남한강 바로 건너편의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에서도 수로 및 육로를 이용하여 생산된 기와를 향교에 납품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중원 문주리유적 기와가마(충청북도기념물 제81호 ; 1988. 09. 30)

본 유적은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50-1번지에 위치하며, 기와가마는 1기(조선시대)가 발굴조사되었다. 기와의 소비지는 북쪽으로 약 200m 이내에 위치한 팔봉서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팔봉서원 내에서는 이 외에 다른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어 관련 가마터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③ 충주 창동리(쇠꼬지)유적 기와가마

본 유적은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에 위치하며, 달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의 서쪽 하천변에 자리한다.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와 건물지 7동이 발굴조사되었는데, 가마는 2호 건물지(창고시설로 추정)의 남쪽에 위치한다.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가 같은 특징을 보여 건물 조영 시 기와를 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가마로 판단되었다.

2. 기와의 생산과 유통⁵⁵⁾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엄청난 양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으나 여타 물질자료 연구에 비해 기와에 대한 연구자료는 소량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발굴기관에 기와전공자가 많지 않고, 더욱이 기와자료의 비교·연구가 다른 유물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대부분 片으로 수습되어 온전한 상태로 존재해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타 출토유물과 달리 기와는 생산 → 사용 → 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편년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와 생산유적(瓦窯)과 소비유적(건물지, 사지 등)을 연관 지으려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대부분 한 유적의 조사보고나 고찰 수준에 그쳐 관련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한국기와학회 2011)⁵⁶⁾

55) 기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최문환, 2011, 『조선시대 기와 유통 연구 - 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 단국사학회 사학지 42권, 27~63쪽에 대한 내용을 발췌 후 재인용함.

56) 한국기와학회, 2011,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자료집.

한 채의 건축물에 사용될 기와의 양만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양의 기와가 소비되기에 생산지와 소비지는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와가마터는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재와 같은 부산물의 처리도 고심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안된다. 따라서 기와생산지 대부분은 연료와 원재료, 물을 구하기 쉽고 완성품을 이동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

기와가마는 기와를 만들어 소비지에 공급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소비지 즉, 건물지나 사지는 수요의 입장이다. 생산과 소비는 필요충족의 관계이다. 즉, 수요가 없이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와가마는 소비자인 건물지나 사지 등 국가차원의 조영사업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존속적인 입장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기와가마에 대한 이해는 수공업적인 측면과 함께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시켜주는 유통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기와의 유통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동일한 기와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을 동반한다. 가마가 사찰 혹은 읍성 등의 경내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면 두 곳에서 동일한 기와를 찾을 방법은 없다. 소비지에 대한 추론의 전제로는 가마의 지근거리에 소비지가 위치하였을 것이라는 것과 수로를 통해 기와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가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기와의 운송

기와가마의 운영에 있어 공급에 드는 비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은 기와의 운송방법과 운송거리에 있다. 소비지의 입장에서 보면 기와의 운송방법과 거리는 운송비와 직결되며, 이는 곧 가마의 위치로 귀결되는 문제임이 틀림없다.(최문환 2011)

조선시대 기와가마의 경우 대부분 소비지 근처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운송수단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로(水路)를 통한 운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소비지권역은 그 만큼 광범위하게 된다.

먼저 육로(陸路)를 통한 운송은 단거리와 장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도로의 정비나 운송수단에 대한 특별한 염려 없이 간단한 담기(擔機)나 지게 등을 이용한 운반이 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장거리 운송은 도로의 정비·보수 및 대량의 기와 운송을 위한 도구(수단)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거리 육로운송방법을 정리하면, 먼저 도로의 경우 정비가 필수적이며, 새롭게 도로를 정비하기보다 기존의 정비된 곳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운송수단은 말과 수레가 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레의 경우 말에 비해 약 5배 가까이 운송량이 많으므로 대량의 운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레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로(水路)를 통한 운송은 가마와 소비지가 하천변 가까이에 있어 외부에서 기와가 공급될 경우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기와의 수로운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마와 인접한 하천변으로 최소한 창고시설이나 선착장 등의 제반 시설물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확인된 예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고려시대 유적인 진도 용장성과 완도 법화사에서 동일한 막새가 출토된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료의 산지가 동일한 곳임이 밝혀졌다.(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

소 2001)⁵⁷⁾ 이렇듯 진도와 완도에서 동일한 원료의 막새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해운(海運)을 통한 기와의 운송을 뒷받침해준다.

2) 원료의 공급

기와를 만드는 주원료는 물, 흙, 땔나무 들 수 있다. 이중 가마의 위치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땔나무의 조달이라 할 수 있다. 물은 대부분의 가마가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원료로서의 조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흙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일맞은 흙이 있는 곳을 찾아 가마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는 가마에서 출토된 기와와 주변의 토양을 분석하여 기와의 산지를 추정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서천 추동리유적의 경우에는 산지분석을 통해 기와의 태토가 유적 내 토양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인근의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원료의 수급과 기와의 제작 및 사용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06)⁵⁸⁾. 공주 마곡사 가마유적에서는 가마 주변으로 토양채취를 했던 수혈이 함께 출토되었다(이길성 2008 : 182)⁵⁹⁾. 이 두 유적의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기와에 사용된 흙을 가마의 인근에서 조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의 자연과학분석결과 주로 가마 인근의 흙을 원료로 제작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마 위치에 있어 흙은 별반 영향을 미치는 원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땔나무의 조달은 기와가마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마에 있어 난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기를 생산하던 사옹원 소속 분원의 경우 땔나무를 쫓아 자리를 이동할 정도로 땔나무는 가마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듯 대규모의 기와가마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땔나무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마는 가급적 수로를 통한 땔나무의 조달이 가능한 하천변에 위치하게 된다. 아니면 대규모의 땔나무가 공급될 수 있는 산(임야) 주변에 위치하거나 땔나무를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가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전용가마의 경우 대부분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땔나무의 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마의 입지적 조건은 가마의 운영방식 즉 굽는 횟수의 차이일 것이다. 즉,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마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와의 수명을 보통 50년이라 한다면 건물이 대규모로 중창되지 않는 한 가마가 운영되는 시기폭은 빨라야 50년 전후일 것이다. 따라서 기와가마는 대부분 단기간 전용가마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땔나무를 찾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7)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2001,『중성지방사화 분석에 의한 고려 후기 기와의 산지 연구』.

58)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서천 추동리 유적 - I 지역 -』.

59) 이길성, 2008,『원주 안창리 기와생산유적』,『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양식의 고고학』.

V. 맺음말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남한강 수계에 확인된 와요지는 총 12개소이다.

남한강 수계를 통한 주변유적에 기와가 공급되었다고 확인되는 유적은 원주 안창리유적(한강문화재연구원 2010)이 있다. 안창리유적은 군을 이루면서 25기가 한 지역에 밀집된 대표적인 경우로 강원도지역에서 최초이며, 최대규모이다. 또한, 기와가마 내부에서 ‘興法寺惠休造’명 명문와가 출토되어 인접한 흥법사(직선거리로 약 700m가량 이격)에 기와를 공급했던 가마터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에서도 가마 내부에서 ‘丹陽’명 기와가 출토되어 인근의 단양향교(직선거리로 약 1.5km 이격)에 기와를 납품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부분의 기와가마는 한 유적에서 보통 1~2기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 유적에서 밀집도를 보이는 유적은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과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등 총 2개 유적이다.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의 경우 기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찰 등과 같은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 일대에서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남한강을 활용한 원거리의 기와운송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인근에 조선 초 태종 1415년에 창건된 단양향교(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07호)가 위치하는데 조선 초기 이항이 단양군수로 부임할 때 현재의 위치(단양군 단양읍 상방리)에 이전하였고, 영·정조 시기에 두 차례의 중수한 기록(단양군 2005)이 있다. 그리고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의 맞은편에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 기와가마에서 ‘단양(丹陽)’명 기와가 출토되어 향교에 기와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현천리유적에서 생산된 기와도 향교에 납품하였을 여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기와가마는 총 18기(조선전기 6기, 조선후기 12기)로 지금까지 충주지역 단일유적에서 확인된 기와가마 중 밀집도가 가장 높은 조선시대 기와가마터로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건물지 등 소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건물지나 사지 등 수요지가 조사된다면 당시 기와가마의 요업체계를 비롯한 수급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남한강 본류에 위치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 기와가마와 수계에 위치한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기와가마는 고려 ~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가마의 구조 및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은 남한강 건너편의 단양 수양개 유적(Ⅲ지구)에서도 기와가마가 확인되어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기와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단양·충주지역을 비롯한 남한강변 일대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기와가마터가 확인·조사된다면 기와가마와 건물지의 상호 비교·연구를 통한 시대별 가마구조의 전개양상, 기와의 생산과 유통 등을 차츰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丹陽郡, 2005, 『丹陽郡誌』.

논문

김경미, 2011,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문환, 2011, 『조선시대 기와 유통 연구 - 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 단국사학회 사학지 42권.

김인한, 2012, 「중원지역 기와 출토 유적 현황과 성격」, 『중원문화와 기와』, 한국기와학회.

학보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2001, 『중성자방사화 분석에 의한 고려 후기 기와의 산지 연구』.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29.

이길성, 2008, 「원주 안창리 기와생산유적」, 『제3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양식의 고고학』.

한국기와학회, 2011,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자료집.

보고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1993, 『충주 탑평리유적(中原京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2, 『彌勒里寺址 3차 발굴조사 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제천 왕암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충주 용두-금가간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충주 金生寺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용두-금가간 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 내 충주 창동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제천 하소동 아파트신축부지 내 제천 하소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본리·영평리·완오리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忠州 馬山烽燧』.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倉洞里·樓岩里 遺蹟 - 충주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발굴조사보고서 - 충주 두정리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노계마을 고려시대 야철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제천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부지 내 제천 하소동 안담유적』.

청주대학교박물관, 1978, 『彌勒里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청주대학교박물관, 1979, 『彌勒里寺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청주대학교박물관, 1992, 『중원 彌勒里寺址 4차 발굴조사 보고서』.

- 청주대학교박물관, 1993, 『大院寺址·彌勒大院址－중원 미륵리사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제원 傳 淨金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淸風 邑里 逸名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중원 淨土寺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단양 일명사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청풍 남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청풍 북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4, 「청풍 서창지 발굴조사 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91, 「제원 명암리 寺址遺蹟 발굴조사 보고」, 『중앙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 지역』.
-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6, 『제천 덕주산성－상성문지 및 서측 성벽 정비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1999, 『忠州山城－東門址 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5, 『忠州山城－동문 남측 저수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2006, 『제천 덕주산성－상성문지 및 서측 성벽 정비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 『忠州 周井山烽燧臺 발굴조사 보고서』.
-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중원 문주리 와요지 발굴조사보고서』.
-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1996, 『충주 청룡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4, 『제천 장락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6, 『충주 金生寺址』.
- 충청대학박물관, 2006, 『충주 승선사지－시굴 및 1~4차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6, 『제천 덕주사 극락전지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8, 『제천 장락사지－1~3차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8, 『충주 淸風軒 주변 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09,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주변 寺址 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10,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북측)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 충청대학박물관, 2011, 『충주 승선사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서천 추동리 유적－Ⅰ 지역－』.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제천 천남동 에버릿지 유적』.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호암동유적－2009년 발굴조사 보고』.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2구간내 음성 육령리·오생리 및 충주 모남리유적』.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안림동 954-6번지 유적』.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온달산성－2015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장발리 202번지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원주 안창리 유적』.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93, 『중원 탐평리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94, 『93 중원 탐평리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2013, 『단양 온달산성 - 서문지 일원 발굴조사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충주 가흥리유적 - 충주 가흥리 전원주택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현천리 하현천 유적』.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구역 내 유적(I 지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단양 수양개 Ⅲ지구 구석기유적(10차)』.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충주 금곡리유적 - 충주 금곡리 토석채취장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 6주제 토론문

● 「중원지역 와요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을 읽고

백 중 오(한국교통대학교)

본 발표문은 중원지역 와요지의 발굴 성과와 남한강 기와 출토 유적 현황을 정리한 후 남한강유역 기와 가마의 입지 및 성격, 기와의 생산과 유통을 살펴본 것이다. 내용 전반에 관해서는 토론자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몇 가지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지와 소비지, 즉 와요지 구조와 출토 기와류의 비교 · 검토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의 Ⅱ장 표1)과 Ⅲ장 표2)에서와 같이, 남한강 유역에서 발굴된 와요지 유적과 단양 · 제천 · 충주지역의 기와류 출토 유적의 현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 표1)의 와요지에 대한 입지와 구조, 그 특징은 무엇인지,

㉢ 표2)의 소비지 출토 기와류의 기술적 속성, 양식적 속성, 제작기법은 어떠한지, ㉡ 그리고 이들 생산지와 소비지 출토품의 등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분석되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와요지의 유구 배치와 관련한 것이다.

단양 현천리 하현천유적은 해발 137~140m의 능선 사면부에 반지하식의 고려시대 가마 8기가, 해발 141~145m에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조선시대 가마 9기가 발표문 사진2) 및 도1)과 같이 등고선과 직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선대유구가 사용된 후 후대유구가 등고선 상단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충주 호암동 택지개발지구 4차 발굴지역에서도 조선시대 후기의 가마 12기가 사진4)처럼 등고선과 직교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동 유적의 1차 발굴지역은 사진3)에서 보듯이 조선 시대 전기의 가마 6기에서 분포상의 정형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유구 배치만을 통해 볼 때, 고려 후기-조선 전기- 조선 후기 등의 시기성과 유구 배치의 상관관계 및 조업체계의 계기적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3. 와요지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의 IV장 1절 2항을 보면 “기와 가마는 소비지를 기준으로 관요, 민요, 사찰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민요는 마을이나 사원들에 기와를 공급했던 가마를 통칭한다……(중략)…… 민요로 파악된 유적은 단양 수양개 유적, 중원 문주리 유적, 충주 창동리(쇠꼬지) 유적 등 3곳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때 官窯와 民窯(私窯)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표1)에서는 중원 문주리 유적, 충주 창동리(쇠꼬지) 유적에만 민요로 표기하였다.

4. 한강 유역 기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논지 전개 문제이다.

남한강은 고대부터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며, 고려~조선시대에는 조운제도의 한 축으로써 중요시되었다. 때문에 남한강을 통해 기와의 유통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발표자도 발표문의 중간에서 단양 현천리 하현천 유적은 다른 유적에 비교하여 남한강과 매우 인접하고 있기에 유적에서 발생한 기와가 남한강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맺음말에서는 남한강을 활용한 원거리의 기와운송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5. 남한강 유역 기와의 유통망 형성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남한강 분류 및 지류에 근접하는 유적을 6곳으로 상정하고 이 중 인접하고 있는 단양 현천리 하현천 유적만을 남한강을 통한 기와유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가마의 경우 기와의 운송거리는 1km 미만 대부분이며, 대규모로 운영될 경우 5~10km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최문환, 2011)를 통해 본다면 상정했던 모든 유적에서 남한강을 통해 기와유통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은 조선시대로 편년되는 와요지가 집중되어 확인되었고, 남한강과의 거리도 1~2km인 점을 미루어 본다면 수로로 연결되는 유통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6. 기와의 유통에 관한 보충 자료이다.

발표자는 기와의 운송과 관련해 IV장 2절 2항에서 “고려시대 유적인 진도 용장성과 완도 법화사에서 동일한 막새가 출토된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지인 성곽과 사찰에서 동일 기와류가 출토된 몇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부여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 ㉡ 안성 무양성과 천안 홍경사지
- ㉢ 안성 죽주산성 · 망이산성과 봉업사지
- ㉣ 충주 천룡산성과 보련사지
- ㉤ 영원 정양산성 외성과 창성사지
- ㉦ 속초 권금성과 양양 진전사지 등

㉠~㉤는 동일 명문기와, ㉦는 동일 어문기와가 출토되어 당시 산성과 사찰의 수 · 개축과 중창불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축성 및 운영 주체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여겨진다.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이러한 출토 기와류가 생산 당시와 동시기성을 갖는 葺瓦用인지, 후대 건축 부재로 再活用 또는 再使用한 것 인지는 면밀한 유물 관찰과 출토 상태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처의 구조와 기능, 편년 설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학 술 세 미 나

중원지역 기와연구와 전환기

총 괄 | 노명구(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기획·편집 | 김용민(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정태은(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교 정 | 정태은(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현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발 행 일 | 2018년 6월 25일

발 행 처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남한강로 38
 Tel. 043) 850-7800
 www.jch.go.kr

다 자 인 | (주)하이브 Tel. 042) 223-0781

발간등록번호 11-1550159-000048-01

I S B N 978-89-299-1301-4 93910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이 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 자료의 사용 권한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있습니다.

